경주국립공원 기본 해설서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
GYEONGJU NATIONAL PARK OFFICE

목 차

Ⅰ. 문화유산 해설사의 의미와 역할..... 1

Ⅱ. 시나리오

1. 신라의 건국..... 11

2. 시내권

1) 계림, 내물왕릉.....15

2) 첨성대..... 17

3) 대릉원..... 21

4) 월지. 동궁..... 31

5) 월성, 석빙고..... 36

6) 국립경주 박물관..... 41

7) 분황사, 황룡사..... 46

8)김유신 장군묘, 무열왕릉.....54

9) 포석정.....62

3. 토함산권

1) 불국사(느끼는 자연, 배우는 불국사).....68

2) 석굴암.....86

3) 괘릉..... 95

4. 동해안권

1)문무대왕릉.....99

2)감은사지..... 101

3)이견대..... 105

5. 암곡 무장사지..... 107

6. 양동마을

7. 남산에서 바둑바위(이야기가 있는 남산 트래킹)

Ⅲ. 참고자료

참고문헌

Ⅰ. 문화유산 해설사의 의미와 역할

박 홍국(위덕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차 례>

Ⅰ. 머리말

Ⅱ.문화유산 해설사의 의미와 소양(자질)

1. 문화유산 해설사의 의미

2. 문화유산 해설사의 소양
(1) 해설대상에 대한 학문적 지식
(2) 침착·정확성
(3) 올바른 사고력
(4) 적절한 어휘
(5) 적절한 어휘의 사용
(6) 열정
(7) 즐거운 마음과 높은 인품

Ⅲ. 문화유산 해설사의 역할

1. 답사단의 리더

2. 한사람의 교육자

3. 그 지역의 홍보자(또는 외교관)

Ⅳ.맺음말

Ⅰ.머리말

21세기는「문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견은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넓은 의미의 문화는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이상을 실현하려는 활동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의 총칭」이고, 좁은 의미로는 「특히 학문·예술·종교·도덕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정의하여도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과학(학문)·기술(예술)·관습·규범(종교·도덕) 등의 민족 또는 인류사회의 문화 또는 그 실체」가 곧 '문화유산'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왜 문화유산 해설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가장 근원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즉 문화유산 해설사는 그러한 문화유산에 생명력이나 부가가치를 덧붙여 이를 문화유산 답사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자면 문화유산 해설사 자신의 체계화된 지식·문화유산에 대한 남다른 애정 등 수많은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할 것이다. 이글에서는 문화유산 해설사의 의미, 소양, 역할 등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여 보고자한다.

Ⅱ.문화유산 해설사의 의미와 소양(자질)

1.문화유산 해설사의 의미

문화유산 해설사는 이름 그대로 「안내를 받는 사람에게 문화유산이 지닌 의미를 설명해주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문화유산 해설사가 불국사의 대석단(大石壇)아래에서 해설을 통하여 대석단의 위와 아래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공력을 들여서 산지를 깎아 대지로 조성하였는지,「그랭이 기법」이라는 석축기법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충분히 전달하였다면, 이 부분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위의 예(例)에서 살펴 본 것은 매우 짧고 단순한 과정이지만 그 사이에 한사람의 문화유산 해설사가는
①그 답사단의 리더(지휘자)
②한 사람의 교육자
③그 지역의 홍보자 (상대가 외국인일 때는 외교관)등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토록 간단해 보이는 문화유산 해설 작업 속에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 해설사에게 요구되는 자질(資質)·소양(素養)및 그 역할은 다양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무한봉사를 감수해야 할 만큼 문화유산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자신의 해설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또는 단체)에 대한 깊은 애정이 필수적이다.

2. 문화유산 해설사의 소양

이처럼 중요한 문화유산 해설사로서 성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다음의 여

러 가지 소양을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발휘해야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도 문화유산 해설사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능력은 한사람 또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문화유산 해설의 거의 전부가 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흔치 않다. 따라서 일단 이 요건을 갖춘 사람은 문화유산 해설사가 될 수 있는 첫 관문을 통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1)해설대상에 대한 학문적 지식

문화유산 해설의 첫 걸음은 해설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나 문화유적, 관습, 전통, 민속, 종교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다. 우선 해설의 대상이 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자칫 정확하지 않는 지식을 전달하게 되거나, 듣는 사람으로부터 문화유산 해설사로서의 신뢰(信賴)감을 상실하게 되어 원만한 해설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시대에 걸친 다양한 문화유산을 해설하려면 다음의 여러 가지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해설대상이 되는 문화유산의 실체에 접근 할 수 있다.

①민속학
지방의 중요 제례(祭禮)나 양동 민속마을 등 유·무형의 민속 및 그 자료를 해설하기 위한 정도의 기본지식.

②종교학
원시종교, 불교 ,유교 등의 발생과 전파, 의례 및 사상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

③인류학
문화유산 해설사가 고대의 결혼제도, 사회의 성립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지식

④사회학
옛날의 사회제도, 즉 계급이나 신분의 이동, 문·무관의 차이, 교육제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

⑤고고학
문화유산 해설에 직접 사용되는 지식으로 해당 문화 유적에 시대, 크기, 성격 등을 이해하고 그 발굴과정에 얽힌 중요하거나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임.

⑥미학·미술사학
특히 옛 미술품에 대하여 그 작품의 조성시기, 특징, 후대에 끼친 영향, 아름다움 등을

해설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풍부한 지식.

⑦역사학

비석·명문(名文)이 있는 자료·문헌 또는 전적이나 역사기록에 나오는 유물·유적을 해설할 수 있을 만큼의 역사적 지식.

⑧자연과학

분황사 모전석탑에 사용된 안산암이 화산암의 일종이라든가, 신라시대에 금관은 순도가 몇 퍼센트 정도인가, 화석 등 자연유산 해설, 어떤 토양에서 인골의 출토 빈도가 높은가 등 여러 사항을 해설할 수 있는 암석학, 화석학, 토양학 형질인류학을 비롯한 기본적인 자연과학지식.

⑨지리학

어떤 지형에 고대도시가 성립되기 쉬운지, 청동기 시대의 주거유적은 어떤 지형에 밀집도가 높은지, 고대의 교류는 어떤 길을 통하여 이루어 졌는지 등을 해설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지식.

⑩박물관학

박물관, 미술관, 자료관 발굴 전문기관의 중요업무와 유물의 분류, 전시, 보관(보존)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위에서 간단히 열거한 여러 가지 학문지식을 습득함에 있어서 문화유산 해설사가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외국에 대한 지식이다. 최근에는 외국을 둘러 본 내국인도 허다하게 많으며, 더욱이 외국인을 안내하게 될 기회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반드시 외국의 문화유산과 비교 설명할 부분을 설명하지 못 한다든지, 이미 중국의 만리장성을 관광하고 온 사람들에게 경주 명활산성이나 남산성의 거대함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듣는 사람에게 매우 공허하고 설득력 없는 해설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화유산 해설사는 사정만 허락하면 되도록 외국에 대한 견문을 넓혀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서적이나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라도 외국에 대한 지식 습득에 게으름이 없어야 할 것이다.

(2)침착·정확성

문화유산을 해설하거나 답사단을 인솔하는데 있어서 침착·정확성은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는 문화유산 해설사의 덕목이다. 예를 들면 산중의 유적을 답사하는 중에 강풍, 폭우 등 예기치 못한 기상변화를 만나거나, 부상(負傷) 등의 사태에 봉착하였을 때에는 문화유산 해설사가 이러한 사태에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문화유산 해설사는 간단한 응급처치까지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설의 정확성, 이동이나 답사의 시작·종료 시간의 엄수 등의 행위는 그 해설자체의 성공을 도모하게 위해서는 물론이고, 해설자와 그 해설을 듣는 사람 사이에 신뢰를 형성하여 전반적으로 보다 큰 해설의 성공을 기약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여기에서 말하는 정확성이라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애기하자면 문화유산을 해설하는데 있어서 쓸데없는 과장을 피해야 한다는 것과도 연결된다. 즉 황룡사의 거대하였음을 설명하는데 있어「세계 제일의 사원」이라고 한다던가, 황남대총을 두고 「동양 최대의 무덤」이라고 해설한다면 이는 국제화된 시대에 설득력이 약한 하급의 문화유산 해설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3)올바른 사고력

예를 들면 신라시대의 금관을 두고 「삼국시대 금속 공예의 정수(精髓)」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금관 그 자체는 여러 피지배층의 피땀이 응결된 비민주적인 문화재」라고 해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유산 해설의 장은 학술 토론장이 아니므로 가장보편적인 이론을 답사자의 연령, 직업, 성별, 지적수준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해설하는 문화유산 해설사는 보편적이고도 균형 잡힌 사고의 소유자라야 한다.

또한 올바른 사고력에 기초한 문화유산 해설이라도 듣는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자면 해설자는 무엇보다도 듣는 사람의 지적수준에 맞는 해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것도 없이 초등학생들을 앞에 두고 그 단어조차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해설한다면 그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4)적절한 어휘사용

앞서도 기술한 것처럼 문화유산 해설행위의 대부분이 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 이를 담당하는 해설사는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고, 적절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속어나 비어의 사용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르다」와 틀리다의 차이 정도는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무작정 경어(敬語)만을 쓰는 것이 고상한 어휘사용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근래에 경어 남발이 심해져 결코 경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물까지 높여 말하는 것을 보면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이와 함께 말을 하는 속도는 빠르지도 늦지도 않아야 하며, 필요한 때에 음성의 강약(强弱)을 조정할 수 있어야 효과적인 의미전달은 물론이고 듣는 사람의 신뢰를 획득 할 수 있다.

(5)적절한 유머 감각과 따뜻함

문화유산 해설과정은 교실이 아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문화유산 해설이 도모하는 근원적인 목표, 즉 「문화재나 문화유적이 지닌 의미를 정확하게 해설」하기 위하여 적절한 유머감각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장시간 계속되는 해설 속에서 자칫하면 해설을 듣는 사람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매우 무미건조한 이야기가 되기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유산 해설사에게 있어서 유머의 사용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임을 두고두고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술과 같아서 작은 양을 알맞은 때에 마시면 약(藥)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독(毒)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바꾸어 말하면 너무 자주 유머를 사용하면 문화유산 해설사가 경박하게 보이고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뿐만 아니고 해설을 듣는 사람의 연령, 성별, 취향을 가리지 않고 부적절한 유머(이런 것은 사실 유머라고 할 수도 없지만)를 쓰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실례(實例)를 주변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대할 수 있는데, 관광 가이드가 비속어를 섞는 과도한 유머(진정한 유머라고 하기도 어렵다.)를 남발하거나 마치 자신이 연예인이 된 것처럼 처신 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관광이 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문화유산 해설사에게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덕목은 따뜻한 마음씨이다.
요즘처럼 산업화된 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타인에 대한 무관심, 다양한 취미를 초월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유산 해설작업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후에까지 해설을 들었던 사람들이 오래 기억 할 수 문화유산 답사여행이 되자면 문화유산 해설사의 모든 면에 걸친 따뜻한 마음씨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문화유산 해설작업의 처음 얼마간은 모르지만, 곧 해설자와 답사자가 따로 놀게 되거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만남에 그치게 될 것이다.

(6)열정(熱情)

문화유산 해설사의 해설작업에 대한 열정(熱情)은 전방위적이어야 한다.
즉, 해설대상에 대한 애정(愛情), 해설작업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 해설을 듣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씨가 두루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실제로 해설을 듣는 사람이 처음 해설을 듣게 되었을 때, 해설내용 그 자체보다는 해설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해설사에 대한 인간적인 흥미가 곧 식어버리게 되면 성공적인 해설을 기대하기도 어렵거니와 해설사 자신이 위에 말한 전방위적인 열정을 가지지 못할 때 문화유산 해설사라는 직업을 오래 지속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 작업에 임하는 열정 그 자체는 그날의 해설은 물론이거니와 해설사 자신의 장래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문화유산 해설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문화유산 해설에 대한 열정이 증발하거나 회의감이 찾아 들 때에는 언제라도 해설작업을 처음 시작 할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그러한 노력자체가 영영 불가능할 때에는 해설사 자신이 문화유산 해설 작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7)즐거운 마음과 높은 인품

무슨 일이던지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지 않으면 그 일의 효과는 떨어지고, 본인도 힘이 든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근로의 상식이다. 그 중에서도 문화유산 해설사는 거의 매일 다른 연령, 성별, 직업 , 취향의 집단과 대면(大面)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설대상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머리에 담고 문화유산을 찾아서 자동차, 선박, 도보(때로는 등반) 이동을 수반하는 육체적 노동도 감수하여야 하는 특수 직업이다. 여기에 더하여 시

종일관 높은 수준의 예절, 정확성, 신뢰감을 주는 행동을 하면서 문화유산 해설작업 이외에도 답사단의 피곤함이나, 여행 중의 고충해결, 입에 맞는 식사, 편안한 잠자리를 유지시켜 주어야 하는, 즉 교향악단의 총지휘자보다 더 바쁘게 일각일각을 보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직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하면서 문화유산 해설사가 피곤하거나 짜증스런 표정을 짓게 된다면 그 단체 전체가 피곤해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문화유산 해설사가 항상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답사 일정의 성공 뿐 아니라 본인의 작업 피로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유산 해설사가 일부러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레 느껴지는 고도의 인품이야말로 문화유산 해설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문화유산 답사자들이 문화유산 해설사를 대할 때 「아! 이 사람은 시종일관 우리의 일정(一定)을 위하여 애쓰는 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문화유산 해설이 실패할 확률은 극히 낮아지게 되는 것 이다. 나아가서 실무(實務)적으로 문화유산 해설사의 본의 아닌 실수(어디까지나 실수는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가 있었다할 지라도 훌륭한 이품을 지닌 해설사라면 한번쯤은 이를 모면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화유산 해설사가 위의 7까지의 모든 자질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하여도 실무(實務)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향(外向)적인 성격의 소유자라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성격에 대한 사항이어서 어쩌면 문화유산 해설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쉽게 극복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위에서 말한 문화유산 해설사의 여러 가지 자질이나 소양 중에서 일단 이 일에 대한 열정(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도 본인의 노력 여하(如何)에 따라 조금씩 밝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Ⅲ.문화유산 해설사의 역할

문화유산 해설사는 좁게 보면 단순히 유물이나 유적 앞에서 그 것이 지닌 의미를 설명하면 일차적으로 그 임무가 끝나는 것 같지만, 문화유산 해설사 만큼 그 업무가 과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역할이 부과(副果)되어 있는 직업도 찾아보기 어렵다. 머리말에서도 기술(記述)한 것처럼 문화유산을 해설한다는 단순한 작업 속에는 답사자를 처음 대면하였을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편안하고 즐거운 일정이 될 쉬 있도록 쉴 새 없이 마음을 써야하며, 그러는 사이에는 문화유산 해설사 자신도 알게 모르게 때로는 교육자, 때로는 그 지방의 홍보자 (외교관)등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화유산 해설사는 내국인을 안내할 경우에는 교실이 아닌 곳에서 답사자의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수준을 한 단계 또는 그 이상을 높 일수 있으며, 우리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도록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 해설사의 역할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답사단의 리더

문화유적 답사단은 대개의 경우 짜여진 일정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문화유산 해설사에게 재량권은 별로 주어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정이 짜여져 있는 답사여행이라도 문화유산 해설사는 문화유산 해설이라는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도 일정 전체를 조망(眺望)하면서 이것을 세세하게 체크해야하는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즉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적절한 시간에 휴식을 취하게 한다던가, 일정을 조금 빠르게 또는 늦추어 진행한다던가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리더쉽을 발휘하면서 답사단의 일정을 원활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문화유산 해설사가 일정을 자유롭게 조정할수 없는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갑작스런 기상(氣像)의 변화, 교통체증 등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는 어떤 곳을 포기하고 어떤 곳을 추가 한다던가, 아니면 원활한 일정 진행을 위하여 답사 순번을 바꾸어 무리 없는 문화유산 답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한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유산 해설사가 답사 단원들과 부단(不斷)히 접촉하고 설명하면서 「즐거운 의견일치」를 도출(導出)하여 답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면서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문화유산 해설사가 답사단의 리더로써 제 몫을 훌륭히 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한사람의 교육자

문화유산 해설사가 유물이나 유적 앞에서 그다지 수준이 높지 않는 해설을 하여도 해설한다는 그자체로 교육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문화유산 해설사는 그 자신이 매우 특별하고도 긍정적인 입장(入場)에서 교육자자의 지위(地位)를 부여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문화유산 해설을 하는 장소는 때로는 피동(被動)적인 태도를 보이기 쉬운 학교의 교실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즉 문화유산 해설사의 해설을 듣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딱딱하다고 평가받는 교실이 아니고 생동감 있는 현장 앞에 서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교실에서의 수업과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첫째, 문화유산 해설은 글이나 사진 자료를 통한 이론 교육이 아니고 실재(實在)의 유물 또는 유적 앞에서 그 지방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방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서 현실감 있는 해설을 흥미롭게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문화유산 답사자(단체)는 일정한 시간과 경비를 투입하여 자발적으로 찾아 온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교실의 수업과는 의욕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웬만큼 미숙한 문화유산 해설이 아니라면 대개의 답사자(단체)는 일정수준 이상의 흥미와 자발적인 노력을 가지고 문화유산을 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효과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유산 해설사가 한사람의 교육자가 되어 거기에 따르는 자부심과 긍지를 맛볼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부가(附加)적인 보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화유산 해설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문화유산 해설을 통하여「훌륭한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무도 부가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개

훌륭한 교육자가 되는 지름길은 자신의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투입하지 않고 학생들의 호기심에 자극만 가하는데 있다. 예를 들면 무너져 있는 석탑의 경우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석탑을 쌓는 데는 어느 정도의 공력(功力)이 드는지를 답사자(학습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회를 슬쩍 제공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답사자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스스로 학습 하게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유산 해설을 통하여 잠시나마 교육자의 길을 걷는 해설사들은 지나치게 세세한 사실을 장황하게 늘어놓음으로써 자신의 박학다식함을 과시 한다던가 잘난 체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3.그 지역의 홍보자(또는 외교관)

오늘날의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관광산업만이 가지는 다른 산업에 대한 현저한 차이점에 기인(起因)하고 있다.
우선 관광산업은 직접적인 수입면에서 부가가치가 높다.

둘째, 공해(公害)나 환경파괴(環境破壞)등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제조업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셋째, 다름 유형(有形)의 상품거래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재판매나 좋은 소문에 의한 확대재생산(再生産)의 여지(餘地)가 거의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이것은 물론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답사자가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갔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넷째, 해외(海外)관광인 경우 우리나라를 찾았던 외국인이 우리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간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호감(好感),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 촉진(促進),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提高)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수(部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기술(記述)내용만 놓고 보아도 문화유산 해설사가 가지는 그 지역의 홍보자(외국인일 경우 외교관)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선 국내 답사자를 상대할 경우 문화유산 해설자는 고향이 그 곳이 아니더라도 활동 하는 지역의 홍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요즘과 같은 지방자치의 시대에 어떤 지방에 대하여 답사자가 호감(好感)을 가지느냐의 여부(與否)는 그 지방의 성장발달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경주의 예를 들자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 수학여행(修學旅行)을 왔을 때 만약 그 결과가 만족하지 못하였다면, 그 학생들이 성인(成人)이 되어서도 경주를 다시 찾고 싶은 생각은 그다지 가지지 않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경주를 찾고자 할 때에도 부정적인 견해(見解)를 피력(披瀝)하기 쉬울 것은 자명(自明)한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에서든 예가 그 반대가 되어야만 경주가 가지는 관광도시로써의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현상은 해외여행자일 경우 더욱 극명한 경과를 가져오기 쉽다.
경주에서 문화유산 해설사의 안내를 받은 외국인이라면 개인 또는 단체를 막론하고 경주,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인상을 결정짓게 하는 사람은 문화유산 해설사, 버스(택시)의 기사,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종사자가 전부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해외를 여행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여행대상국의 언어에 능통하지 않는 사람이 받게 되는 그 나라에 대한 인상은 여행 중에 상대하는 극히 일부 사람을 통하여 형성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고 하겠다.
이런 사정 때문에 문화유산 해설사는 그 지역의 홍보자, 나아가서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어느 지역의 문화유산 해설사가 한 사람의 훌륭한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 문화유산 해설사가 우리나라의 대사관 전체가 활동한 결과를 능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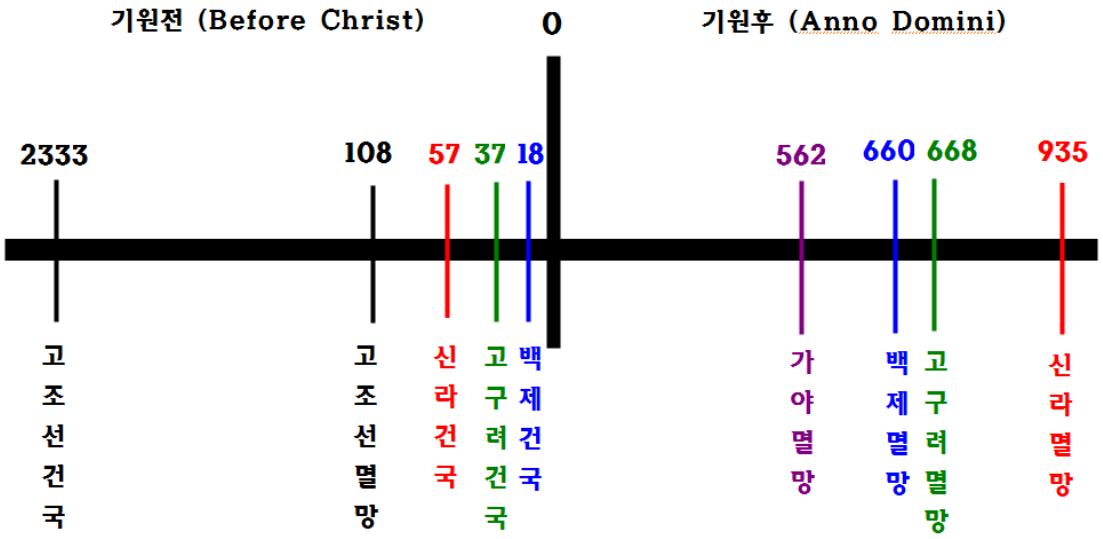
Ⅳ.맺음말

이제까지는 문화유산 해설사의 의미와 역할에 대하여 간략히 논의하여 보았다. 이글에서 기술(記述)한 것처럼 한사람의 훌륭한 문화유산 해설사가 되는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하다. 반면에 그 길은 단순히 문화유산해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좁게는 지역사회, 넓게는 우리나라 전체를 위하여 크게 기여 할 수도 있는 보람찬 일이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시야를 넓혀 볼 때, 오늘날 세계의 선진국은 공통적으로 관광대국의 반열에 올라와 있다. 물론 선진국이 아니면서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이집트, 멕시코 같은 나라도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들 나라는 단순히 조상이 물려준 문화유적에만 의지하고 있는 편이다. 이처럼 그들 나라에 있는 고대유적에게만 기대어 불친절, 바가지요금, 불결함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국가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더 큰 관광수익은 기대하기 어렵다.
어떤 나라의 관광산업수준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집약되어 반영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교육수준, 질서의식, 정직함, 친절함과 더불어 유능한 관광산업종사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나라에서만 높은 수준의 관광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문화유산 해설사의 임무는 막중하지만 그들이 우리나라 전체의 관광산업 수준을 높이기는 어렵다. 단체 관광버스에서 한 걸음만 벗어나도 불친절과 불결함을 맛보아야 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지역과 나라를 찾아올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문화유산 해설사에게는 해설의 대상이 되는 문화유산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특히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우리의 질서, 청결함, 친절과 정직등이 1차적인 관심과 관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면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한 면도 많아 보인다.
또 그렇기 때문에 문화유산 해설사가 맡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밖에 없다.

Ⅱ. 시나리오

1. 신라의 건국



덕업일신 (德業日新) 망라사방 (罔羅四方)

[덕업이 날로 새로워지고 사방을 두루 살핀다] -지증왕 4년부터 신라라 불리움.



▲ 오릉



▲ 나정

진한의 땅에는 옛날에 여섯 촌이 있었다.

첫째는 알천 양산촌으로 그 남쪽이 지금의 담엄사이다. 촌장은 알평인데 처음 표암봉에 내려오니 이 분이 급량부 이씨의 시조이다. 둘째는 돌산 고허촌이다. 촌장은 소벌도리인데 처음 형산에 내려오니 이가 사량부 정씨의 시조이다. 지금은 남산부라하는데 구량벌, 마등오, 도북, 회덕등 남쪽마을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무산 대수촌이다. 촌장은 구례마인데 처음 이산(개비산)에 내려오니 이가 점량부 또는 모량부 손씨의 시조이다. 지금은 장복부라고 하는데 박곡촌등 서쪽마을이 여기에 속한다. 넷째는 취산 진지촌이다. 촌장은 지백호인데 처음에 화산에 내려오니 이가 본피부 최씨의 시조이다. 지금은 통선부라고 하는데 동남쪽 마을이 여기에 속한다. 최치원이 바로 본피부사람이니 지금도 황룡사 남쪽에 있는 미탄사 앞에 옛날 집터가 있어 최치원의 옛집이라고 말하여지는바 아마도 명백한 것 같다. 다섯째는 금산 가리촌이다. 촌장은 지타인데 처음에 명활산에 내려오니 이가 한기부 배씨의 시조이다. 지금은 가덕부라고하는데 상서지, 하서지, 내아등 동쪽마을이 여기

에 속한다. 여섯째는 명활산 고야촌이다. 촌장은 호진인데 처음에 금강산에 내려오니 이가 습비부 설씨의 시조이다. 지금의 임천부로 물이촌, 잉구미촌, 궐곡등 동북쪽 마을이 여기에 속한다.

위의 글을 살펴보면 이 여섯부의 시조는 모두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같다.

노례왕 9년(32)에 처음으로 6부의 이름을 고치고 또 여섯 성을 주었다. (정.손.설.배.이.최)씨 전한 지절 원년(BC69)임자 3월 초하루 여섯부의 시조들이 각각 자제들을 거느리고 다 함께 알천 둑 위에 모여 의논하기를 "우리들은 위로 백성을 다스릴 임금이 없어 백성들이 모두 방자하고 안일하여 제멋대로 하고 있다. 어찌 덕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임금으로 삼아 나라를 창건하고 도읍을 정하지 않으랴"고 했다.

이리하여 높은 곳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 밑에 있는 나정가에 번개 빛과 같은 이상한 기운이 땅에 드리우고 한 마리의 백마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

그 곳을 찾아서 살펴보니 자줏빛 알 한 개가 있었다. 말은 사람을 보자 길게 울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 알을 깨뜨려 사내아이를 얻으니 모습이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놀랍고 신기하여 동천에서 목욕을 시키자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춤을 추니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은 맑고 밝았다. 이로 인하여 혁거세왕이라고 이름하였다. 왕위의 칭호는 거슬한 이라고 하였다. 당시의 사람들이 다투어가며 치하하여 말하기를 "이젠 천자가 내려오셨으니 마땅히 덕 있는 왕후를 찾아 천자의 배필을 정해야 할 것이다" 라 했다.

그날 사량의 알령 우물가에 계룡이 나타나서 왼쪽 옆구리로 여자아이를 낳으니 모습과 얼굴이 빼어나게 아름다웠다. 그러나 입술이 닭의 부리와 같았다.



곧 바로 월성의 북천에 목욕을 시켰더니 그 부리가 떨어졌다. 이로 인하여 그 냇물 이름을 발천 이라고 한다. 남산의 서쪽 기슭에 궁궐을 짓고 두 신성한 아이를 받들어 길렀다. 사내아이는 알에서 태어났는데 알은 바가지처럼 생겼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가지를 박이라해서 사내아이의 성을 박이라 했다. 여자아이는 그녀가 나온 우물이름으로 이름을 지었다.

▲ 나정

두 성인의 나이가 열세 살이 되는 오봉 원년 갑자 (BC57) 에 사내아이는 즉위하여 왕이 되고 이어 알령을 왕후로 삼았다. 나라 이름을 서라벌 또는 서벌 혹은 사라 또는 사로라고 했다. 처음 왕후가 계정에서 태어났으므로 계림국 이라고도 했는데 계룡이 상서로움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일설에는 탈해왕 때 김알지를 얻으면서 숲 속에 닭이 울었다고 해서 나라 이름을 고쳐 계림으로 하였다고도한다. 후세(22대 지증왕)에 와서 드디어 "신라" 라고 나라이름을 정하였다.

혁거세왕이 나라를 다스린지 61년이 되는 해에 74세로 돌아가셨다. 왕후도 역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왕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7일 후에 유체가 땅에 흩어져 떨어졌다. 나라 사람들이 이들을 합장하려고 했으나 큰 뱀이 나타나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므로 다섯으로 분

리된 몸을 각각 장사지내어 다섯 개의 능을 만들었다. 또한 이 능을 사릉 (장사지낼 때 뱀이 나와 방해했으므로)이라 하였다. 담엄사 북쪽의 능이 이것이며 지금의 오릉이라 부르는 곳이다.*[삼국유사]*

또 전하는 이야기는 여기의 오릉은 시조 왕 박혁거세, 2대 남해왕, 3대 유리왕, 4대 파사왕, 그리고 알령부인 이렇게 다섯 분의 유해를 모셨다하여 오릉이라고도 한다.

※ 금자(金尺)이야기



◀ 금척리고분군

신라가 건국되고 혁거세거서간이 열 세 살의 어린나이로 첫 임금의 자리에 올랐는데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려고 언제나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어느 날 어린 임금이 대궐의 뜰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데 사람이 나타나서 말했다.

"저는 옥황상제께서 보냈습니다. 옥황상제께서 지금 지상의 동쪽에 신라라는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새로운 나라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금척(金尺)을 선물로 갖다 드려라 하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금자는 아픈 사람을 재면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을 재면 다시 살아나는 보물입니다.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사라졌다. 임금은 하늘에 절하고 금자를 받아들고 신하들에게 설명한 다음 창고에 소중하게 보관하도록 하였다.

혁거세거서간과 알령왕비는 어질게 백성을 다스렸으므로 나라 안이 화목하고 농사도 잘 되어 태평세월이 계속되었다. 임금도 백성들도 이것은 하늘이 축복해준 금자의 덕인 줄로 알고 금자를 소중히 여겼다.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 왕이 신라에 금자라는 보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잠깐 보고 줄테니 빌려달라고 사신을 보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어린 임금은 신하들을 불러 "금자를 빌려 주는 것이 좋겠는가, 빌려 주지 않는 것이 좋겠는가."하고 묻자 한 신하가 나와서 말하기를 "한나라는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교만한 나라입니다. 금자를 빌려 주면 우리 신라를 업신여겨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신하가 말했다. "한나라는 자기 나라가 부강한 것을 믿고 이웃 작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보물을 한나라가 갖고 있다면 이웃 작은 나라들을 더욱 괴롭힐 것입니다. 금자를 보내서는 아니됩니다."라고 빌려주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왕은 "아무리 귀중한 보물이라 하더라도 잠깐만 보고 주겠다는데 그것도 못한다면 어찌 이웃 간의 의리가 되겠소? 못 주겠다는 구실이 분명해야 하지 않겠소" 라고 말하자 "그 금자를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목숨이란 한도가 있는 것인데 죽어야 할 사람을 그러한 보물로서 자꾸만 살려 놓는다면 마지막에는 나라 안에 인구가 차고 넘쳐 새로 세상에 태어날 자손들이 크게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보물을 가짐으로서 공연히 강한 나라의 욕심을 자극하여 침략을 받을 염려도 없지 않으니 땅 속에 묻어 버리는

것이 상책인가 생각됩니다.” 박혁거세는 그 의견을 옳게 여겨 그 금자를 땅에 묻어 무덤을 만들었다. 신하들은 다시 임금께 말하기를 “한나라는 넓고 큰 나라입니다. 만일 금자를 땅에 묻었다는 기미를 알게 되면 곧 파내어 가지고 갈 것입니다. 금자 무덤 주위에 더 많은 무덤을 만들어서 어느 무덤 속에 금자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혁거세가 이를 허락하였고 그 후 한나라 사신이 와서 금자를 빌려 달라하자 왕은 “이웃 나라에서 금자를 잠깐 빌려 달라 하시니 어찌 못한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금자가 너무 귀중한 보물이라서 땅 속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도적들이 훔쳐갈까 두려워서 그 주위에 더 많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자를 묻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은 금자가 어느 무덤에 들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렵게 먼 길 오셨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하고 금자를 보여 주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나라 사신은 “무덤을 모두 파보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며 금자를 묻은 무덤으로 안내를 하라 하였으나 금자를 묻은 무덤이 너무 많은 까닭에 파보는 것을 단념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그 후 무덤 속에 금자를 묻은 사람이 정말 죽었으므로 신라에서도 금자가 들어 있는 무덤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도 금자는 금척리 고분군 중 어느 무덤에 묻혀 있을 것이라고 전해 오고 있다. 경주시에서 서쪽으로 15km정도 가면 지금도 금척이라 부르는 곳이 있다.



Tip

신라는 시조 왕 박혁거세부터 마지막 경순왕까지 56왕이 있었으며, 그 중 박씨는 10명의왕, 석씨는 8명의 왕, 김씨는 38명의 왕을 지냈다.

또한 3분의 여왕도 있었다. (27대 선덕여왕, 28대 진덕여왕, 51대 진성여왕)



탐구활동

1 신라왕의 성은 어떤 성이 있을까?

2 시조 왕 박혁거세가 태어난 곳, 알령부인이 태어난 곳은 어디일까?

2. 시내권

1) 계림, 내물왕릉

계림(鷄林)



▲ 계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가 태어난 곳으로 사적 제 19호이다. 신라의 건국 초부터 있던 숲으로 고목이 무성하다. 처음 시림(始林)이라 하던 것을 김알지가 탄생한 뒤로 계림이라 고쳐 부르고 나라 이름도 계림이라 하였다.

탈해왕 9년(65년)에 왕은 밤에 금성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시림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날이 밝자 신하인 호공을 보내어 살펴보게 하였다. 사자(使者)가 시림에 이르러 보니 금빛으로 된 조그마한 궤짝 하나가 나무가지에 걸려있고 그 밑에서 흰 닭이 울고 있으므로 돌아와 그 사실을 아뢰었다. 이에 왕은 사람을 시켜 그 궤짝을 가져오게 한 다음 궤를 열어보니 속에는 얼굴이 총명하게 생긴 어린 사내아이가 들어 있었다. 왕은 기뻐하며 아이를 거두어 길렀다. 아이가 자람에 따라 아주 총명하고 지력이 많았는데 이름을 알지(閼智)라 하고 금궤 속에서 나왔다하여 성은 김씨(金氏)라 하였다. 그리고 시림을 고쳐 계림으로 이름을 바꾸고 또한 계림을 나라 이름으로도 하였다. 석탈해는 김알지를 태자로 삼았지만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김알지의 7세손이 김씨로서 처음으로 왕위에 오르니 이분이 신라 13대 미추왕이다. 이후 신라의 왕은 대부분 김씨족에서 계승했는데 계림은 시조 탄강지로서 더욱 숭앙되었다. 경주역사유적지구에 포함되어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고, 회화나무, 느티나무, 물푸레나무등 고목이 무성하며 숲 가운데 비각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비는 조선 후기 1803년(순조3년)에 세운 계림에 관한 비이다.

전 내물왕릉



▲ 전 내물왕릉

사로국 단계에서는 주로 박씨와 석씨계가 왕위를 계승하였으나 13대 미추왕이 왕권을 차지한 이후 꾸준히 정치적 실력을 쌓아온 김씨계는 마침내 17대 내물 마립간(356~402)부터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드디어 왕위를 독점하였다. 내물마립간은 '삼국사기'에 이사금이라 하고 "삼국유사" 에는 마립간이라 하였는데, 광개토왕비에는 "신라 매금" 즉 마립간을 줄여 "매금" 으로 칭하고 있으므로 마립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즉 처음 즉위할 때는 이사금이었으나 권력이 강화되면서 마립간으로 바꾸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마립간이란 명칭은 “우뚝 솟은 간” 즉 최고의 우두머리란 뜻으로 박씨, 석씨의 세력 집단을 누르고 김씨가 명실 공히 신라의 주체세력으로 등장한 시기에 사용되었다. 4세기 중반부터 일어난 정치세력의 교체는 무덤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신들의 위상과 권위를 드러내고자 고총을 축조하고 많은 부장품을 넣는 돌무지덧널무덤의 새로운 양식이 등장한다. 그리고 김씨계 마립간들은 과거 이사금 시기와는 달리 부계장자계승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사금기와는 다른 월등한 권력을 장악하게 된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때가 4세기 중반인 내물마립간 부터이다.

내물왕의 장지에 대한 기록은 고려 시대의 사서인 “삼국유사” 왕력이 최초이다. 여기에 ‘陵在占星臺西南’(능재점성대서남)이라고 되어 있어 현재의 위치에 비정한 것이다. 사적 제188호인 이 왕릉은 흙을 쌓아 만든 원형봉토분으로서 봉분 밑 둘레에는 자연석으로 호석을 쌓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호석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석을 기대어놓고 있는데 이러한 외형의 고분은 통일 신라를 전후한 시기의 왕릉에서 볼 수 있다. 또한 평지에 마련된 것으로 보아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분)일 가능성이 높으나 봉분의 윗부분이 내려앉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횡혈식 석실분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고분의 크기는 밑지름이 2.2m이며 높이는 5.3m이다.

그러나 “삼국유사” 왕력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고려 또는 조선 시대에 전승과정을 잃어버렸다. 현재의 왕릉은 조선 시대의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조선말기 또는 1900년대에 들어서 지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최근 학계는 대릉원 내의 황남대총(98호분)의 남분 또는 황남초등학교 앞의 제 119호분을 내물왕릉으로 추정하고 있다.



탐구활동

1 계림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며, 왜 바뀌게 되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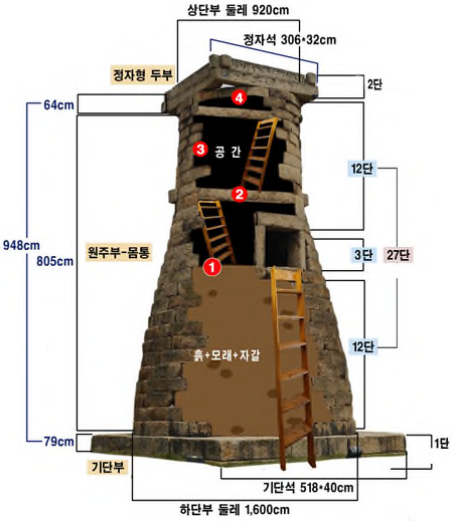
2 김알지, 박혁거세, 석탈해의 탄생설화 공통점을 찾아보자.

3 신라 왕의 호칭 변화와 그 의미를 알아보자.

2) 첨성대(瞻星臺)



▲ 첨성대



▲ 첨성대 내부구조

신라의 천문학 수준을 상징하는 첨성대는 현재 완전한 모습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알려져 있다. 천문, 기상, 역법은 농경 사회에서는 매우 긴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성격도 띄고 있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연을 움직이는 것은 하늘이며 하늘을 정치 이념의 중심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일식, 혜성, 지진 등과 같은 천체 현상은 국가적으로 흉한 일의 징조로 받아들여졌으며 왕은 이런 일을 하늘로부터의 경고로 생각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기상 및 천체 관측은 국가적인 사업이었고 첨성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첨성대가 실제로 매일 밤 천문을 관측하던 실용적인 건조물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이론도 없지 않다. 하지만 삼국시대에 누각박사(시간측정 전문가), 역박사(역법 전문가), 일관(천체 기상 관측자)등의 관리를 두고 있으며 가뭄, 홍수, 폭풍, 우박, 서리 등에 대한 이상 기후뿐만 아니라 천체 현상과 관련된 일식, 혜성, 유성, 지진 등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첨성대가 신라 천문학과 연관된 것은 분명하다.

국보 제 31호인 첨성대는 높이가 약9.1m, 이다.

구조는 아래의 기단부, 술병형의 원통부, 다시 그 위의 정상의 정자부로 나눌 수 있다. 기단부는 남쪽 변이 정남에서 동쪽으로 19°정도 돌아서서 있는데 북두칠성을 바라보는 방향과 일치한다. 또 13단에서 15단에 걸쳐서 정남에서 동쪽으로 약 16°가 되는 방향을 향하여 한 변이 약 95cm 정방형의 창구가 나 있다. 창구의 내부 아래쪽은 흙과 잡석으로 채워져 있고 그 위쪽은 정상까지 뚫려서 속이 비어 있는 형태이다. 정자석은 일제 강점기와 광복 후에 자리를 바로잡아서 떨어지지 않게 수리를 했다고 전해진다.

첨성대의 구조가 상징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면 첫째, 전체가 원형과 사각으로 되어있는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천원지방의 원리를 상징한다. (아래의 기단부가 땅, 중간의 원통부가 하늘) 둘째, 첨성대의 돌의 갯수와 단의 수를 세워보면 먼저 원통부는 중간의 네모난 창구 아래에서 둥근 부분 아래까지 12단으로 1년이 12달임을 나타내고 창

구 위에서 둥근 부분 위까지 12단으로 합하면 24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24절기를 나타낸다. 창구 옆 3단을 더하면 27단이 되는데 이는 선덕여왕이 신라 27대 왕이란 뜻이다. 원통부 1~27단까지의 돌이 361개 반으로 음력으로 샘한 날 수와 같으며 27단의 석단과 맨 위의 우물 정자 모양의 돌까지 합하면 28단으로 기본 별자리 28수와 동일하고 기단부까지 더하면 29, 30단으로 한 달을 뜻한다. 첨성대 돌의 모든 갯수는 401개의 돌로 이루어져있으며 19-20단과 25-26단까지 두 곳에 우물 정자형(井) 장대석이 걸쳐 있는데 양 끝이 밖으로 나가있다. 맨 위의 정자석은 신라 자오선의 표준이 되었으며, 춘분과 추분 때 창구를 통하여 태양 광선이 창구 아래의 바닥까지 완전히 비칠 수 있는 위치에 열려있다. 즉 동지와 하지에는 창구 아래 부분에서 광선이 완전히 사라져 춘하추동을 나누는 분점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또 천문을 관측하기 위해서 바닥에서 창구까지는 바깥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며, 창구에서 위에까지는 안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으며 위에서는 혼천의(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던 천문관측기), 망통, 잣대 등의 도구를 이용해 관측했다고 한다.

첨성대는 중간 창구아래까지는 내부에 흙과 자갈로 채워져있는데 이는 아주대 김장훈 교수의
“첨성대 건축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에서 1986년 재미과학자에게서 입수한 첨성대실측도면과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첨성대는 화강암을 한단 씩 쌓아 올릴 때 마다 첨성대 내 외부에 그만큼 높이로 완만한 경사의 흙비계(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수 있도록 임시 설치한 가설물)를 쌓아 무거운 화강암을 지표면에서 작업공간으로 이동시켰다며 흙비계 덕분에 세밀한 곡선을 유지한 안정적인 건축이 가능했고 완성 후 외부의 흙은 모두 제거했으나 내부의 창구아래는 제거하지 않아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첨성대의 축조시기를 밝힌 가장 오래된 기록인 ‘삼국유사’ 선덕여왕지기삼사 조에는 ‘선덕여왕대(632~647)에 돌을 다듬어 첨성대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경잡기’등에 기록되고 있다.

결국 축조 연대에 대해서는 선덕여왕대(632~647년)와 633년, 647년으로 달리 기록하고 있어 정확한 축조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첨성대가 선덕여왕 때에 축조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능면에서는 여러 사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1970년대 초반까지는 대체적으로 천문대 즉 천문관측을 하는 곳으로 이해하여 왔다. 그런데 1974년 이후 ‘세종실록지리지’ 또는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처럼 가운데 구멍을 통해 천문관이 꼭대기까지 오르내리며 꼭대기 정(井)자석 위에 혼천의 등을 설치하고 천문을 관측했으리라는 종전의 해석에 대해 첨성대의 내부가 너무 다듬어지지 않고 좁아서 남향의 창구를 통해 위에까지 오르내렸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첨성대의 위쪽 공간이 좁다는 점, 평지에 위치해 있다는 점, 외형이 불교의 수미산과 유사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의문을 제기하였다.

①불교 재단 ②별자리를 관측하던 곳에 세운 상징물 ③수미산을 상징하는 건축물 ④신라의 표준 해시계와 방향표지 시설 등의 여러 가지 설과 이견이 속출되었다. 그러나 대체로 학계에서는 이러한 설에 대하여 종전의 전통적인 입장인 천문대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창구 양 기둥 아래쪽에 사다리를 걸치기에 편리하도록 홈을 판 흔적을 확인할 수 있

고 안쪽에 사다리를 걸치기 편하게끔 튀어나오게 끼워 넣은 석재(장대석)들이 있다. 이렇게 사다리를 통해 꼭대기까지 올라가 천문을 관측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선덕여왕*



▲ **선덕여왕릉**

선덕여왕(재위기간632-647)은 신라 최초 여성의 신분으로서 왕위에 오르신 분이다. 바로 신분에 등급을 따지는 독특한 골품제라는 신라시대 신분제도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 신분제도는 골과 품으로 계급이 나뉘어지고 특히 골은 성골과 진골로 다시 분류되어 극소수의 성골집단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진평왕에게는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었고 딸 덕만공주가 화백회의를 통해 신라 27번째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한다.

선덕여왕 시기에는 첨성대, 분황사, 황룡사 9층 목탑 등 여러 가지 건축물을 만들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선덕여왕에 대한 '삼국유사' 기록을 보면 "지기 삼사"라고 해서 모란꽃 그림 이야기, 여근곡 이야기, 그리고 도리천에 묻힌 선덕여왕 이야기가 전해진다.

- 지기삼사

1. 모란꽃 이야기 - 어느 날 당나라 태종이 선덕여왕에게 선물을 보내왔다. 붉은색, 자주색, 흰색의 모란꽃 세 송이를 그린 그림과 씨앗이었다. 선덕여왕은 그 그림을 보고 "이 꽃은 향기가 없구나!"라고 말했다. 신하들이 씨를 심어 나중에 꽃이 피었는데 과연 여왕이 얘기한 것 같이 향기가 없었다. 신하들이 놀라며 묻자 여왕은 그림에 벌과 나비가 없어 향기가 없는 꽃임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2. 여근곡 이야기 - 어느 겨울 영묘사 옥문지 근처에서 개구리들이 며칠 동안이나 울었다. 신하들이 기이한 일이라 생각하고 선덕여왕에게 알렸다. 여왕은 잠시 생각하더니, "어서 군사를 모아 여근곡에 가면 백제 군사가 숨어 있을테니 모두 잡아 오너라"라고 말씀하셨다. 알천낭에게 군사를 주어 여근곡을 찾아가 숨어 있던 백제 군사들을 잡았다. 신하들은 백제 군사가 숨어 있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 "개구리가 우는 것은 성난 군사의 모습과 같고 빛깔로는 흰빛이요, 흰색은 곧 서쪽을 가리키니 그곳에 백제 군사들이 있음을 알았다"고 대답했다.

3. 도리천에 묻힌 선덕여왕 - 어느 날 신하를 불러 "모월 모일 내가 죽거든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얘기하였다. 신하는 여왕께 "도리천이 어디입니까" 라고 여쭈니 여왕이 "낭산의 남쪽이다"라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여왕이 예언한 날에 돌아가시자 낭산의 남쪽에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후에 문무왕 때 낭산 아래쪽에 사천왕사를 만들었는데 불교에서는 사천왕이 머무는 사왕천 위가 도리천이라 믿었다고 한다.

이렇듯 선덕여왕은 정치 외교력에 선견지명까지 갖추었던 왕이었음을 알 수 있다.

- 골품제도

귀족과 일반백성을 두품제(頭品制)로 구분하였다. 관직 진출, 혼인, 의복, 가옥, 수레 등의 규모와 장식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탐구활동

1. 신라 사람들이 별을 관측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 요즈음 천문대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신라시대 때는 이러한 평지에서도 관측이 가능했던 이유는?

3) 대릉원



경주에 오면 시내에 산 같이 큰 무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산사람과 죽은 사람이 같이 섞여 사는 도시라고도 한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만 해도 고분들 옆에는 집들이 곳곳에 섞여 동네를 이루어 산 사람이 죽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 옛날 신라 사람들의 숨결을 느끼면서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경주 종합 관광개발 계획에 따라 일정한 구획을 정해놓고 무덤공원으로 조성하였는데 그 곳이 바로 이 대릉원이다. 그 때 대릉원 안에 있던 집들은 헐어 내고 고분은 발굴. 조사하여 복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릉원 안을 둘러보면 알겠지만 고분들은 그 크기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무덤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옛날 사람들은 살았을 때 누리던 부와 권력을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이 저 세상에서 영원히 누린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큰 무덤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 무덤에 묻힌 수많은 껴묻거리만 봐도 당시 지배자들의 권위나 지위 과시욕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무덤들이 컸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독무덤이나 널무덤을 만들다가 점차 거대한 돌무지 덧널무덤을 만들기 시작했고 삼국통일을 전 후로 굴식돌방무덤이 만들어졌다. 대릉원은 약 38,000평이나 되는 공원 안에 약23개의 고분이 있는데. 이곳을 대릉원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은 <삼국사기>에 13대 미추왕을 대릉에 장사 지냈다는 기록이 있어 미추왕릉이 있는 이곳을 대릉원이라 부르고 있다.

- 능, 총, 묘

옛날 무덤들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어떤 무덤은 능, 또는 총이라고 부르고, 또 묘라고 부르는 무덤도 있다 능은 어느 왕의 무덤인지 확실 할 때 왕의 이름을 붙여 능이라고 한다. 또 총은 누구의 무덤인지 모르며. 발굴을 하고 출토된 유물들중 특별한 유물의 이름을 앞에 붙이고 무덤총자를 써 무덤의 이름을 정한다. 묘는 귀족이하 일반인들의 무덤을 부르는 말이다.

- 미추왕릉



대릉원 정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특이하게도 담장이 둘러져있는 큰 무덤을 볼 수 있다. 대릉원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무덤인데, 이 무덤의 주인은 바로 신라 제13대 왕인 미추왕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 13대 미추왕은 신라 최초의 김씨 왕으로 경주 김 씨의 시조인 김알지의 6대손이다. 이미 신라에서 힘을 가지고 있던 박씨와 석씨 집단이 오랫동안 힘겨루기를 한 후에 비로소 김씨인 미추왕이 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삼국유사>에서는 미추왕을 "대대로 벼슬이 높았고 여전히 성현의 덕이 있어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다. 왕위에 오른 지 23년 만에 죽었는데, 왕릉은 흥륜사 동쪽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곳을 미추왕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미추왕은 재위기간 동안 백제의 침입을 막아내고 농업을 장려하는 등 국력신장에 힘쓴 왕으로 죽은 후에도 신라인들에게 성군으로 사랑받은 왕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백성에 대한 정성이 높아 다섯 사람의 신하를 각지에 파견하여 백성의 애환을 듣게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만큼 백성을 사랑한 왕이기도 했다.

13대 미추왕 시기 신라는 삼국 중 가장 약소국이었다. 백제의 침략과 천재지변 등 고난의 연속이기도 하였는데 그런 고난은 미추왕이 죽고 나서도 이어졌다. 삼국유사에서는 죽어서도 나라를 걱정한 미추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내려 온다.

※ 죽엽군 이야기

그 중 하나는 신라 14대 유례왕 시절, 이서국(지금의 청도)이라는 이웃나라가 쳐들어와 신라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위기 상황에서 모든 군사들이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어디에선가 큰 함성소리가 들렸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 투구에 대나무 잎을 꽂은 군사들이 달려와 이서국의 군사와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결국 신라군은 대나무 잎을 투구에 꽂은 죽엽군들 덕분에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전투가 끝난 후 이상하게도 죽엽군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미추왕릉 앞에 무수히 많은 대나무 잎이 쌓여있었다고 한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죽어서도 나라를 걱정하던 미추왕이 죽엽군들을 보내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미추왕릉을 죽현릉, 또는 죽장릉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 김유신과 미추왕에 얽힌 이야기

신라가 삼국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룰 수 있게 큰 공을 세웠던 김유신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다. 미추왕이 죽고 495년 후인 제37대 혜공왕 때 김유신 무덤에서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었다. 무덤 속에서 장군과 같은 위용을 갖춘 사람이 준마를 타고 나타나 죽현릉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그 후 능 안에서 소리 내어 우는듯하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김유신이 말하기를, “신은 평생을 신라를 위해 힘을 보태어 통일을 이룬 공이 있고, 혼백이 되었어도 나라를 지키고 재앙을 물리쳐 신라를 위한 마음을 잠시도 고쳐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손이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 나라를 위해 힘쓰는 일은 그만하고 멀리 떠나겠다고 했다. 이 말에 미추왕이 답하기를, “나와 공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다시 예전처럼 힘써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미추왕이 세 차례나 부탁했지만 김유신은 세 번 다 허락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들은 혜공왕은 자신에게 해가 미칠까 두려워 신하를 보내 김유신묘에 가서 사과하고 명복을 빌게 하였다. 미추왕의 혼이 아니었다면 김유신의 노여움을 막지는 못했을 것이다.

왕릉 앞에는 화강석으로 만든 혼유석이 마련되어있고 남쪽에는 삼문이 있으며 이 삼문을 따라 담장이 둘러져 보호되고 있다.

- 황남대총



현재 경주 시내 중심가인 황남동, 황오동, 노동동, 노서동 일대에 소재한 대규모 고분군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제 98호 고분으로, 황남동에 소재한 신라 최대의 고분이라는 뜻으로 발굴 후 ‘황남대총’이라는 별칭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황남대총이라는 현재의 별칭은 2개의 무덤으로 구성된 고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황남대총 쌍분’이라고 고쳐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고분은 현존하는 고 신라 최대의 표형봉토를 가진 돌무지덧널무덤이다. 이 고분의 발굴은 신라 고분의 내부를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교육적 의도에 따라 1973년부터 1975년까지 만 3년 6개월에 걸쳐 문화공보부 경주고적발굴조사단(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발굴 조사되었다. 황남대총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하여 그 사전작업으로 외형이 조금 작은 천마총(제155호분)을 먼저 발굴하였고, 이어서 황남대총(제98호분)을 발굴하게 된 것이다. 이들 두기의 고분 발굴은 한국 고고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전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고 신라 돌무지덧널무덤의 세부 내용을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고분의 외형으로 본다면, 황남대총은 두 개의 원형봉토분이 결합되어있는 표형분이다. 남분과 북분이 합쳐진 이 표형분은 의도적인 부부 합장을 위한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남편 무덤인 남분이 선축되고 부인무덤인 북분이 남분에 덧붙여 나중에 축조되어진 것으로 양 고분 연결 부위의 토층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 황남대총의 출토유물들





남분을 살펴보면 널 안의 피장자는 금동핀, 목걸이, 허리띠, 고리자루칼(환두대도)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껴묻거리 칸 안에는 은관, 금제 관장식을 포함한 무기류가 들어있었고 피장자는 머리를 동쪽으로 둔 유골 일부가 남아있어 60대 전후의 남자로 밝혀졌다. 그 외에 20대의 여자 유골 일부도 수습되어 무덤 안에 순장 된 여자가 있었다고 판단되었다. 신라에는 지증왕 이후 순장풍습을 금지했다는 기록만 남아있었는데 위의 사실을 통해 신라에도 순장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둥근 밑 항아리와 굽다리 접시를 비롯한 토기류, 덩이쇠를 비롯한 철기, 안장 등의 말갖춤 등이 다량으로 출토 되었다. 그 중 단연 눈에 띄는 마구류가 발견이 되었는데 바로 비단벌레로 장식한 금동 말안장이었다. 이 비단벌레는 원래 일본에서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 일본에서 가져온 비단벌레인지 한반도에 자생하는 비단벌레인지 말이 많았는데,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집단 비단벌레 서식지가 발견되어 우리나라에도 비단벌레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환경부 지정 보호 야생동식물이기도 하다. 이 금동말안장에는 무려 1,000마리의 비단벌레 날개가 소요되었는데 금동 위에 비단벌레의 날개를 촘촘히 깔아 황금빛과 비단벌레 특유의 영롱한 초록빛이 화려하게 서로 어울리는 최상의 공예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장식법은 매우 드문 것으로 신라시대 최상위의 계층만을 위해 사용한 기법이었다고 한다.

북분의 껴묻거리 칸에서는 금관, 목걸이, 허리띠 등의 장신구, 유리와 토제 등의 용기, 고리칼 등 무기가 들어있었고, 덧널 위에서도 귀걸이, 옥제품, 말갖춤, 토기 등 신라 고분에서는 가장 많은 금제 장신구 유물들이 출토 되었다. 남분에 비해 장신구가 많은 반면, 무기류가 적었으며, 또한 부인대라는 명문이 있는 허리띠끝꾸미개가 출토되었는데 부인이란 고대 중국에서 천자의 비 또는 제후의 아내를 이르던 말이었다. 이 허리띠의 출토 위치는 허리부분이 아닌 머리위에 껴묻거리 상자에서 출토되었고, 이것의 발견으로 부부

묘인 북분과 남분 중 북분이 부인의 무덤으로, 그냥 부인이 아닌 왕비의 무덤인 것으로 밝혀졌다.

황남대총에서 출토 된 유물 중에 또 하나 깜짝 놀랄만한 것이 나왔는데, 바로 유리로 만들어진 다양한 그릇들이었다. 황남대총에서 출토 된 유리 유물 가운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높이 25cm, 배지름 9.5cm 유리병이다. 연녹색을 띈 얇은 유리로 만들었으며, 타원형 계란 모양이다. 이 유리병은 물을 따르기 편하게 끝은 새 주둥이 모양으로 좁게 오므렸다. 이런 모양이 마치 봉황 머리와 같이 생겼다고 해서, 중국에서는 '봉수형(鳳首形)병'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정작 중국에는 아직 이런 유리 기물이 출토된 적이 없다고 한다. 이런 형태의 유리병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에서 4세기 말경부터 생산되어 동쪽으로 확산된 실크로드의 상징물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유리병 역시 실크로드를 통해 신라 땅까지 오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유리병의 목에는 10개의 가는 청색 줄이 있고, 주둥이 부분에는 약간 굵은 선을 돌렸다. 손잡이에는 굵은 청색 유리를 'ㄱ'자로 붙였는데, 이 손잡이에는 금실이 감겨 있다. 이는 취약한 부분을 금실로 보강하려 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신라인들이 유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짐작케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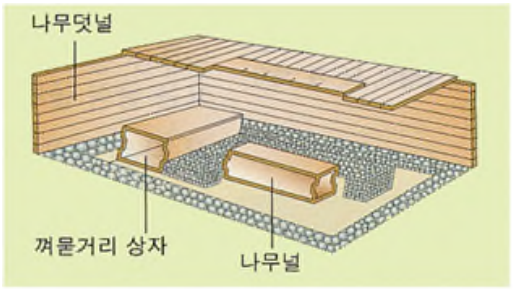
유리사발은 매우 짙은 청색이고 유리잔의 색은 연녹색이며 하나는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컵 모양을 하고 있다. 주둥이 부분은 약간 도톰하게 돌기가 있으며, 밑면 가운데 부분이 약간 들어가 있다. 다른 하나는 주둥이 부분이 넓은 원통형으로 주둥이 부분은 관 모양이고, 위와 아래에는 약간 청색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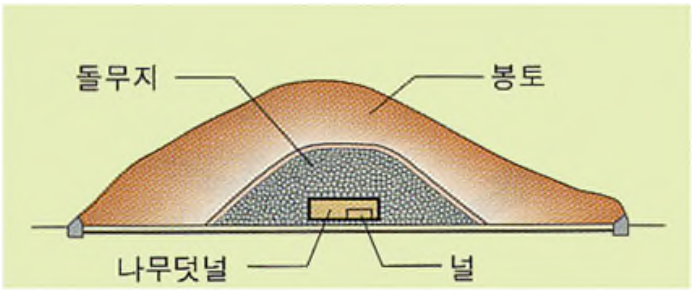
유리의 질과 그릇의 형태 및 색깔로 미루어 보아 이들 유리 유물들은 서역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이며, 그 당시 서역과의 문화적 교류를 짐작하게 하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 황남대총의 주인은?

황남대총에서 확인 된 문화적 요소는 많은 부분이 고구려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신라와 고구려가 서로 잘 지내던 4세기 후엽부터 5세기 중엽 사이에 황남대총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이 기간에 내물마립간, 실성마립간, 눌지마립간이 세상을 떠나, 이들 마립간 중에 황남대총 남분의 주인공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아직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 신라시대의 무덤 양식[적석목곽분]





신라시대의 무덤 구조는 당시 고구려나 백제와는 조금 다른 무덤 양식을 가지고 있었

다. 돌무지덧널무덤이라는 양식인데 이 무덤은 생토 표면을 약간 파내고 냇돌과 자갈을 고르게 펴서 바닥을 만들고 시신을 넣은 관을 놓은 뒤 관 위에는 껴묻거리상자를 놓았다. 그 위에 크게 널을 덧대고 윗부분은 어마어마한 돌무지를 쌓고 돌 위에는 진흙을 약 20cm의 두께로 덮어 빗물이 스며들어 오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들어 마무리를 했다. 관은 우리말로 '널'이라고 하는데 나무로 만든 널이 2중으로 되어 있으니 '덧널'이라고 하고 돌이 많이 덮혀있어 돌무지덧널무덤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고구려나 백제 무덤의 경우에는 구덩이를 파 널을 안치하는 방을 만들고 벽 한쪽에는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만들어 봉토를 씌운 무덤이다. 이러한 무덤을 굴식돌방무덤이라고 하는데, 방이 하나인 외방무덤으로도 만들 수 있고 앞방, 뒷방, 옆방 등 두개 이상의 방으로 이루어진 다실묘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시기와 상관없이 가족묘나 부부의 무덤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돌무지덧널무덤은 무덤의 특성상 먼저 죽은 사람의 무덤을 다시 파낼 수 없기 때문에 옆에 붙여 연이어 무덤을 축조한다고 한다. 그래서 황남대총과 같은 쌍봉형태의 무덤이 만들어 진 것이다. 또 대부분의 무덤들은 도굴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신라초기의 무덤들은 도굴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돌무지 덧널무덤의 구조적인 특징 때문이다. 이런 형태의 무덤은 도굴이 쉽지 않았다고 하며 굴식돌방무덤은 벽 한쪽에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만들었는데, 출입구가 있다보니 아무래도 도굴꾼들이 도굴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돌무지 덧널무덤은 돌무지이니 쇠막대기로 아무리 찔러봐도 소용이 없고, 삽으로 파보려고 해도 돌들이 파면 팔수록 무너져 내려서 도저히 도굴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돌무지덧널형태의 신라무덤들은 지금까지 소중한 유물들을 온전히 간직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고구려나 백제보다 신라의 유물이 더 많이 남아있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 천마총



천마총은 발굴되어 발표되기 전까지는 155호 고분이라고 불렸다. 그러다가 1970년대 고고학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대릉원도 발굴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대릉원 안에서도 가장 큰 무덤, 지금의 황남대총이라고 불리는 98호 고분을 먼저 파보려고 했으나 아직까지는 기술이 미흡하여 작은 고분을 먼저 시험적으로 파보기로 했다. 그게 지금 천마총이라고 불리고 있는 155호 고분이다.

우리가 앞에서 돌무지덧널무덤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러한 무덤형식을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천마총의 발굴 때문이다.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많은 유물들이 출토가 되었는데, 장신구류가 8,766점, 무기류 1,234점, 마구류 504점, 그릇류 226점, 그 외 796점으로 모두 11,526여점의 엄청난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 하늘을 날고 있는

말이 그려진 그림이 발견 되었는데 그 그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마도이다. 그 이름을 따서 천마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천마총 내부는 출토 된 유물의 복제품으로 꾸며져 있어 무덤의 내부구조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천마총 내부

천마총 내부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시신을 안치한 곳을 볼 수 있다. 천마총을 발굴하고 무덤형태를 알 수 있게 복원한 모습인데 돌무지덧널무덤이라는 신라의 대표적인 무덤형태를 가지고 있다. 유리 전시관 안에는 덧널만을 복원해 목곽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해놓았으며. 발굴 당시 껴묻거리 상자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마도가, 시신의 머리 쪽에는 금관이 있었는데 마치 마스크처럼 얼굴을 가린 채 발굴이 되었다. 허리부분에는 칼과 금 허리띠를 착용하고 있었고 발 부분에는 도끼, 금동신발이 지금 모습 그대로 놓여 있었다.

- 천마도, 말다래





이 천마도는 신라의 대표적인 회화작품이다. 지금까지 회화자료가 거의 발견이 되지 않은 신라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작품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아 국보로 지정이 되었고, 고분의 명칭도 이 그림에 따라 천마총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천마도는 하늘을 나는 말. 천마를 말다래에 그린 작품인데 장니라고도 하며 말을 탄 사람의 옷에 흙이 튀지 않도록 말의 안장 양쪽에 늘어뜨려 놓은 가리개를 말한다. 천마는 긴 혀를 내밀고 꼬리를 위로 치켜세워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있는데 이는 천마가 죽은 사람을 하늘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음을 짐작케 해준다. 이 천마도 장니는 가죽이 아닌 자작나무 껍질로 만들어져있다. 이 자작나무의 껍질색은 하얀색인데 얇게 갈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얇게 갈라진 껍질을 여러 겹으로 누벼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다고 한다. 더구나 이 나무껍질에는 방부제에 해당하는 큐틴이 다른 나무보다 많이 들어 있어 잘 썩지 않고 곰팡이도 잘 피지 않는다고 하며. 거기다가 왁스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물이 잘 스며들지 않아 방수성 또한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작나무를 말 장니로 사용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우리가 말이라고 생각했던 이 그림이 말이 아닌 기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린은 우리가 생각하는 초원에 살고 있는 목이 긴 기린이 아니라 동양의 고전 및 고대 미술작품등에 등장하는 기린의 모습 이라고 하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 천마총 출토 금관



천마총에서는 금관을 비롯해 다양한 금 장신구들이 출토되었다. 전 세계에서 출토 된 고대 금관의 수는 10개다. 놀라운 사실은 그 10개 중 8개의 금관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출토가 되었고 그 중 6개는 신라의 금관이라는 사실이고 나머지는 대가야의 금관이라고 한다.

금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장식하는 모양이 있다. 천마총 금관 역시 신라금관의 전형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금관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쪽에 나뭇가지 모양의 세움장식이 3줄이 솟아나 있고, 뒷면에는 사슴뿔모양이 2줄로 되어있는 전형적인 신라계 금관모양이다. 그리고 나뭇가지 모양 장식에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듯 돋아나는 싹 모양과 태아 형태의 곡옥 장식들이 달려있다. 또 천마총 금관은 곁가지가 3단인 다른 금관에 비해 4단으로 되어있으며 지금까지 출토 된 신라 금관 중 가장 크고 무거우며 화려하여 출토 된 금관 중에서도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되어 국보로 지정이 되었다.

신라금관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화려하고 신성한 금관을 정말 쓰고 다녔을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실제 금관을 머리에 쓰고 생활하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 사실 금관의 무게는 1kg 안팎으로 머리에 쓰면 굉장히 무겁고 불편했을 것이다. 무겁고 불편한 금관을 쓰고 이 금관이 넘어가지 않도록 지탱하려고 하다가는 목이 부러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금관은 장례용품의 일종으로 죽은 사람을 위해 만든 부장품으로 추측하고 있다. 실제로 쓰고 다닌 것이 아니라 마스크처럼 죽은 사람의 얼굴에 씌워준 데드마스크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래서 발굴 당시에도 이 금관은 머리 위에 씌워진 형태가 아니라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다. 천마총과 황남대총의 금관도 발굴당시 이와 비슷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이들의 출토 된 모습을 보아 아마 금관은 머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얼굴 전체를

감싸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금관의 세움장식은 조금만 움직여도 휘어질 정도로 약해 머리에 쓰기는 부적합하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관의 쓰임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는 힘들다. 신라 금관의 기원도 마찬가지다. 신라의 금관이 시베리아 등지에 샤머니즘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시베리아 무당이 쓰는 관에는 사슴뿔 모양의 장식이 있는데 이 사슴뿔 장식이 신라의 금관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추측이다. 시베리아 등지에 여러 민족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나무를 숭상하였는데 이 나무의 상징이 신라에 전해져 나뭇가지 모양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라에서 금관이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설에서는 세움 장식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한다. 신라금관의 세움 장식과 싹 모양, 그리고 태아모양의 장식들은 새 생명과 신성함, 다산, 풍요 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 김알지의 탄생설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금관의 나뭇가지 장식이 바로 계림의 나무를 상징하고 이 신성한 나무의 탄생을 상징하는 나뭇잎사귀와 곡옥을 매단 것으로 신라의 금관이 바로 계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며, 신라 금관은 화려한 만큼 그 이면에는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 기타 출토품



다음은 금제 허리띠다. 허리띠는 고대 사회에서 신분을 나타내는 장신구로 금으로 만든 허리띠는 왕족만이 착용하였는데 널 안에서 허리에 착용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가죽이나 비단으로 만들었을 띠 부분은 부식되었고 그 표면을 장식하였던 띠꾸미개와 띠꼬리, 띠끝장식, 띠드리개가 남아있다. 주렁주렁 뭔가가 많이 달려있는 이것이 바로 띠드리개다. 콩깍지 모양의 드리개와 물고기, 향합, 손칼, 족집게, 숫돌, 곡옥 등 많은 장식들이 달려있다. 또 각각의 드리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 콩깍지 모양의 드리개는 다산과 풍요를, 물고기는 풍요와 영생, 곡옥은 엄마 뱃속 태아의 형상으로 생명과 재생을, 육면체의 숫돌은 철을 장악한 경제력과 지배계급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또 향통은 '보통 백성과 달리 향기로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지배층들은 보통사람과는 다르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달았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이렇듯 각 모양마다 당시 신라에서 중요시되던 상징적 의미가 담겨있다고 추측하지만 단지 추측일 뿐 아직까지 정확한 해석은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방 유목민족들이 필요한 도구를 허리에 차고 다닌 문화를 상징한다고 해서 신라인들은 유라시아대륙 넓은 초원을 누비던 유목민족의 일부가 이곳으로 이동하여 살았던 것은 아닐까 하며 신라와 북방유목민족의 연관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금모는 정교하고 세련 된 세공솜씨를 보여주는 유물로써 많은 학자들이 금관과는 다르게 실제로도 쓰고 다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구를 보면 겨우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라서 머리에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직물로 만든 머리에 쓰는 모자의 정상부 장식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새가 날개를 활짝 핀 모양의 새 날개모양 관장식과 나비모양 장식은 신라 사람들이 쓰는 관이나 금모에 꽂아 장식하는 것으로 쓰였다고 추측하고 있다.

- 천마총의 주인은?

피장자의 주인공에 대하여는 제 20대 자비왕, 제 21대 소지왕 또는 제 22대 지증왕이라는 설이 있다.

탐구활동

1 대릉원이란 이름은 어디서 유래되었을까?
2 황남대총의 북분은 누구의 무덤이며 왜 그렇게 추측하는지?
3 천마총 내부는 어떤 구조일까?
4 천마총이라 이름 지은 이유는?
5 천마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6 천마총과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유물 중 국보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4) 월지. 동궁

▼ **월지(月池), 동궁(東宮)**



신라는 660년에 백제를, 668년에 고구려를 정벌하고 당군을 몰아내어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물에 눈을 뜨게 되고 국제적인 감각을 익혀나가는 과정에서 원지인 안압지와 동궁을 조성하였다. '삼국사기'에 문무왕 14년(674년) 궁궐 안에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기이한 짐승을 길렀으며, 5년 뒤인 문무왕 19년(679년)에 동궁을 짓고 안팎의 문 이름을 정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안압지는 통일을 이룩한 문무왕의 기념비적인 사업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명칭에 대해서는 문헌에서 임해전과 월지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고려와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폐허화된 모습을 보고 시인 묵객들에 의해 '갈대와 부평초가 무성하여 오리와 기러기가 날아다니는 한가로운 못'이라는 뜻인 '안압지(雁鴨池)'로 불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창건 연대에 대한 견해는 신라 제 30대 문무왕 14년(674년) 2월 설과 문무왕 19년(679년) 8월 설을 꼽을 수 있다. 학계는 두 견해 중 대체로 전자인 674년 설을 받아들이고 있다. '삼국사기'의 기록 내용과 출토된 유물을 고려할 때 679년 설 역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토 유물 중 의봉 4년(679년)과 조로 2년 (680년)명의 연호가 새겨진 벽돌과 기와의 출토된 것에 근거하여 공사를 679년에 시작하여 680년에 완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지와 임해전에 관한 역사적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직관지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무왕 14년 2월(674년) : 궁 안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귀한 새와 진기한 짐승을 길렀다.
2. 문무왕 19년 8월(679년) : 동궁을 짓고 궁궐 안팎 여러 문의 이름을 지었다.
3. 효소왕 6년 9월(697년) : 군신들을 임해전에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4. 경덕왕 11년 8월(752년) : 동궁아를 설치하고 상대사(12관 등) 1인과 차대사 1인을 두었다.
5. 혜공왕 5년 3월(769년) : 군신들을 임해전에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다.
6. 소성왕 2년 4월(800년) : 폭풍으로 임해, 인화 두 문이 파괴되었다.
7. 애장왕 5년 7월(804년) : 임해전을 중수하고 새로 동궁 만수방을 지었다.
8. 헌덕왕 14년 2월(822년) : 동생 수종을 부군으로 삼고 지궁으로 들였다.
9. 문성왕 9년 2월(847년) : 평의전과 임해전을 중수하였다.
10. 헌안왕 4년 9월(860년) : 왕이 임해전에 군신을 보았다.
11. 경문왕 7년 1월(867년) : 임해전을 중수했다.
12. 헌강왕 7년 3월(881년) : 임해전에서 향연을 베풀었다.
13. 경순왕 5년 2월(931년) : 고려 태조를 임해전에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14. '삼국사기' 잡지 제 8, 직관 조 : 동궁관.동궁아.세택.월지전.승방전.월지악전 등이 보인다.

이상의 기록에서 임해전은 왕궁의 면모를 갖춘 채 통일신라말까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일신라말의 어지러웠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50대 정강왕 이후에는 50여 년 동안 관련 기록이 보이지 않고 있다가 경순왕대(931년)에 와서 고려 태조를 초빙하여 연회를 베푼 것이 사실상 마지막 기록임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조선시대 기록으로는 조선 단종 때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매월당 김시습의 시문 '안하지구지' 성종 17년(1486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주부 고적 조와 '동경잡기' 고적 조 등이 있다. 이곳에서는 안압지라는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의 기록으로는 조선 현종 10년(1669년)에 경주부윤 민주면이 경주의 향교 중수 때 임해전 터의 초석을 많이 옮겨갔던 사실과 숙종대의 부윤 권이진은 이곳을 둘러보고 '고궁 옛터'라고 하였다.

경순왕은 931년 2월에 태수 겸용을 보내 왕건과 만나기를 청했다. 왕건은 경순왕의 청을 받아들여 50여명의 기병만 거느린 채 신라 도성으로 들어왔다. 경순왕은 자기의 사촌 아우 유렴으로 하여금 성문 밖에서 왕건을 영접해 오도록 하였다. 왕건이 도성에 당도하자 그는 백관들과 함께 교외에서 왕건을 맞이하여 대궐로 와서 서로 마주 대하며 예를 갖춰 절을 하였다. 경순왕은 임해전에서 연회를 베푼 후에 술 기운이 감돌자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이 나라의 운수가 불길하여 견훤이 불의의 행동을 자행하며 내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무엇으로 이 통분으로 대신할 것인가?" 경순왕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시절을 한탄하자 좌우의 신하들이 함께 흐느껴 울었고, 왕건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경순왕을 위로했다. 왕건은 그 뒤로도 두 달여 동안 서라벌에 머물다가 5월에야 귀국길에 올랐다. 경순왕은 혈선까지 따라나와 송별하고 사촌 아우 유렴을 볼모로 삼아 왕건을 따라가도록 조처했다.

왕건은 서라벌에 머무는 동안 휘하 군사들에게 절대로 민가에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엄한 군령을 내렸다. 그 덕분에 서라벌 백성들의 환심을 살 수 있었다. 그들은 말하길 "이전의 견훤이 왔을 땐 마치 범이나 이리때를 만난 것 같았는데 오늘 왕공이 왔을 때는 부모를 만난 것 같았다."라고 하였다. 송악으로 돌아간 왕건은 8월에 경순왕에게 사신을 보내 비단과 안장을 갖춘 말을 선물하고, 관료와 장수들에게도 정도에 따라 포백을 하사했다. 이렇듯 왕건이 지극정성으로 호의를 표하자 경순왕은 왕건을 매우 신뢰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경순왕은 고려에 투항하겠다는 자기의 생각을 공포한다.

-눈물로 궁궐을 하직한 마의태자 이야기-

경순왕은 백관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사방의 국토가 모두 타인의 소유가 되었고, 국쇠는 쇠락하여 우리나라는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다. 하여 이제 우리는 스스로 나라를 보존할 수 없게 되었으니 고려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판단했다." 그 말을 듣고 태자가 이렇게 간언했다. "나라의 존속과 멸망은 반드시 하늘의 운명에 달린 것이니 충신의 사들과 함께 민심을 수습하여 우리 스스로를 다지고 힘을 다 해야 합니다. 망할지언정, 어찌 일천년의 역사를 가진 사직을 하루아침에 경솔히 남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나 경순왕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리의 고립과 위태로운 상황이 이지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나라를 보존할 수 있겠는가? 강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나약하지도 못한 탓에 그저 무고한

백성들만 참혹하게 죽이는 것은 차마 할 짓이 아니다.” 경순왕은 곧 시랑 김봉유를 고려에 보내 항복을 알리는 편지를 전하게 하였다. 그러자 태자는 비통한 표정으로 통곡하며 왕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개골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는 개골산의 바위 아래에 집을 짓고 삼베옷을 입은 채 풀잎을 먹으며 일생을 마쳤다고 전한다. (그가 삼베옷을 입고 지냈다 하여 마의태자라고 불렀다.)

그 해 11월, 고려 태조가 대상 왕철 등을 보내왔다. 항복을 받아들이고 경순왕을 영접하겠다는 뜻이었다. 이로서 신라의 천년사직은 무너졌다.

위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건국하자 임해전은 더 이상 궁궐이 아니므로, 건물의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바람 등으로 폐허가 되었다. 또한 월지는 신라가 망한 후 천 여년이 지나는 동안 주변의 무산십이봉에서 흘러내려온 흙과 월지 서편의 동궁이 자연 재해 등으로 허물어지면서 본래의 모습을 잃고 못 안이 거의 흙으로 매몰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포항과 부산을 잇는 동해남부선의 일부가 안압지 북쪽을 경유하게 되면서 건물이 가운데 일부가 파손되었다. 그 후 1974년 경주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안압지와 주변의 건물터에 대한 준설작업 및 정화작업 도중 신라시대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그리하여 1975년 3월 24일부터 1976년 12월 30일까지 2년여에 걸쳐서 문화재연구소가 주관하여 연못 내부와 주변 건물지 등에 대해 발굴을 실시하였다. 연못의 전체 범위는 동서 약 200m, 남북 약 180m로 면적은 4,738평이다. 호안 석축은 남쪽과 서쪽을 직선으로 처리하고 동쪽과 북쪽은 복잡한 곡선으로 처리하여 리아스식 해안처럼 만들었다. ‘임해전’이라는 건물의 명칭이 암시하고 있듯이 바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다. 즉, 연못의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전체가 보이지 않도록 직선과 곡선을 적절히 배합하여 만들었다. 연못 바닥에는 두께 50cm 정도의 점토와 자갈 등을 섞어 강회다짐을 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하였고, 바닥 전체에는 굵은 모래와 바닷가에서 옮겨온 작고 까만 바닷돌을 깔았다. 연못의 호안 석축 길이는 1,005m이고, 섬의 호안 석축까지 합하면 1,285m이다.

건물이 있는 서쪽 호안은 연못 쪽으로 돌출된 5.1m의 높은 대 위에 원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정자를 지었다. 그 외에 동, 북, 남쪽에는 높이 1.2m의 낮은 곡선 호안으로 조성하였다. 또 못 가운데에 한 변이 120cm 되는 井字모양의 목제귀틀을 만들어 그 속에 연꽃과 같은 수초를 심어 뿌리가 연못 전체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안압지의 물을 끌어들이는 입수부는 북천에서 끌어온 물이 거북(용이라고도 함)을 음각한 것 같은 아래위 두 개의 수조를 거쳐 작은 연못에 모아서 2단의 폭포로 떨어져 연못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것은 심산유곡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여러 현상을 입수부에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연못 조영은 신라만의 독창적인 조형감각이 돋보이는 정원 조경 예술이라 할 수 있다.

발굴을 마친 3년 뒤인 1980년에는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관리국에서 서쪽 호안에 접하여 서있던 다섯 개의 건물 중 세 동을 복원하였고, 나머지 건물터는 원래의 자리에 새로 초석을 놓았다.

특히 최근에는 복원된 건물과 호안에 야간 조명시설을 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1985년 국립경주박물관 내 단위 유적에 대한 최초의 독립 전시관으로 개관되었던 안압지관(월지관)을 2004년 새로 단장하여 당시 신라의 정원예술 문화

와 궁중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입수구, 출수구





안압지의 물을 끌어들이는데는 연못 동남쪽의 입수구를 이용했는데, 끌어온 물을 수 개의 수조에 고이게 했다가 인공 폭포를 통해 연못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지금은 사라졌으나, 이 입수구에는 용의 머리가 있었다고 한다. 서양 사람들은 용을 재앙의 상징이라 여긴 반면,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용을 행운의 상징이라 여긴 것을 잘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입수구를 통해 들어온 물은 연못 구석을 돌고 돌아 출수구로 가는데, 이 출수구에서는 나무로 된 마개로 물의 높이를 조절했다고 한다. 신라 천년의 역사, 또 다른 신라의 문화가 안압지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

- 출토 유물



▲ 신라의 주사위 주령구(酒令具)



▲ 목선

안압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총 3만 3천여점으로 서쪽 건물이 있었던 지역에서는 건축부재와 불상 등이, 섬을 중심으로 한 동쪽과 남쪽 호안에서는 목선, 토기류, 농어구 등이 뻘층에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유물로는 목선, 금동가위, 금동판불, 숟가락, 벼루, 주령구, 목간, 칠기류, 토기, 짐승 뼈 그리고 화려하고 다양한 기와와 전 등을 들 수 있다. 이 출토품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경주 지역의 고분이나 절터에서 출토되는 유물들과는 달리 신라시대 궁중 생활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실생활 용품

이라는 점이다.

주령구는 나무로 만든 14면의 주사위이다. 참나무로 만들어진 이 주사위는 정사각형면이 6개. 육각형면이 8개로 높이는 4.8m이다. 술을 마실 때 흥을 돋우는 왕실의 놀이기구 일종으로 이것을 굴려서 나오는 면에 쓰여진 내용(벌칙)에 따라 행동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 왕도 삼잔일거가 나오면.....

-열네가지 벌칙-

1. 삼잔일거-술석잔 한번에 마시기(폭탄주)
2. 자창자음-스스로 노래 부르고 마시기
3. 음진대소-술을 다 마시고 크게웃기
4. 중인타비-여러사람 코 두드리기
5. 금성작무-소리없이 춤추기
6. 유범공과-덤벼드는 사람이 있어도 가만히 있기
7. 농면공과-얼굴 간지러도 꼼짝않기
8. 곡비즉진-팔을 구부리고 술마시기
9. 추물팍방-더러운 물건을 버리지 않기
10. 월경일곡-월경 한 곡조 부르기
11. 공영시과-시 한 수 읊기
12. 임의청가-누구에게나 마음대로 노래 시키기
13. 자창괴래만-스스로 괴래만을 부르기
14. 양잔즉방-술 두잔이면 쏟아버리기



탐구활동

1 안압지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며 왜 안압지라 불리게 되었나?

2 안압지는 어느 왕때. 만들어졌으며 만들게 된 동기는?

3 출토 유물들에 대해 알아보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

5) 월성, 석빙고



월성(月城)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제 5대왕 파사왕 22년(101년)에 신라 최초의 궁성이었던 금성(현 창림사터로 추정)으로부터 옮겨왔다. 그 후 20대 자비왕 18년(475년)부터 21대 소지왕 10년(488년)까지 일시적으로 왕의 거처를 월성 동쪽의 명활산으로 옮긴 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신라 역대 왕들의 궁성이었다. 삼국통일 이후 나라가 커짐에 따라 부근 일대가 편입되기도 하였는데, 특히 문무왕 때에는 동궁, 월지, 첨성대 일대가 편입, 확장되어 신라의 중심지가 되었다. 월성에 대한 이칭으로 반월성이라 불려지게 된 것은 고려시대 부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주부 고적 조에 고려 명종(1170년~1179년) 때의 학자인 김극기가 월정교를 읊은 시에서 찾을 수 있다. 성은 남쪽을 흐르는 문천의 자연 하천을 이용하고, 그 북쪽에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그 형태가 반월형을 이루고 있다. 반월성, 신월성 또는 왕이 거처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재성(在成)이라고도 하였다. 성의 전체적인 지세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으며, 성벽 둘레는 약 1.8km에 달한다. 성벽은 동, 서, 북 3면과 서남면은 토석으로 다지고, 그 맨 위에 점토를 이겨 덮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벽의 높이는 일정하지 않으며 대체로 10~20m 정도로 쌓았다. 성은 남쪽이 다른 쪽보다 좀 낮다. 그것은 성벽과 바로 접해있는 남천이 자연적인 해자 구실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성의 규모는 동서 860m, 남북 250m, 성의 전체 둘레는 1.841m, 면적은 1,830.600m^2(약 55,400평)이다.

지금까지 월성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일제 강점기 때에 성의 서쪽 월정교 부근 성벽 아래에서 가야식 토기를 포함한 철기시대 문화층이 조사되었고, 1979년~1980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해서 안압지로 통하는 곳에서 문지가 확인된 바 있다. 특히, 문지 동쪽 성벽 바깥에 해자를 자연석으로 쌓은 석축이 조사되었다. 또이 해자 부근의 문지 북측 지점에서 동북으로 수로를 위한 방책으로 약 1.5m 간격으로 기둥을 세우고 옆으로 다시 원목을 차곡차곡 가로로 댄 것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성안에는 남문과 서문격인 귀정문, 현덕문, 무평문, 준례문 등의 문과 월상루, 망덕루, 명학루, 고루 등의 루와 왕이 정사를 돌보던 남당, 신하의 조하를 받고 사신을 접견하던 조원전, 삼궁(대궁, 양궁, 사량궁)을 관할하던 내성 등 많은 건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석탈해의 탄생설화-

탈해니질금이 남해왕 때 가락국의 바다에 배로 와서 정박하고 있었다.
그 나라의 수로왕이 신하와 백성들과 함께 북을 치고 법석을 떨면서 그들을 맞아 머물도록 하였으나 배는 그만 나는 듯이 달려서 계림의 동쪽 하서지촌 아진포에 닿았다.
이 때 포구가에 한 노파가 있었는데 이름이 아진의선으로 곧 혁겨세왕의 고기잡이 할멈

이었다. 할멈은 배를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이 바다에는 원래 바위가 없었는데 어찌하여 바위에 까치가 모여서 울고 있을까?” 하면서 배를 저어 찾아가 보니 한 척의 배 위에 까치가 몰려있었다.
배 가운데는 궤짝 하나가 있었는데 길이가 20자이고 폭이 13자였다.
그 궤짝을 끌어다가 나무숲 아래에 두고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몰라서 하늘을 향해 기도를 했다.
이윽고 열어보니 단정하게 생긴 남자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칠보와 노비가 가득 실려있었다. 7일동안 잘 보살폈더니 그때서야 말하기를 “저는 본래 용성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28용왕이 있었는데 사람의 몸에서 임신이 되어 태어났습니다.
5, 6세부터 왕위를 이어받아 만백성을 가르치고 그들의 인성과 천명을 닦아 바르게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8품의 성골이 있으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가 왕위에 오릅니다.
당시 저의 부왕인 함달파께서 정려국왕의 딸을 맞이하여 왕비로 삼았습니다.
오래도록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자식 낳기를 기도하였더니 7년 후에 커다란 알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대왕은 여러 신하들을 모셔놓고 묻기를, "사람이 알을 낳는다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일로 아마도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하고는 궤짝을 만들어 저를 넣었습니다. 겸하여 칠보와 노비를 배에 싣고 바다에 띄우면서 빌기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인연 있는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때마침 "붉은 용이 나타나 배를 호위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라 했다.
말을 마치자 그 아이는 지팡이를 끌며 두 종을 데리고 토함산 위에 올라가 무덤 같은 돌집을 지어 7일 동안 머물렀다.
그는 성 안에 살만한 곳이 있는지를 바라보니 마치 초승달과 같은 봉우리 가 보였다.
지세가 오래 살만한 곳이어서 곧 내려가 찾아보니 바로 호공의 집이었다.
호공의 집이 길지임을 알고 꾀를 내었다.
미리 숫돌과 숯을 묻어두고 호공을 찾아가 이 집은 대장장이였던 자기 조상이 살던 곳이라 우겼다. 하지만 호공이 쉽게 내어 줄 리가 없었다.
탈해는 관아에 고해 자기 조상들의 집이니 판결해 달라한다. 관아에서 말하길 “어떻게 너희집이라 하느냐, 증거가 있느냐?” 하니 탈해가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대장간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집 담장 주변을 파보면 대장간에서 사용하던 도구들이 나올겁니다” 이에 소송이 붙어 관가에서 땅을 파보니 과연 숫돌과 숯이 나왔으므로 집은 탈해의 차지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비담과 염종의 난 때에 김유신과 김춘추가 이곳을 근거지로 했다는 기록과 경덕왕과 충담사의 찬기파랑가 등에 얽힌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지금은 성터 중간의 높다란 터와 1741년에 서쪽 50m 지점에 있던 것을 현재의 위치로 옮긴 석빙고만 남아있다.
또한 경주 석씨의 시조를 모시던 숭신전도 있었으나 1980년 동천동 석탈해왕릉 동남쪽

으로 옮겼다. 통일 신라기에는 동쪽의 명활산성, 서쪽의 서형산성, 남쪽의 남산성, 북쪽의 북형산성 등이 나성의 역할을 하였고, 주위에는 사방으로 해자가 둘러져 있어 월성을 호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흙과 돌을 섞어 쌓은 성벽은 무너지고, 건물에 사용되었던 석재들은 옮겨지고 나무만 무성하여 성에 오르지 않고는 궁성터임을 알 수가 없다.

다만, 숱한 기와와 토기편이 산재해 있어서 장엄하고 화려한 궁궐 건물이 즐비했던 당시의 모습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해줄 뿐이다.

- 비담의 난

비담은 그 출신을 잘 알 수 없으나 645년(선덕여왕 14) 11월에 귀족회의(貴族會議)의의 장인 상대등에 올랐던 것을 보면 본래 진골(진골) 신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담이 상대등에 오른지 약 1년 남짓 지난 뒤에 염종 등과 함께 '여왕은 잘 다스리지 못한다(女主不能善理)'는 것을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큰 별이 월성에 떨어졌다.

이에 비담은 반란군에게 "별이 떨어지는 곳에 반드시 피를 흘린다 했으니 이것은 여왕이 패할 징조이다"라고 독려하였다.

기세가 오른 반란군의 떠들어대는 소리가 땅을 진동할 정도였다.

그러자 김유신은 오히려 "길흉(吉凶)은 정해져 있지 않고 오직 사람이 하기에 따른 것입니다"라며 왕을 안심시키고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불을 안기고 연(鳶)에 실어날려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하였다.

그리고는 이튿날 아침에 "어젯밤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선전하였다.

또한 백마를 잡아 별이 떨어진 곳에 제사드리며 '하늘의 도는 양이 강하고 음이 약하지만, 사람의 도는 임금이 높고 신하가 낮습니다. 그것이 바뀌면 난이 되는 것입니다.

비담 등이 신하로서 임금을 도모하며 아래서 위를 범하니, 이것은 이른바 난신적자(亂臣賊子)로서 사람과 신령이 함께 미워할 일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축원(祝願)한 뒤, 장졸(將卒)을 독려해 반란군을 공격하였다.

마침내 비담 등이 패해 달아나자 추격해 진압하고 주모자의 구족(九族)을 멸하였다.

이로써 선덕여왕에서 진덕여왕으로 이어지는 성골(聖骨)왕권을 견제하려던 귀족 세력은 후퇴하고 김유신·김춘추(金春秋) 등 율령국가(律令國家)를 지향하는 세력이 승리해 장차 무열왕계(武烈王系)의 전제 왕조가 성립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탐구활동

1 월성의 다른 이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2 월성을 둘러싼 인공과 자연의 물길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며 왜 만들었을까?



Tip

왕의명칭

거서간 = 삼국사기 시조본기에 진한사람들의 말로 왕이란 뜻인데 혹은 귀인을 이르는 말

이라고도한다.

차차웅 = 존장의 칭호로써 오직 임금에게만 칭한 것이다. 혹은 자충 이라고도 하는데 김대문의 말로는 차차웅은 방언으로 무당이다.

이사금 = 연장자 또는 치리라는 뜻으로 이가 많은 사람. 즉 연장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에서 유래.

마립간 = 김대문의 설명에 의하면 “방언으로 말뚝을 이름이요. 궐은 함조의 뜻으로 자리를 정하여 두는 것이니 왕궐이 주가되고. 신하의 궐은 아래에 배열하는 것을 이름한 것이라고 한다.

- 석빙고





월성의 북쪽 성벽을 잘라서 남쪽에 입구를 내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바닥을 경사지게 하여 얼음에서 녹아내린 물이 성 밖으로 배출되도록 바닥 중앙에 배수로가 설치된 석빙고가 있다.

내부는 동서로 홍예처럼 된 석재 다섯 개를 틀어 올리고 홍예석과 홍예석 사이의 천장 세 곳에 배기공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문을 열면 내부로 들어온 더운 공기가 둥근 천정 가운데로 모여 환기구로 빨리 배출이 되는 역할을 한다.

얼음을 저장 할 때는 짚이나, 겨를 사이사이 깔고 차곡차곡 쌓았다고 한다. 현재 배기공 위를 덮고 있는 석재는 근래에 수리할 때 석탑의 옥개석을 사용한 것으로 원래의 것은 아니라고 한다. 출입구 높이는 1.78m, 나비 2.01m의 크기로 만들고 계단을 설치하여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 제 3대 유리왕 때부터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6년(505년) 11월에 유사에게 명하여 얼음을 저장하도록 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 이로 미루어 1,500년 전부터 얼음을 저장하여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석빙고에 대해서는 신라시대에 축조한 것을 현 위치로 옮겼다는 신라시대 축조설과 조선시대 축조설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일제강점기 때 일인학자들에 의해, 후자는 최근 60년대에 진홍섭 등에 의해 제기

되었다.

조선시대에 이곳에 석빙고를 설치한 이유로는 성 남쪽에 남천이 흐르고 있어 채빙하기에 편하다는 점과 성벽의 경사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 전체적인 구조와 설계가 조선시대에 세워진 청도 석빙고, 대구시 측후소 내에 있는 석빙고 비명, 안동의 석빙고, 경남 창녕읍 석빙고 등과 같다는 점을 들어 진홍섭의 조선시대 축조설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축조 연대를 알 수 없는 석빙고인 창녕군 영산면 석빙고, 달성군 현풍읍 석빙고, 성주와 고령의 석빙고 등을 예로 들어 모두 조선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경주의 석빙고도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석빙고와 마찬가지로 18세기 전반에 축조되었을 것이라 하였다.

경주의 경우 석빙고 좌측에 있는 비문에 의하면 1738년(영조 14년)에 당시 경주부윤이던 조명겸이 목조의 빙고를 석조의 빙고로 다시 축조하였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석빙고 입구의 이맛돌에는 '숭정기원후재신유이기개축'이라고 쓰여 있어 4년 뒤에 동쪽으로 옮겨 현 위치에 다시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옮기기 전의 옛 위치는 서쪽에 웅덩이로 남아 있다.

현재 영조 당시 축조한 석빙고 가운데 경주의 석빙고가 가장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현재까지 신라시대에 축조된 석빙고의 위치 확인과 조선시대의 석빙고와는 구조면에서 어떠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탐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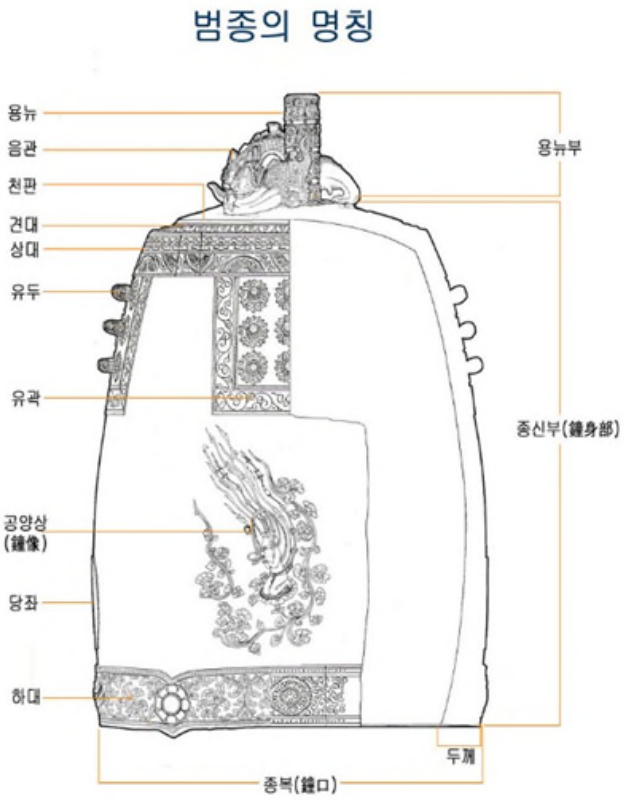
1. 현재 월성에 남아있는 석빙고는 조선시대의 것이다.

이곳 뿐만이 아니라 창원. 창녕. 안동 등 여러곳에 석빙고를 만들어 얼음을 사용하게 했는데 어떻게 쓰였을까?

6) 국립경주 박물관

▼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鐘)**





국립경주 박물관의 역사는 1910년 경주 지역의 유지들이 신라 고분을 보호하기위해 만든 “신라회”가 근간이 되어 1913년 “경주고적보존회”로 발전하여 1915년 조선시대 객사를 이용하여 전시관을 개관하고 1926년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으로 흡수되어 1945년 해방 뒤 서울 국립박물관이 정식으로 개관되자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으로 되었다.
본관 건물에는 원삼국실, 신라1. 2실과 국은 기념실로 나누어져 있다.
신라1실에는 돌무지덧널무덤에서 출토된 금관과 황금유물을 비롯한 그릇, 토기들이 전시되어있고. 신라2실에는 무기류, 말갖춤, 토기, 토용들이 전시되어 있다. 국은 기념실에는 고 국은 이양선박사가 평생 모은 유물을 기증받아 전시하고 있으며, 미술관에는 석조 미술품을 비롯한 황룡사 구층탑모형이 전시되어 있고. 안압지 관에는 안압지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되어있다. 그리고 야외에는 절터. 궁터 등에서 옮겨온 석조 미술품들이 전시되어있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오른쪽(서편) 뜰의 종각에 있는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鐘)이라 부르는 큰 종이 맨 먼저 눈길을 끈다. 성덕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주조된 까닭에 성덕대왕신종이라 부르기도 하고, 맨 처음 봉덕사(奉德寺)에 달아 두었다 하여 봉덕사종(奉德寺鐘), 혹은 주조 때 얽힌 전설로 인해서 「에밀레종」이라고도 부른다.
무게가18.9t이며 국보29호로 지정되었다.

- 신종(神鐘)의 주조와 변천

『삼국유사』에 따르면 경덕왕 때 선왕인 성덕대왕을 위해 대종을 만들기로 하였다. 그러나 완성을 보지 못하고 36대 혜공왕 6년(AD 770년)에 이루어 봉덕사에 봉안하였다. 봉덕사는 일찍이 효성왕이 부왕인 성덕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봉안한 것이다. 그런데 신종의 명문을 보면 완성된 해는 그 1년이 늦은 혜공왕 7년(771)이고 무게는 12만 근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종은 신라와 고려를 지나 700년 가까운 세월을 무사히 넘겨 왔으나 조선시대에 와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것은 봉덕사가 북천의 홍수로 매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신종은 허물어진 절터 우거진 잡초 속에 버려지게 되었다. 이것을 본 당시 부윤 김 담이 가져다가 영묘사 옆에 옮겨 달고는 병사를 모을 때 이 종을 울렸다는데 이때가 세조 5년(AD 1460년)의 일이다.

이것을 다시 종종때 남문 밖의 봉황대 밑에 종각을 새로 세워 옮겨 달고는 조석으로 성문을 여닫을 때와 정오에 이 종을 쳐 시각을 알렸다.

봉덕사가 매몰된 후 잡초 속에 뒹굴다가 영묘사로 옮겨 가게 될 때의 봉덕사종 모습을 매월당 김시습은 그의 시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절은 쓰러져 자갈밭에 묻히고
鐘은 풀숲에 버려졌으니
周나라의 돌북인 양
아이들은 돌로 치고 소(牛)는 뿔을 가네.」

봉덕사와 함께 영영 사라질 뻔했다가 그 뒤 절터에 방치되어 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무사히 보존되어 왔다는 점이 신기할 지경이니 부처님의 가없는 음덕에 새삼 감사할 따름이다.

- 신종의 모습과 그 신비

성덕대왕신종은 한 마디로 말해서 신라 금속공예를 대표할 만하다. 그것은 주조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처리는 물론이요. 신비로운 음향과 우아한 형태 등에서 도저히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여겨지지가 않는다. 전능한 신의 어떤 힘을 느끼게 되므로 해서 예부터 신종으로 불리워진 것이리라.

전세계 불교국을 통틀어 현존하는 종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묘한 소리를 내는 이 종은 구경이 2.27m, 높이 3.75m, 둘레 7m, 무게는 12만 근이라고 옛 기록에도 등장한다.

천수백 년의 기나 긴 세월,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면서도 이렇게 우리들 앞에 엄연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신종만이 갖는 불가사의한 어떤 의미의 보살핌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종에 새겨진 글에「신기(神器)가 이룩되니, 그 모습은 산과 같이 우뚝하고 그 소리는 용의 읊조림 같더라. 위로는 지상의 끝에 다하고 밑으로는 끝없는 땅 밑까지 스며들지니, 이 종을 보는 자는 신기함을 느끼게 할 것이요. 소리를 듣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신종의 모양은 원추형인데 종의 높이 약 1/4에 해당되는 어깨부분과 넓은 동체부분과 구연부의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어깨부분에는 당초문의 견대가 있고 그 밑에 4곽이 있다. 그 안에는 연화로 된 유형문이 한 곽 안에 9개씩 양각되어 전체 36개가 있다.
동체 부분의 공간에는 비천상, 명문, 당좌가 양각되어 있다.
비천상은 종 허리의 사방 둘레에 4체가 있으며 연화좌에 무릎을 꿇고 향로를 받들어 공손히 기도하는 모습이다. 밑에는 구름무늬가 있고 영락이 달린 천의를 휘날리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형상을 하고 있다. 몇 줄의 간결한 선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묘사한 수법은 동양화적인 기교의 극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좌는 비천상 사이에 보상화문으로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며 비천상과 비천상의 나머지 두 공간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구연부는 팔능형(八綾形)으로 되어 있는데 수려한 당초문 띠를 둘러서 우아한 느낌을 더해준다.
종의 윗부분에는 종을 다는 종뉴(鐘紐)가 있는데 포뢰(逋牢)라는 동물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 중국 『한서』의 저자 반고가 쓴 서도부 주기 설명에 의하면 이러하다. "포뢰는 해변에 있는 동물로 고래를 보면 크게 겁을 먹는데 고래가 꼬리로 포뢰를 치면 큰 소리를 내면서 운다고 한다. 이래서 종소리를 크게 내고자 종 위에는 포뢰를 만들어 놓고 종을 치고, 종봉은 고래 모양으로 하게 되었다."
신종의 포뢰는 그 조각 솜씨가 너무나 뛰어나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 포뢰의 종뉴 옆에 음관이 솟아 있는데 연화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다. 종을 쳤을 때 진동된 공기가 소리를 따라 울리면서 빠져 나가도록 하는 음관이 종 위에 있는 것은 한국 종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종소리가 끊이지 않고 고요하게 오래오래 가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이 종소리의 묘한 흐느낌에서 「에밀레종」의 전설이 생겨난 것 같다. 그 전설은 이러하다.

『경덕왕께서 대종을 만들 것을 결심하고 온 백성의 성의를 함께 모으기 위해 전국의 고을마다에 시주승을 보내었다. 한 스님이 어느 집에 가서 시주를 청했더니 그 집 아낙네가 아기를 안고 말하기를 "우리 집에는 시중할래야 이 어린 것 밖에 없는 걸!" 하고 희롱 삼아 말하는 것이었다.
미구에 모든 신라인의 정성을 모은 보시로 종은 주조에 착수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몇 번 되풀이 했지만 결과는 늘 마찬가지고 혜공왕이 보위를 이었다. 그런데도 종은 여전히 이루지를 못한 채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그러다 일관이 점을 쳐서 아뢰기를 "이것은 부정을 탄 탓이니 부정을 씻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는 것이었다.
여러 길로 묻고 추궁한 결과 보시 때 희롱의 말을 한 그 여인 탓으로 단정지었다. 대신들은 여인의 말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는 종을 이룰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결국 어린아이는 어미의 가볍게 지나가는 한 마디 말로 인해서 끓는 쇳물 속에 희생으로

바쳐지게 되었다.
그랬더니 과연 종은 훌륭하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놀랍게도 맑고도 미묘한 여운은 서라벌 하늘에 "에밀레— 에밀레— "하는 애조 띤 소리로 울려 퍼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신종은 일명 「에밀레종」이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에밀레」라는 말은 바로 「에미일레…….」라는 원망이 담긴 뜻이라고도 한다.』
에밀레종의 전설이 생기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전설 이상의 과학적인 근거가 숨어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그것은 구리를 부드럽게 해서 묘한 음악적인 소리를 내게 하려면 다량의 인을 화합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인이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인체가 희생되었으리라는 생각은 쉽게 떠올릴 수 있다. 희생이라기보다 성스러운 큰 일을 위해 기꺼이 그 몸을 바쳤으리라.
아득한 옛날에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을 구명해 낸 신라인의 슬기에 새삼 감탄하면서 인명을 바쳐서 이루어진 신종이라는데 대해 합장사배하며 삼가 그 소리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 명문(銘文)

신종의 허리부분인 비천상 사이의 두 곳에 새겨진 명문은 1,000자가 넘는 장문의 문장이다. 이 글은 서체가 유려하고 사료로서의 가치도 높다. 신라금석문 중의 백미라 일컬을 만하다.
신종의 글을 지은 이는 김필해(金弼奚 : 『동국여지승람』과 『금석총람《金石總覽》』은 여기 따랐으나 『삼국유사』는 김필오《金弼奧》라 했다.) 이고 글씨를 쓴 이는 서(序)에 김부원, 사(祠)에 홍 단(洪端)이다. 명문은 「서」와 「사」 그리고, 주종에 관여한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 적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서(序)에서는 신종의 유래와 성덕대왕의 성스러운 덕은 찬미하고 신종 주조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즉 성덕대왕의 덕은 신하와 같이 뛰어났으며 그 이름은 일월과 같이 높았다. 아들 경덕대왕이 선왕에 대한 추모의 정이 간절하며 구리 12만 근으로 큰 종 1구를 주조하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자 혜공왕이 그 뜻을 받들어 완성하니 대연년(大淵年 : 신해년《辛亥年》) 대려월(大呂月:12월)의 일이라 하였다.
사(祠)에서는 신라의 국토와 왕업을 찬미하고 주종의 과정과 신종의 신비함을 사언운시로 읊었는데 만고에 빛나는 명문은 신종과 더불어 신라문화의 자랑이라 할 것이다.

- 핀의 과학

과학자들은 궁금하여 X-ray같은 비파괴 검사 장비를 가져와 검사를 해 보았다. 비파괴 검사 장비에 비친 핀의 모양은 속이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보였는데 성덕대왕신종 고리의 핀은 쇠를 한 번에 봉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얇은 철판을 돌돌 말면서 두드려 만들었기 때문에 가늘지만 무거운 무게도 견딜 수 있다고 한다.

- 종소리와 맥놀이현상

성덕대왕신종의 종소리는 세계 어떤 종도 따라올 수 없는 종소리라고한다. 웅장했다가

애달팠다가 잔잔하기도 하다. 한 번의 타종으로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것은 맥놀이 현상 때문인데 이 현상은 두 개 이상의 소리가 서로 간섭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같은 파장을 가진 두 개의 소리는 소리만 두 배로 커지지만 다른 파장을 가진 두 개의 소리는 완전히 다른 파장을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성덕대왕신종은 종교적인 의의는 불문하고라도 예술적으로나 공예기술 문제에 있어서나 또는 한문학 연구에 있어서 신라 사회를 비추는 사료로서의 가치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다.

7) 분황사, 황룡사

▼ 분황사



분황사는 전불시대 칠처가람 중의 하나로 선덕여왕 3년(634)에 건립되었다.

분황사의 창건 목적이 여왕이라는 성(姓)의 편견을 뛰어넘고 백제, 고구려로 부터의 잦은 침공위기를 부처님 힘을 빌어 극복하고자 한 점으로 미루어 호국 사찰의 성격을 지닌 사찰이었다. 창건 10년 뒤인 643년 당에서 돌아온 자장법사가 이곳에 머물렀고 특히 원효는 분황사에 머물면서 "화엄경소" "금광명경소" 등의 수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의 교학은 이 절을 중심으로 하여 널리 펴게 됨에 따라 분황사는 법성종의 근본 도량이 되었다. 원효가 죽은 뒤 설총은 유해(遺骸)로 소상(塑像)을 만들어서 이 절에 안치하고 죽을 때 까지 공경하고 사모하는 뜻을 다하였는데 언젠가 설총이 옆에서 절을 하자 원효의 소상이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고 전한다. 그밖에도 분황사에는 솔거가 그린 관음 보살상이 있었고 좌전 북쪽 벽에 있었던 천수대비 그림은 영험이 있기로 유명했다. 경덕왕 14년(755)에는 약사여래입상을 만들어서 이 절에 봉안 하였는데 그 무게는 30만 6700근이었고 만든 사람은 본피부의 강고내말(强古乃末)이었다.

국보 제30호인 분황사 모전 석탑(芬皇寺 模塼石塔,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석탑)은 634년 분황사 창건과 동시에 건립되었으며 기단의 한 변이 약13m, 높이 1.06m의 막돌로 쌓은 석축 단층기단이다. 기단위의 네 모퉁이에는 화강암으로 조각한 사자를 배치하였다. 탑신 4면에는 입구가 개방되는 감실을 배치하고 입구 좌우에는 그의 원각에 가까운 인왕상을 배치하였으며 두 짝의 돌문을 여닫게 하였다. 지금 감실 안에 불상이 안치되어 있으나 근래에 만든 것이다. 원래 9층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3층만이 남아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구들이 이탑을 반쯤 헐었다고 한다. 그 뒤 절의 승려들이 탑을 다시 개축하려다가 또 허물어뜨렸다고 한다. 1915년 일본인들이 해체 수리하여 복원하였는데 이때 2층과 3층 사이에 장치된 석함 속에서 사리 장엄구가 발견되었다. 각종 옥류와 패류, 금, 은제의 바늘과 침통, 가위 등과 함께 숭녕통보(崇寧通寶), 상평오수(常平五銖)등이 나왔다. 이는 고려 숙종 내지 예종 년간에 탑을 크게 수리 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유물이다.

1998년 분황사의 보광전을 수리할 때 천정에서 중창문(1680년)과 상량기(1616년) 등이 발견되었다. 여기 적힌 내용에 따라 분황사가 정유재란을 겪으며 불탄 뒤에 다시 중창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약사여래입상



현재 보광전 안에 모셔진 약사여래입상도 이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왼손에 들고 있는 약합의 뚜껑에는 "건륭(乾隆)39년 을미(1775년 영조51년)에 새로 금칠을 하였다"는 붉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이 밖에도 석등, 장대석, 초석 등 많은 석재들이 남아있으며 발굴 조사는 3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당시 조사에서 금동보살입상과 신라, 고려시대 와당 등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분황사의 가람배치가 1탑(一塔) 3금당(三金堂) 형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품(品)자형 가람배치로 이는 신라문화권에서는 처음 밝혀진 것이다. 옛 고구려 지역에서 밝혀진 품자 모양 가람배치는 3금당의 정면이 모두 탑을 향하고 있는 반면에 분황사는 탑을 중앙 법당 앞쪽에 두고 3개의 금당이 모두 남향하고 있는 것이 고구려와 다른 신라적인 특색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 가람 배치는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 1탑(一塔) 3금당(三金堂)에서 1탑(一塔) 1금당(一金堂)으로 변하는데 중앙 법당은 창건 이후 같은 자리에서 확대 또는 축소되면서 방향도 남향에서 서향으로 바뀌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분황사의 천수대비가 눈먼 아이의 눈을 뜨게하다.-

경덕왕 때 한기리에 사는 희명이라는 여인의 아이가 태어나서 다섯 살이 되던 때 갑자기 눈이 멀었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분황사로 가서 왼쪽 전각 북쪽 벽에 그려진 천수대비 앞에서 아이를 시켜 노래를 부르면서 빌게 했더니 마침내 눈을 뜨게 되었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합장하여 천수관음전에 비옵나이다.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 중에서 손 하나를 놓아 눈 하나를 덜어내어 두 눈 다 먼 나에게 하나쯤은 슬그머니 주셔서 꽂아주소서.
아아!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천수대비야말로 자비심이 큰 부처가 될 것이옵니다."
쉽게 해석한 내용이다.

두 눈이 먼 딸아이에게 두 눈을 달라하지 않고 '하나만 슬그머니 꽂아주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하게 했더니 딸아이의 눈이 떠졌다고 한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 진다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 양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하는 대목이다.

- 천수대비

천수천안(千手千眼) 관세음으로 6관음 중 하나이다. 온몸이 황금색이고 천수상은 두 손 두 눈 외에 양 쪽에 각각 20개의 손이 있으며 손바닥 마다 하나의 눈이 있다. 40개의 손은 한 손마다 각기 25유계가 배치되어 천수(40x25)가 되며 눈도 천안이 된다.

- 화쟁국사비



고려시대에는 한문준이 지은 원효의 화쟁 국사비가 건립되었다. 고려숙종은 1101년 원효와 의상이 동방의 성인 임에도 불구하고 비기와 시호가 없어 그 덕이 크게 드러나지 않음을 애석히 여겨 원효에게 대성화쟁국사(大聖和)라는 시호와 함께 유사로 하여금 연고지에 비석을 세우게 한 것이다. 그 뒤 몽고의 침입과 임진왜란으로 이 절은 크게 손상을 입었으며 그 뒤 자세한 역사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화쟁국사비는 현재 대좌만 남아있는데 추사 김정희가 원효스님의 비석임을 확인하고 "차신라화쟁국사지비적(此新羅和諍國師之碑蹟)"이라고 새긴 글씨가 있다.

- 삼룡변어정



탑 북쪽에 있는 석정(石井)은 삼룡변어정(三龍變魚井)이라고 불리는 신라시대의 우물로 현존하는 것으로서 가장 정교하다. 우물 틀의 외부는 8각이고 내부는 원형인데 이것은 불교의 8정도(八正道)와 원융(圓融)의 진리(眞理)를 뜻한다.

분황사 우물에 호국용이 살고 있었다는 설화

『38대 원성왕 11년(795) 당나라 사신이 한 달간 머물다 돌아 간지 하루 만에 두 여자가 아뢰기를 "저희들은 동지, 청지(동천사의 샘)에 사는 두 용의 아내입니다. 당나라 사신이 하서국 사람 둘을 데려와 저희 남편과 분황사 우물에 있는 세 마리 용에 술법을 써서 작은 물고기로 변하게 하여 통에 넣어 돌아갔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시어 저희 남편들인 호국용을 여기에 머무르게 하여주소서!." 하고 청하였다. 왕이 놀라고 분해서 빨리 사신의 뒤를 쫓게 하여 하양관에 이르러 그들을 만났다. 왕은 친히 연회를 마련하여 그들을 접대하면서 이르기를 "너희들이 그 세 마리 용을 놓아 주지 않으면 극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했다.
하서인은 이처럼 다 알고 말하는데 어찌 할 수 없어서 용이 화하여 된 세 마리의 고기를 바쳤다. 왕이 이것을 본디 모습대로 하도록 하고 용들이 살던 각각의 우물에 놓아주니 물속에서 한 길이나 용솟음 치고 나서 기쁘게 가버렸다.』
당나라 사신 일행들은 왕의 명석함에 감복했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호국용은 되돌아 왔

으나 신라의 국세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탐구활동

1 분황사는 누가 만든 사찰일까?
2 분황사 탑을 모전석탑이라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3 가람배치에 대해 알아보자.

- 황룡사터



황룡사는 신라는 물론이고 삼국에서도 제일가는 거찰(巨刹)이었다. 안압지에서 분황사로 가는 월성의 동쪽 들판에 지금은 초석만 남아 있으나 거대한 초석은 이 절의 규모가 얼마나 웅대했던가를 말해 주고 있다.
최근의 발굴조사의 결과 그 전모가 거의 파악되었으며 한 개의 탑, 중문, 동문, 서문, 금당, 강당, 회랑 등의 원위치를 찾음으로써 삼국시대 사찰의 전형적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황룡사에 대한 신라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독실했는가를 이곳이 전불시대의 가람 터로서 소위 전불칠가람 (흥륜사, 영흥사, 황복사, 분황사, 영묘사, 사천왕사, 담엄사) 중의 하나였다고 믿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석가모니불 이전의 가섭불의 연좌석이 있었다 한다. 이것은 온 불교세계 중심지 중의 하나가 황룡사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7가람 터에 황룡사를 다시 세우게 된 것은 24대 진흥왕 14년(AD 553)이며, 17년의 세월에 소요된 진흥왕 30년(AD 569)에 1차공사가 완성되었다. 그후에도 계속 공사를 추진시켜 본존불인 장육불상이 완성된 것은 같은 왕 35년(AD 574), 금당이 완성된 것은 진평왕 6년 (AD 584)이며, 유명한 구층탑이 이루어진 때가 선덕여왕 14년(AD 645)이었으니 무려 93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유서 깊은 황룡사가 고려시대에 이르러 몽고군에 의해 불타게 된 것은 너무나 애석한 일이다.(고종 25년, AD 1238년 윤4월)

원래는 이곳에다 대궐을 지으려고 땅을 팠는데 황룡이 나타났으므로 고쳐서 절을 짓기로 하고 이름을 황룡사라 했다고 한다. 용은 영물이며 부처의 힘으로 길들이면 능히 신력을 발휘하여 호국의 대임을 수행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황룡사는 창건부터 신라 사람들의 호국의 염원을 담고 출발한 사찰이었다.

황룡사는 신라삼보가운데 장육존불과 구층탑의 2보가 있었고 솔거의 금당벽화와 50만근에 가까운 거종이 여기에 있었으니 얼마나 중요한 사찰이었겠는가.

- 원효대사(元曉大師)와 설총(薛聰)

원효대사의 속성은 설씨이며 조부는 잉피공, 부친은 내말 벼슬에 올라있는 담날이다. 내말이란 내마와 같은 직급으로 신라 17관등 중에 제 11위에 해당된다.
원효대사는 압량군 남쪽의 불지촌(지금의 경산시 자인면) 북쪽에 있는 밤나뭇골의 사라수 아래서 태어났다.

대사의 집은 밤나뭇골 서남쪽에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만삭이 되었을 때 남편과 함께 이웃 마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골짜기의 밤나무 밑을 지나는데 문득 태기가 있었다. 너무 급해서 집에까지 갈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남편의 옷을 벗어 나무에 걸어 가린 다음 그 안에서 해산을 했다. 그로 인해서 이 나무를 '사리수'라 했다고 하며, 나무의 열매가 보통 밤나무와는 달랐으므로 사라율이라고 불렀다.

그 후에 나무 곁에 절을 세우고 '사라사'라 하였다.

이 절의 주지는 절에 있는 모든 중들에게 하룻저녁 끼니로 밤 두 개씩을 주었는데 중들이 두 개는 너무 적다고 관가에 호소했다. 관가에서 이상하게 여겨 그 밤을 조사해 보니 밤 한 개가 바리때 한 그릇에 가득 차는 것이었다. 관가에서는 오히려 두 개 주는 것은 너무 과하니 한 개만 주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니 얼마나 큰 밤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다.

대사의 어머니가 그를 잉태할 때 꿈에 유성이 품속으로 들어 왔다고 하며 해산할 때는 오색 구름이 땅을 덮었다고 한다. 대사가 탄생한 것은 진평왕 39년(AD 617)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스승 없이 자력으로 학문에 몰두했다.
대사가 사방을 다니며 수도한 사실과 불교를 세상에 널리 편 업적 그리고 불경 연구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공로 등은 당나라와 일본에까지도 널리 알려졌으며 그 나라의 역사에서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원효대사가 의상과 함께 당으로 유학길을 가다가 해골 바가지의 물을 마시고 크게 깨치어 되돌아 온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다.

대사는 어느 날 일반의 상식적인 행동을 벗어나 미친 사람처럼 거리에서 춤추며 노래를 불렀다.

誰許沒柯斧(수허몰가부) 누가 나에게 자루 없는 도끼를 주겠는가?
我斫支天柱(아작지천주) 내가 하늘을 받칠 기둥을 찍어내리라.

이 노래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했다. 자루 없는 도끼는 남편 없는 여성을 뜻하며, 하늘을 받칠 기둥을 찍는다는 말은 나라의 기둥이 될 큰 인재를 낳겠다는 뜻이다. 아무도 몰랐던 이 뜻을 태종께서는 당장에 알았다.
"스님께서 아마 귀부인을 얻어 훌륭한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구나. 나라에 큰 인재가 태어난다면 그보다 더 이로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때 요석궁에는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는 요석공주가 있었다.
태종은 사자를 시켜 원효대사를 찾아 요석궁으로 맞아들이게 하였다. 임금님의 명을 받은 사자는 남산에서 내려와 마침 문천교를 지나 이쪽으로 오고 있는 대사를 만났다.

대사는 일부러 물에 빠져 옷을 적시었다. 곧 대사를 요석궁으로 안내하여 옷을 벗어 말

리게 하니 이로부터 대사는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대사가 요석궁에 머무른 후 얼마 안돼서 요석공주가 아기를 배었는데 이 아기가 설총이다. 그는 총명함이 남보다 뛰어났고 자라서는 경서와 역사를 연구하매 통달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우리말로써 중국을 비롯한 외이(중국 주변의 국가)의 학문과 풍속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육경과 여러 학문을 훈해하여 경학을 공부하는 이들이 이것을 이어 받아 갔다.

그는 신라 10현 중의 한 분으로 신라 말의 고운 최치원과 함께 문묘에 향사되었다.

원효대사의 파계는 대현 설총을 낳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대사는 춘추 70으로 신문왕 6년 (AD 686) 혈사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자 아들 설총은 부친의 유해를 부수어 소상으로 진용을 만들어 분황사에 모시고 공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다하였다.

설총이 부친의 소상에 예불하니 소상이 문득 고개를 들어 돌아 보았는데 돌아가 본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래 전해졌다고 한다.

대사가 거주하던 혈사 옆에 설총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부친의 모습을 그리면서 살았다. 설총의 효성이 이렇게 진실하였다.

- 솔거의 벽화

황룡사 금당 벽에는 솔거가 그린 노송벽화가 있었다. 그 소나무 그림은 너무나도 잘 그려졌기 때문에 새들이 날아와 앉으려다가는 벽에 부딪혀 떨어지기가 일쑤였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색채가 낡아서 다른 사람이 채색을 새로 했더니 다시는 새들이 날아오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 9층탑(九層塔, 삼국유사)



신라 3보의 하나인 황룡사 구층탑은 목조탑이다. 자장율사가 당나라 유학 중에 신인의 계시를 받았는데 귀국 후 9층의 층마다 호국의 염원을 담아 조영한 영탑이 바로 이 탑이다. 9층의 각 층마다에 대해 조복되기를 기원한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제 1층은 일본, 제2층은 중화, 제3층은 오월, 제4층은 탁라, 제5층은 응유, 제6층은 말갈, 제7층은 단국, 제8층은 여적, 제9층은 예맥이다. 여기서 제일 먼저 일본과 중국의 조복을 기원했다는 점에 비취 볼 때 당시의 국제관계에서 신라의 적국이 어느 나라였는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탑은 선덕여왕 12년(AD 643) 에 시작되어 같은 왕 14년 (AD 645)에 이루어졌으며 백제의 장인 아비지의 총지휘로 2백 명의 기술자를 동원했으며 공사의 총감독은 무열왕의 부친인 용춘이 맡았다. 탑의 크기는 철반 위의 높이가 42척, 그 밑이 183척으로 모두 225척(약 80m)이었으니 그 웅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유적의 실측에 의하면 탑지에는 한 줄 8개씩 해서 합계 62개의 거대한 초석이 있어 4면 7간이었음을 알 수 있고, 초석의 심과 심의 거리는 약 3.1m이니 따라서 탑의 한 변은 22m였다.

탑의 심초석에는 사리공이 있고 사리장치가 나왔다.(도굴로 인해 발굴 전에 분실되었던 것을 회수함.)

또 금동사리함에서 나온 금동판의 탑지에는 탑의 유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삼국유사의 기록과 부합된다. 탑은 몇 차례의 중수 끝에 7백여 년을 지내왔으나 몽고란으로 소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제 27대 선덕왕이 왕위에 오른 지 5년되는 정관 10년 병신(636)에 자장법사가 중국에 유학 가서 오대산에서 감응하여 문수보살로부터 불법을 전수받았다. 문수보살이 또 말하기를 "너희 나라 왕은 바로 인도의 크샤트리아 계층의 왕족으로서 이미 불기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인연이 있으므로 동쪽의 오랑캐나 공공의 족속과는 다르다. 그러나 산천이 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격이 거칠고 사나우며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믿어서 이따금 천신이 화를 내린다. 하지만 다문비구가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들이 매우 편안하고 모든 백성들이 평화롭다."고 하였다. 말을 마치고 사라지니 자장은 이것이 바로 보살의 화신임을 알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물러 나왔다. 그리고 이 탑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있다.

-9층탑 전설 이야기-

자장이 중국 태화지 옆을 지나는데 홀연히 신인이 나와 "어찌하여 이곳에 왔소?"라고 묻자 자장이 대답하기를 "깨달음을 구하려고 왔습니다."라 말하자 신인이 그에게 절하며 다시 묻기를 "그대의 나라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소?" 하니 자장이 말하기를 "저의 나라는 북쪽으로는 말갈에 닿아 있으며 남쪽으로는 왜나라 사람들과 접해있고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가 번갈아 국경을 침범하여 이웃나라 적들이 함부로 날뛰니 이것이 백성들의 걱정입니다."라고 답했다. 신인이 말하기를 "그대의 나라는 여자를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덕은 있으나 위엄이 없소. 그래서 이웃나라가 침략을 도모하는 것이니 속히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오."라 했다.

자장이 묻기를 "본국으로 돌아가 무엇을 해야 이익이 되겠습니까?" 하니 신인이 말하기를 "황룡사의 불법을 옹호하는 용이 나의 맏아들로 범천왕의 명령을 받고 가서 이 절을 보호하고 있소. 본국에 돌아가 절 안에 9층탑을 세우면 이웃 나라들은 항복 할 것이고 9한이 와서 조공 할 것이며 왕위가 길이 편안할 것이오. 탑을 세운 후에는 팔관회를 열고 죄인들을 용서하여 석방해 주면 외국의 적들이 침해 할 수 없을 것이요. 또 나를 위해 서울 부근 지방의 남쪽 언덕에 절 한 채를 지어 내 복을 빌면 나 역시 그 은덕에 보답하겠소."하고 말을 마치자 드디어 옥을 받들어 바치고 홀연히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정관 17년 제묘(643) 16일에 자장법사는 당나라 황제가 준 불경, 불상, 승려가 입는 옷, 비단 등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와 임금에게 탑 세울 일을 말씀 드렸다. 선덕왕이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니 신하들이 말하기를 "백제에 기술자들을 청한 후에만 비로소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라 했다. 이에 보물과 비단을 가지고 백제로 가서 기술자를 청했다. 아

비지라는 기술자가 명을 받고 와서 재목과 돌을 다듬고 벼슬이 이간인 용춘(용수라고도 한다.)이 일을 주관하여 하급 기술자 2백 명을 통솔하였다. 처음에 절의 기둥을 세우던 날 아비지는 꿈에 본국인 백제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서는 의심이 생겨 공사를 정지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대지가 진동하면서 컴컴해지는 가운데 노승 한 사람과 장사 한 사람이 금전문으로부터 나와 바로 그 기둥을 세우고 승려와 장사는 모두 사라져 없어져 버렸다. 아비지는 이를 뉘우치고 그 탑을 완성했다.


탐구활동

1 황룡사는 어느 왕을 거쳤으며 몇 년에 걸쳐 완공 되었을까?
2 구층탑을 세운 기술자는 누구이며 만든 까닭은 무엇일까?
3 목조 건물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 장육존불(丈六尊佛)



장육존불은 금당에 안치되어 있던 황룡사의 본존불로 신라 삼보 중의 하나였다. 삼국유사에는 그 주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신비화된 전설을 기록하고 있다.

황룡사가 이루어진 얼마 후의 어느 날, 큰 배 한 척이 남쪽에서 바다를 건너 와서는 하곡현 사포에 닿았다. 배 안에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만 한 통의 문서가 있었는데 거기 씌여 있기를, 인도의 아육왕이 황철 5만 7천 근과 황금 3만 푼을 모아서 불상 셋을 주조하려고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마침내 배에 실어 바다에 띄워 보내면서 “인연이 있는 나라에 가서 장육존상을 이루어 달라”고 축원한 내용이 그것이었다.

또한 한 부처님과 두 보살의 상도 모형으로 만들어 함께 실려 있었다. 나라에서는 그곳에 동축사를 세우고 이송하게 하고 드디어 장육존불을 주조했는데 진흥왕 35년(AD 574) 3월이었다.

본존불은 무게가 3만 5천 7백근이며 황금 1만 198푼이 들었고 협시 두 보살에는 철 1만 2천 근과 황금 1만 136푼이 들었다고 한다.

이상의 기록은 장육존불이 신라 삼보 중 하나답게 장관이었음을 말하는 동시에, 인도의 대부분을 통합하고 불교의 전성기를 이룬 아육왕도 장육존불을 이루지 못했음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엄두조차 내지 못한 사업을 우리는 이루었다는 긍지를 드러낸 뜻 깊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8)김유신 장군묘, 무열왕릉

- 김유신장군



이곳은 김유신장군묘이다. 김유신은 통일하기 전부터 여러 왕들을 모시며 통일의 기반을 닦고 통일 후에도 죽는 순간까지 신라를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며 얼마 전 방영되었던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에도 이 김유신이라는 인물이 나왔다. 김유신은 선덕여왕때부터 시작해서 진덕여왕, 태종무열왕, 문무왕에 이르기까지 4명의 왕을 모시며 통일에 큰 업적을 세웠다. 그래서 삼국통일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 김유신장군이다.

김유신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신라의 삼국통일에 있어 큰 공을 세운 장군이자 신라의 영웅이었다. 김유신은 신라인이 아닌 가야계 왕족이었으며 김유신의 증조할아버지는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해왕이었고 할아버지 김무력은 가야의 마지막 왕자였다. 아버지 서현장군이며 어머니는 만명부인이다. 하지만 법흥왕 때 금관가야(532)가 신라에 편입되면서 가야 왕족들도 신라의 귀족으로 편입이 되었다. 비록 귀족신분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엄격한 골품제 안에서 가야계 귀족들은 많은 차별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골품제란 신라의 독특한 신분제도로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왕족일 때 그 사이에서 태어나면 성골,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쪽만 왕족일 경우에 그 사이에서 태어나면 진골. 그리고 이하 두품제가 있다. 그래서 진골이라고 하더라도 성골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았고, 김유신 역시 진골이긴 했지만 가야계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았었다고 한다.

김유신은 이러한 어려운 주변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을 수련하고 단련해 전장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하지만 골품제의 한계를 뛰어넘기란 무척 힘든 일이다. 그러던 중, 후에 무열왕이 되는 김춘추를 만나게 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게 된다. 김유신은 당시 진골출신 김춘추와 서로 의기투합해 신라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워 신라인들의 많은 존경을 받게 되었다.

그 후로도 항상 신라의 최전방에 서서 신라군을 이끌며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김유신은 당시 신라에 있던 최고관직보다 더 높은 관직에 오르기도 한다. 신라에서 가장 높은 관직은 각간이라는 관직이었는데 백제와의 황산벌 전투에서 승리해 원래는 없었던 관직인 대각간의 자리에 올랐고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는 태대각간이라는 신라의 전무후무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까지 오르게 되며 죽어서는 흥덕왕에 의해 왕으로 추존되어 흥무대왕이라는 칭호까지 받으며 그 후손까지 왕손으로 예우하게 되었다.

무덤 주변을 보면 방향과 시간을 나타내는 열두 마리의 동물, 12지신상이 둘러져 있다.

이러한 무덤형태는 통일신라 후 성덕왕 때부터 나타난 왕의 무덤형태이다. 김유신은 죽은 후 흥덕왕에 의해 흥무대왕으로 추존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왕릉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이라 한다. 혹은 이 무덤은 김유신의 무덤이 아니고 다른 왕의 무덤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그리고 김유신 장군묘에는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비석이 두 개 세워져있다. 여러분이 보는 쪽에서 왼쪽에 있는 비석에는 '신라 태대각간 김유신묘'라고 쓰여 있으며 이 비석은 조선시대 경주에 부임한 부윤이 세운 비석이다. 오른쪽에 있는 비석에는 '개국공순충장열흥무왕릉'이라고 쓰여 있다. 이 비석은 1934년 김유신의 후손들에 의해 만들어진 비석이며 돌에 새겨진 글씨 중 마지막 '릉'자가 비가 오거나 물이 닿으면 서서히 '묘'자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릉'과 '묘'의 차이 중 '릉'자가 붙어있는 무덤은 무열왕릉, 신문왕릉, 미추왕릉 등 왕의 무덤에만 '릉'자가 붙고, 무덤을 발굴은 했으나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 없을 때는 무덤 발굴 당시 사연이나 무덤에서 나온 유물 중 가장 대표할만한 유물의 이름을 따 뒤에 '총'이라는 글자를 붙인다. 예를 들어 하늘을 나는 말인 천마도가 나왔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천마총, 금관이 나온 곳이라 하여 금관총 등이 그 예이다. 그 외의 무덤들은 "묘"라하며 이 비석을 세울 당시에도 처음에 '묘'자로 썼다가 후에 흥무대왕으로 추존되었으므로 '릉'자를 쓰는 게 맞다고 하여 그 후손들이 '묘'라는 글씨를 덮고 그 위에 다시 '릉'을 새겼다. 그래서 이 비석에 물이 닿으면 마지막에 '릉'이라는 글씨가 '묘'라고 바뀌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 이라고 한다.

- 김유신 장군

김유신 장군은 금관가야국 김수로왕의 12세손이며 아버지는 서현, 어머니는 만명부인이다. 증조부 구해는 금관국의 마지막 왕 이였으며 신라에 나라를 바친 후 조부 무력때부터 신라를 위해 헌신하여 큰 공을 세웠다. 김유신 장군은 그의 아버지 서현이 만노군 태수로 있던 진평왕17년(기원후595) 임지인 지금의 진천에서 태어났다.

15세에 화랑이 되어 용화향도를 이끌었고 17세 때에는 단석산과 열박산에서 수도하였다. 그 후 풍운이 회오리치는 삼국 상쟁을 맞아 신라의 국운을 위 난 속에서 개척하여 드디어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장수를 뛰어넘고 재상을 능가하는 그의 업적과 공은 천추에 빛날 뿐 아니라 삼국을 한 나라로 만들어 민족생성의 터전을 닦은 위대함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있는 한 영원히 불멸이라고 할 것이다.

공은 문무왕 13년 (673) 7월 1일에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하직하였다. 예를 다하여 금산원에 장사하고 비를 세워 그 공적과 이름을 천추에 남기도록 하였다. 그 후 흥덕왕은 김유신을 추봉하여 흥무왕으로 삼았다.

- 천관녀 이야기

신라 제일의 각간 김유신(金瘦信)이 젊어서 가까이한 천관(天官)이라는 여인에 얽힌 전설이다. 김유신이 젊었을 때 한동안 친구들과 함께 술 파는 집에 드나든 일이 있었다. 유신의 어머니는 이것을 알고 매우 걱정하여 하루는 곁에 불러 앉히고 엄하게 훈계를 하였

다. 그때 유신은 비로소 미몽(迷夢)에서 깨닫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하였다. 그런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유신은 놀이를 갔다가 술에 취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타고 오던 말이 멈추어서서 고함을 지르므로 벌써 집에 도착하였는가 하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그 집은 자기의 집이 아니라 전날에 드나들었던 천관의 집이었다. 이것은 말이 전날에 다니던 집이라 길이 익은 까닭에 길가에 있는 천관의 집으로 잘못 들어갔던 것이다. 유신은 노하여 말에서 내려 허리에 찼던 칼을 빼어 말의 목을 내리쳐 죽이고 말안장도 그 마당에 내버린 채 한마디 말도 없이 그 집 문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이 광경을 본 천관은 뜻밖에 이와 같은 변을 만난지라 놀라 까무러쳤다가 얼마 후에야 정신을 차린 뒤 말없이 탄식하다가 유신을 원망하는 노래(怨歌)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노래는 지금 전하지 않는다.

- 화랑도

화랑의 제도적 설치는 《삼국사기》에 나타난 576년(진흥왕 37)의 기록으로서, 이 해에 진흥왕은 처음으로 원화(源花)를 받들게 해 남모(南毛)와 준정(俊貞)이라는 아름다운 두 여자를 뽑아 300여 명의 무리를 거느리게 했다 한다. 이들 두 여자는 질투 끝에 준정이 남모를 살해하였지만 《삼국사기》에는 이보다 앞서 화랑 사다함(斯多含)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 화랑도의 기원을 훨씬 앞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따라서 화랑도의 기원은 학자에 따라 두레, 혹은 조의선인(皁衣仙人) 등을 내세우고 있어 아직 정설이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화랑도가 우리 고대 사회에 있어 독특한 형태로 발생한 것만은 사실이다.

삼국 전체에 행해 오던 우리 고대 사회의 독특한 기풍, 혹은 종교가 특히 신라에 와서 화랑도로 정립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신라의 경우는 씨족 제도가 오래 계속되었으므로 상호 부조의 협동정신이 강했고, 씨족원 사이에 일족(一族)의 명예를 중히 여겨 일신(一身)의 희생을 아끼지 않는 기풍이 있었으며, 고대 그리스와 같이 아름다운 육체와 아름다운 정신을 숭상하는 국민적 풍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구려·백제에 비해 후진 국가였던 신라에서는 일찍부터 국가 민족의 수호를 이념으로 하여 궐기한 청소년들이 화랑도, 혹은 적당한 명칭의 단체를 자발적으로 조직해 애국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결과 사다함과 같이 뛰어난 인재들이 출현해 국가와 민족에 봉사하게 됨으로써 국가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으로 국가 직속 체제하에 단합시킨 것이라 보며 남모·준정의 불상사가 서두에서부터 발생했어도, 다만 이를 운영의 결함으로 돌리고, 계속해서 화랑도 양성에 몰두했을 것이다.

탐구활동

1 무덤을 둘러 보호하는 돌을 무엇이라 할까?
2 무덤주위의 호석에는 무엇이 조각되어 있을까?
3 화랑출신의 이름을 아는대로 말해보자.
4 화랑의 세속오계는 누가, 왜 만들었고 어떤 것이 있을까?

- 태종무열왕릉



여기는 태종무열왕릉이다.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 덕분에 우리에게는 무열왕보다도 김춘추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고 또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왕으로도 알려져 있다. 진흥왕, 문무왕 등 다들 시호만 쓰이는데 무열왕은 앞에 태종이라는 묘호가 같이 붙어있다. 시호는 왕이 죽고 나면 그 공덕을 찬양하기 위해 짓는 것인데 김춘추는 무열이라는 시호와 함께 태종이라는 묘호도 같이 쓰였다. 삼국을 통일하는데 기반을 마련했다는 큰 공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며 신라시대에서 묘호가 쓰인 유일한 왕으로 그만큼 신라인들의 많은 존경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삼국을 통일하는데 있어 다른 민족인 당나라를 끌어들여 같은 민족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고 하여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삼국은 다른 역사와 정치체계를 가진 독립 국가로 고구려, 백제로부터 신라가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고구려와 백제의 침략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신라는 외교라는 수단을 이용해 침략을 막아냈고 문무왕은 8년 동안의 접전 끝에 당나라를 모두 몰아내고 실질적인 자주 독립을 이루어 냈다.



무열왕릉으로 제일 먼저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은 거북이 모양의 비석받침대와 비석의 덮개돌이다. 국보(25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 비석받침대와 덮개돌은 이 무덤이 무열왕의 무덤임을 말해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경주에는 많은 무덤이 있지만 실제로 누구의 무덤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무덤은 드물다. 다만 역사적인 사료나 설화를 통해서 추측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열왕릉은 바로 이 비석 때문에 무덤의 주인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비석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귀부와 이수만 남아있다. 귀부는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는 비석받침대, 이수는 몸돌위에 있던 장식용 덮개돌을 의미한다. 능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귀부인 거북이가 목을 높이 쳐들고 발을 기운차

게 뻗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 등에는 큼지막한 육각형을 새긴 후, 등 중앙에 몸돌을 꽂을 수 있는 네모난 홈이 있고 그 주위로 연꽃조각들이 장식되어 있다. 그 위에 올려진 이수는 6마리의 용이 좌우 각각 세 마리씩 서로 엉켜 생동감 있게 조각되어 있으며 그 정면에는 '태종무열대왕지비'라는 글자가 좌우대칭으로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당시 명필가로 유명했던 무열왕의 둘째아들인 김인문이 아버지를 위해 직접 새긴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섬세하게 돌에 조각을 할 수 있었던 건 당시 신라의 석조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귀부와 이수는 당시 신라조각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국보로도 지정되어 있다.

맨 앞에 보이는 무덤이 무열왕이 묻혀있는 무덤이다. 아직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시기의 다른 무덤들처럼 이 무덤도 굴식돌방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춘추는 50세에 왕위에 올랐고 진골출신으로는 최초로 왕위에 오른 왕으로 유명하다. 진골출신에다가 늦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니 왕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을지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가 있겠다. 하지만 사실 그는 성골에 가까운 진골이다.

그의 아버지인 용춘은 신라 25대왕인 진지왕의 아들로 원래는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성골이다. 하지만 진지왕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왕위에서 폐위가 되었고, 그 집안도 성골이 아닌 진골로 낮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진지왕의 다음 왕도 용춘이 아닌 진지왕의 형인 동륜태자의 아들 백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가 신라의 26대 왕이자 선덕여왕의 아버지인 진평왕이다. 그렇게 용춘의 집안은 점차 왕위 계승과는 멀어지게 되었고, 그 후 용춘과 천명공주가 결혼을 하면서 춘추가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니 그의 혈통은 오히려 성골인 셈이다. 하지만 이미 진골로 강등당한 상황에서 춘추와 왕위는 점점 멀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김춘추는 조용히 자신의 입지를 굳히며 때를 기다려 가야계 귀족인 김유신과 손을 잡고 점차 세력을 키워갔다. 특히 선덕여왕 때 일어났던 비담의 난을 김유신과 함께 진압하면서 그 공을 인정받게 되었고 그렇게 조금씩 자신의 입지를 키워가게 된다. 그 후로도 춘추는 지혜로운 머리와 뛰어난 언변으로 목숨을 걸고 고구려와 당나라를 찾아가 외교를 펼쳤고, 김유신은 전장의 최전선에서 신라군을 이끌었으며. 이렇게 의기투합한 두 사람의 노력으로 신라는 점차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 654년, 드디어 김춘추는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렇게 당나라와 외교로 연합을 맺은 김춘추는 백제를 멸망시킨 후 고구려와의 전투를 준비하는 도중에 통일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후에 아들인 문무왕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내어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였다.

-꿈을 사 왕비가 된 문희-

김춘추와 김유신은 정치적인 뜻을 같이하는 동지이기도 했고, 친구이기도 했으며, 둘은 9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이 잘 맞아 서로를 존중하며 친구처럼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유신은 김춘추를 자신의 가족으로 만들 계획을 세운다. 바로 자신의 누이동생과 혼인을 시키는 것이었다. 김유신은 김춘추와의 우정을 두텁게 유지하는 한편 어떻게 하면 누이동생과 결합시킬까 궁리에 골몰하였다. 왜냐하면 신분의 차이가 있는 두 집안의 혼인인지라 예사 방법으로서는 혼사가 이루어지지 않

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럴 무렵의 어느날 밤 보희는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다. 그녀가 서악(일명: 선도산)에 올라가 오줌을 누었더니 온 서라벌 장안이 오줌에 잠기고 마는 것이었다. 잠을 깬 보희가 생각해보니 요망스럽기 짝이 없는 꿈이었다. 신라의 영산 선도산이 아닌가. 거기 올라가 아녀자가 오줌을 누었고 더군다나 그 오줌에 온 서울 장안이 잠겨버렸으니 이 무슨 망칙한 꿈이란 말이냐? 이런 고약한 꿈은 누구에겐가 어서 털어 버려야 한다더라. 그래서 보희는 아우 문희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다. 문희가 듣고보니 그것은 정말 대단한 꿈이었다. 용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라 문희는 생각했다. 문희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시치미를 떼면서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그렇게 기분이 언짢은 꿈이라면 그 꿈을 내게 팔아요"
"좋아 그럼 무엇으로 값을 칠래?"
"내가 아끼는 비단치마를 드리겠어요"
이렇게 해서 당장에 흥정은 이루어졌다. 문희는 옷깃을 벌리고 꿈을 받아들이는 시늉을 하고 언니 보희는 "지난밤의 꿈을 비단 치마를 값으로 해서 문희한테 판다."고 말하였다. 아끼는 비단치마를 꿈 값으로 줘버린 문희는 역시 일국의 국모가 되기에 넉넉한 큰 됨됨이를 가졌다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열흘이 지났다. 이날이 정월 오기일 이었는데 유신은 춘추를 청해 자기집 앞에서 공치기 놀이를 하였다. 당시 신라에서는 공치기 놀이를 일명 농주희라고 하여 귀족 사이에 성행되고 있었다. 한창 놀이에 열중하다가 유신은 일부러 춘추의 옷을 밟아 옷고름을 떼어버렸다.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집으로 드시어 고치기로 합시다."
유신은 정중히 춘추를 방 안으로 안내한 후 보희에게 떨어진 옷을 기워 드리도록 부탁하였다. 그러나 보희는
"그런 사소한 일로 아녀자가 어찌 귀공자를 함부로 가까이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굳이 사양했다.
이에 유신은 문희에게 다시 시켰다. 문희는 서슴없이 나아가서 헤어진 옷을 기워 드렸다. 영민한 춘추는 유신의 뜻을 알아차렸고 이후부터 문희와 가깝게 되었다. 춘추는 자주 유신의 집으로 내왕하며 사랑을 불태웠다.
얼마 안가 유신은 동생 문희가 임신한 것을 알았다. 가슴에 건곤일척의 비책을 간직한 유신은 문희를 크게 꾸짖었다.
"너는 부모의 허락도 없이 아이를 배었으니 어찌된 일이냐?"
그리고는 온 나라 안에 소문을 퍼트려 그 누이를 불태워 죽인다고 소란을 떨었다.
마침 선덕여왕이 남산 쪽으로 행차하려 할 때 유신은 마당 가운데에 나무를 가득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그의 집이 문천가에 있는 재매택이어서 필경 그 옆을 지나가는 왕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검은 연기가 크게 피어오르고 모여든 구경꾼들에 의해 일대 소동이 벌어질 때였다. 왕이 연기를 보고 좌우에 물었다.
"저게 무슨 연기냐?"
"김유신이 자기 누이 동생을 불태워 죽인다고 하는데 그 연기인가 하옵니다"

왕을 모시고 가던 신하들이 걱정스레 아뢰었다. 왕은 깜짝 놀랐다.
“그게 무슨 소리인고?”
왕이 재차 물었다. 신하들은 그제야 김유신의 누이가 남편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하였기 때문임을 아뢰었다.
“무엇이라고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모를 리가 없지 않는가?”
이때 왕을 모시고 가던 김춘추의 얼굴이 몹시 창백해졌다. 왕은 곧 사태를 짐작하고 분부하였다.
“분명히 그대의 소행이렸다. 빨리가서 그녀를 구하도록 하라”
왕의 명령을 받은 춘추는 급히 말을 달려 왕명을 정하고 문희를 구출하였다.

마침내 김유신의 계획은 그의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춘추와 문희는 왕의 특명으로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제약을 극복하고 드디어 공공연하게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용꿈을 산 문희는 드디어 이렇게 하여 태종 무열왕의 왕비 문명왕후가 되는 첫 발을 내디디게 된다.

-귀토지설-

이 외에도 김유신과 김춘추의 사이를 보여주는 일화가 많이 있다. 백제의 침략으로 김춘추의 첫째 딸인 고타소가 죽자 김춘추는 복수를 하기 위해 고구려에 군사를 요청하러 가게 된다. 하지만 고구려도 적국이다 보니 목숨을 걸고 가야한다. 그런 김춘추에게 김유신은 보름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그 즉시 군사를 모아 고구려로 쳐들어가겠다고 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돼 주었다. 김유신의 말에 감동한 무열왕은 피로 혈서를 써 의형제를 맺고 고구려로 떠나게 된다. 도착한 김춘추에게 고구려왕은 군사를 보내주기는커녕 예전 고구려 땅이었던 곳을 다시 돌려달라며 김춘추를 옥에 가두고 협박했다. 옥에 갇힌 김춘추는 자신이 죽는 것 보다 보름이 지나면 김유신이 정말 자신을 위해 군사를 끌고 고구려로 쳐들어올 텐데 큰 전쟁이 될까봐 그게 더 걱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구려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선도해라는 신하가 김춘추에게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별주부전이라고 불리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이다.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토끼의 간이 필요하다는 말에 육지와 바다를 모두 오갈 수 있는 거북이를 시켜 토끼의 간을 구해오라고 한다. 육지로 올라온 거북이는 토끼를 만나 온갖 감언이설로 토끼를 꼬여 용궁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 같이 용궁으로 들어간 토끼는 그제야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한 가지 꾀를 낸다. 간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깨끗이 씻어 바위 밑에 숨겨놓았는데 자신이 가야지만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말에 속은 거북이와 용궁식구들은 토끼를 다시 육지로 내보내게 되었고 토끼는 무사히 살아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김춘추는 바로 토끼처럼 행동을 했다. 고구려왕에게 자신이 신라로 돌아가 고구려왕이 말했던 그 영토를 돌려주도록 자신의 왕을 설득 시키겠다고 약속을 한다. 그 말을 들은 고구려왕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김춘추를 풀어주게 되자 김춘추는 무사히 신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김유신도 군사를 끌고 고구려로 갈 필요가 없게 되어 큰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

탐구활동

1 이 왕릉이 무열왕릉 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

2 이 왕릉은 봉분이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나?

9) 포석정

- 포석정



경주의 중심가에서 국도 제 35호(경주-언양간)를 따라 남쪽으로 가면 남산의 서록에 이르는데 이 일대에는 오릉을 비롯하여 천관사지, 나정, 일성왕릉, 포석정지, 지마왕릉, 배리삼존석불, 삼릉, 경애왕릉 등 신라 때의 많은 유적과 유물이 있다.

그 중에서 포석정지는 행정구역은 경주시 배동 454-3번지이고 지정 면적은 5.234m2이며 사적 제 1호로 지정되어있다.

포석정지는 보통 신라 헌강왕(875-886)이 산신으로부터 춤을 배웠으며 경애왕(924-927)이 비빈 종척들과 유흥에 빠졌다가 후백제 견훤의 침입으로 최후를 마쳤다는 애사가 전해오며 유상곡수연을 하던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유상곡수연은 중국에서 기원하였으며 지금도 많은 유적들이 전해져오고 있다.

일본에도 이러한 유적이 있고 곡수연을 재현하는 곳이 있다.

경주 포석정 유구에 대하여는 실측조사가 있었으며 1998년의 시굴조사에서는 건물지와 폐기와 무지가 발견되었는데 특히 포석명 기와가 출토되어 학계의 관심사가 되었다.

최근에 진행된 포석정 유배거의 수리역학적인 연구 및 포석정은 유상곡수의 시연 이외에도 신라 시조와 충렬사를 받드는 제례의식을 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 중국의 유배거 유래

진서에 의하면 기원전 1천년경 주나라 무왕의 동생 주공이 음력3월 상사일에 동류하는 물에서 멱을 감고 재액을 떨어버리는 불계를 하고 시연을 베풀어 유상곡수의 시를 남겼다.

동진나라 목재 영화 9년(353) 3월 3일 후세에 서성으로 불려지는 왕희지가 산음의 난정에서 시연을 베풀었는데 이 모임에 초대된 문인들은 시안 서풍지 왕숙지등 41명으로 곡수에 잔을 띄우고 시를 읊었다. 이것이 유명한 난정 곡수연인데 이때지은 시를 모아 왕희지가 서를 써 난정서라 하였으며 원본은 당태종의 소릉에 부장되어있다.

유배거란 북송 철종 휘종 때의 건설담당 장작감 이명중이 편수하여 1096년에 완성한 토목, 건축 등에 관한 책으로 거기에 유상곡수연을 위하여 만든 도랑을 유배거라 설명하고 있다.

중국에는 영조법식 유배거 (국자형 유배거, 풍자형 유배거)

숭북궁 범상정 유배거, 향산 정의원 유배거등이 있다.

- 한국의 유배거

※ 옥류천

창덕궁은 조선 태종4년(1405)에 창건된 이궁으로 후원의 깊숙한 곳에 인조14년(1636)에 조성된 옥류천이 있다. 이곳에는 낮은 언덕에 실개천이 흐르며 청의정, 태극정, 소요정, 취한정, 농산정 등이 있다.

위이암이란 이름이 붙여진 바위의 바닥을 평탄하게 다듬고 거기에 유배거를 둥글게 만들었는데 이곳의 물은 어정이라는 우물에서 나와 유배거에 흐르다가 작은 벼랑에서 폭포가 되어 떨어진다. 이 옥류천의 곡수연은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되어있다.

- 포석정의 기록과 구조

※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

포석정이란 이름과 그곳에서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처음 나온다.

(헌강)왕이 포석정에서 잔치를 하였다. 한창 잔치가 무르익을 때 “왕이 잠시 조용히 하여라.” 왕의 어명이니 신하들이 조용히 하였다. 잠시 후 왕이“이제는 놀아도 된다.”하시니 신하가 “조금 전에는 왜 조용히 하라 하셨습니까?” 물었다. 왕이 말씀하시길 “조금 전에는 남산의 산신이 내려와 놀다 가셨다” 하셨다. 신하가 여쭙길 “어떻게 놀다 가셨습니까?” 하니 왕의 눈에만 보였던 남산신이 춘 춤을 일어나 덩실덩실 추어보였다. 신의 이름을 상심이라고도 하였으므로 지금까지 나라사람들은 이 춤을 전하여 어무상심 또는 어무산신이라 한다. 혹은 말하기를 신이 이미 나와서 춤을 추자 그 모습을 살폈다가 공인에게 명하여 이를 세기게 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보였으므로 상심이라 했다한다. 혹은 상염무라고도하니 이것은 그 형상에 따라서 이름을 지은 것이다.(삼국유사)

경애왕4년(927) 9월. 견훤이 고을부(영천)를 침범하므로 왕은 고려 태조에게 구원을 청했다. 태조는 1만 명을 내어 이를 구원하게 하였다. 견훤은 구원병이 아직 이르지 않은 틈을 타 11월에 신라 서울로 들어왔다. 이때 왕은 비빈 종척들과 같이 포석정에서 잔치를 베풀고 놀았는데 갑자기 적병이 쳐들어오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왕은 왕비와 함께 후궁으로 들어가고 종척 및 공경대부 사녀들은 사방으로 헤어져 숨었다가 모두 적에게 사로 잡히게 되었는데 귀천이 없이 모두 짐승처럼 엉금엉금 기면서 노복이 되더라도 살려만 달라고 애원하였다. 견훤은 또 군사를 놓아 공사재물을 모두 약탈하고 궁궐로 들어가서 좌우에 명하여 왕을 찾게 하였는데 왕이 비첩 몇 명과 함께 후궁에 숨어있었으므로 군사로 하여금 이를 잡아내고 왕을 협박하여 자진케 하고 왕비를 간음하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비첩을 난음하였다. 견훤은 곧 왕의 족제를 권지국사로 삼으니 이가 곧 경순왕이다.(삼국사기)

- 유배거

포석정터의 유배거는 화강석을 다듬어 만든 것으로 수조, 도랑으로 이루어져있으나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유구의 일부가 교란되었던 것을 1915년에 보수하였다.

유배거는 동남쪽에서 시작된다. 돌 절구처럼 생긴 둥근 수조가 조금 높게 놓여 있는데 수조는 긴 쪽 길이가 95cm이고 짧은 쪽은 지름75cm이며 복판에 우묵한 구덩이가 패여있다.

도랑은 수조에 이어 물이 드는 입수구, 전복형의 도랑, 물이 빠져나가는 출수구의 차례이며 바닥돌과 벽체돌을 각각 토막으로 만들어 짜 맞추었다. 입수구는 전복모양 도랑까지인데 길이가 약3.5m이다. 전복모양의 도랑은 남북5.3m 동서4.8m이다. 출수구는 길이가 2.2m이며 모양과 규모가 입수구와 비슷하나 물이 빠지는 부분은 아무런 시설이 없고 열린 상태이다.

도랑의 너비와 깊이는 위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도랑의 크기는 남북이 긴쪽 10.3m. 동서4.95m. 총 길이는 약22m이며 사용된 돌의 수는 63개이며 교란되어 있던 것을 1915년에 보수하면서 2-3개의 석재를 새로 만들어 끼웠다고 하며 끝부분은 시멘트로 마감하였다. 수조와 출수구 사이에 수백 년 연륜의 느티나무가 있다. 유배거는 시작되는 수조가 약간 높게 마련되어있고 도랑으로 이어지면서 조금씩 낮아져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였다.

- 시굴조사

1998년 포석정 인근에 포석정 모형 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유배거의 남쪽에 있는 평지를 시굴. 조사하였다.

시굴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유배거에서 남남동쪽으로 약40m거리의 동서98m 남북68m의 평지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통일신라시대의 소형 건물지 2동을 확인하였다. 이들 건물지는 궁실로 보기에는 그 규모가 적고 노출된 초석이 소형 막돌 초석이며 초석적심석군 또한 엉성하게 축조되었기 때문에 궁실과 같은 권위 건물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주변지역 지표조사에서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다. 건물의 축조 연대는 출토 토기를 기준으로 볼 때 6세기후반-7세기 초반을 그 상한하고 8세기 중반을 그 하한대로 추정한다고 하였다.

- 폐기와 무지

상기한 건물지에 인접한 남쪽에서 폐기와 무지가 발견되었다. 이곳에서는 토기류, 기와류, 자기류가 출토 되었는데 주변에서 건물지를 제외한 다른 유구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건물지와 관련된 것이거나 후대에 주변의 기와를 모아 폐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와 중에는 포석이라 새겨진 조각이 8점 출토되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기와의 제작연대에 대하여는 기와 편년 속성인 기와 두 개, 새겨진 문양, 명문기와의 유행 시기를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초기로 보고 있다. 시굴조사를 통하여 건물터가 발굴되고 토기, 자기, 기와의 출토는 이곳에 건물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소중한 유물이다. 특히 포석명 기와는 이곳에 포석 혹은 포석이라는 정. 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 맴돌이(회돌이)

수조에서 시작되는 곡선의 도랑은 조금씩 높이를 낮추면서 출수구로 이어진다. 도랑은 변화있는 굴곡, 너비, 깊이를 지니고 있어 물이 흐르면 곳에 따라 속도를 달리하거나 멈추기도 하고 또 굽이치는 곳에서는 맴돌이(회돌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대략 12 곳이라 한다. 그리고 물이 도랑을 지나는 시간은 약10분이 걸리는데 이만한 시간이면 오언시나 칠언시를 한 수 지을 만 하다고 한다. 장근식, 이상택, 휴동 훈등 제씨는 포석정 유배거에 관하여 수리학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유동훈 선생은 포석정의 축소 모형을 만들고 흐르는 물에 흰색 가루를 뿌렸더니 수로의 기울기와 굴곡. 잔의 위치 등에 따라 물의 회돌이 현상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하였다.

- 포석정의 기능

포석정은 헌강왕이 산신으로부터 춤을 배웠고 경애왕이 비빈 종척들과 잔치를 베풀던 중에 견훤의 습격을 받는 수모를 당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래에는 유상곡수연 이외에 다른 행사도 행하여졌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포석정은 신라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능과 의미있는 장소였던 것만은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로는 휴식공간이 아니었을까? 포석정 일대는 산의 경관이 수려하고 계곡의 수량이 많아 휴식처로 적합하였을 것이다. 헌강왕이 잔치를 베풀었고 효종랑이 문객들과 놀았다는 기록이 있다. 남산은 신령한 산으로 국사를 의논하였던 곳이며 산재한 절터로 보아 참배자도 많았을 것이다. 또 서라벌을 지키는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었다. 남산성을 쌓았고 미곡과 병기를 저장하는 장창을 조영하고 그곳에 근무하는 많은 장정들이 오르내리며 땀을 흘려 씻고 쉬는 곳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남산성은 당시 나라를 지키는 중심부였으니 왕이 남산성을 순시하고 나라를 위해 애쓰는 충신들을 위로하는 잔치를 포석정에서 베풀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포석정은 남산성의 휴게소 같은 곳이었으리라 짐작된다.

두 번째는 동양의 세시풍속에 이미 주 나라때부터 3월의 상사일 혹은 3월3일은 1년간의 액을 떨어버리는 의미로 물에서 멱을 감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를 계욕이라 한다. 상사일은 뱀의 날로 계욕은 뱀처럼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신에게 빌어 재앙을 떨쳐 버리는 불계를 올린 후 물가에 앉아 신에게 바쳤던 재물로 음복을 하였는데 이것을 계음이라고한다. 불교에서는 불탄일의 관불행사가 있고 기독교에서는 세례식이 있다. 그리고 제사를 앞두고 제주가 목욕제계하는 풍습이 있듯 포석계는 계욕처로서 적절한곳이다.(주변에 계욕처의 흔적이 추정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유상곡수연과 포석정 건물이있었 을 것으로 추정한다.

- 부대시설

※ 수원(水源)

포석정 유배거에 유입한물을 경주 사람들은 배상지에서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배상지는 윤을곡에 있는 저수지인데 포석정 유배거에서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약200m의 거리에 배상지의 제방이있다. 이곳의 못물이나 혹은 계곡의 물을 유배거에 급수하였다면

홈통을 만들어 이용하였을 것이다. 유배거에 인접한 자리에 우물이 있다. 지하에 우물이 있고 사다리꼴의 넓은 돌과 정구석을 얹어 놓았는데 이곳에 집을 짓고 살던 한민호씨(작고)가 50여 년 전에 판 것이라 한다.(이우물이 신라 때 것이라면 숙제는 쉽게 풀린다. 우물의 준설조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 돌거북

포석정 유배거에는 돌 거북이 있어서 그 입으로 물이 나와 돌 홈으로 흘러가게 한 것이라 한다. 류석우 선생은 "석구의 윗머리 물 받는 석함 위에는 옛적 돌거북이 있어 그 입에서 물이 나와 떨어지게 하였는데 조선 말기에 어느 부윤이 가져가 지금도 그 정원에서 아무 의미없이 엎드려있다" 라 하였고 진홍섭 선생은 "1871년에서 1873년 사이에 경북 안동으로 옮겨갔다고 하나 지금은 그 소재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홍사준 선생은 전하는 말에 안동 최모가 운반했다고 하였다.

※ 사묘

신라에서는 일찍부터 시조와 산천에 제사를 지내왔다. 맑고 시원한 포석계는 제사를 올리기에 적합한 곳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유사에는 헌강왕에게 춤을 가르친 산신 상심이 살고 있다고 믿어 그에게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 강돈규 교수는 경애왕이 11월에 포석정에 행차한 것은 팔관회를 개최하여 국가적 수호를 기원하기 위한 일이었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포석정 행사에서는 가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화랑이 참석하였고 국가적 위기에도 행사가 행하여 졌다는 점 등을 들어 포석정은 팔관회를 베풀던 곡으로 추정하며 유상곡수나 연회 장소가 아니라 종교적 성소였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팔관회란 한국의 고대에서 토속신을 위하여 올리던 의식행사이다.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로서 추수이후 음력11월에 등불을 찬란히 밝히고 술과 다과를 마련하여 가무와 백희를 하면서 나라와 왕실의 태평을 빌었다.

이종욱 교수는 경애왕이 음력11월에 포석정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유상곡수연을 베풀었다는데 음력11월은 유상곡수연을 할 수 없는 계절이라 하면서 신라 성덕왕 때의 김대문이 지은 화랑세기의 필사본을 근거로 하여 포석정은 포석사이며 원래는 시조를 받들다가 문노의 화상을 모셨고 여러 화랑들이 길례를 행하였던 곳이라 하였다. 문노조, 춘추공조에 나오는 글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 밖 의 김유신 장군의전기인 "각간선생실기"에서는 '문무왕 때 포석정 아래에 충렬묘를 세워....."라 하여 포석정 아래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거나 통일을 위해 몸 바친 화랑들을 받드는 충렬묘가 있었다 하였다. 호석정은 바로 포석정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마을의 이름 배동에 전하는 이야기와 포석정 유배거 북쪽 당수나무에 동제와 당제를 지내는 것으로 보아 오래 전부터 제를 지내왔음을 알 수 있다. 배리 일대에는 산천의 신과 시조왕을 받드는 신궁이 있고 삼릉을 위시한 여러 왕릉과 사찰 등이 있었으며 포석정 경내에는 충렬사 혹은 포석사가 있어서 제를 올리던 신성구역이었을 것이다.

- 성남이궁

경애왕이 후백제군의 침입을 피한 곳을 삼국사기(신라본기 경애왕조), 삼국유사의 기록에서는 후궁이라 하고 삼국사기(열전 견훤조), 동국여지승람, 동경통지 등은 성남이궁 이라 하였다. 대체로 국왕이 거처하는 곳은 정궁, 대궐, 궁궐 등으로 불려지며 임시로 머무는 곳을 외궁, 이궁, 후궁, 별궁이라 하였을 것인데 성남이궁은 정궁인 월성의 남쪽에 위치하는 이궁이란 뜻으로 해석되어 포석정지 주변일대는 성남이궁터로 알려져 왔다. 포석정지 일대는 윤을곡, 부흥곡, 기암곡 세 계곡의 물이 합류하여 포석계를 이루고 있으며 포석계를 경계로 북쪽은 남산의 아랫자락이 되어 마을을 형성하고 있으며 포석1길 제일 안쪽에 성불사란 작은 절에 신라시대의 장대석과 초석이 남아있다. 또 유배거 일대에 많은 정원석이 남아있으며 1998년 시굴조사 때 건물터와 토기, 기와들이 출토됨으로써 이곳이 이궁터 임을 알 수 있게 하며 그 조영 시기는 유상곡수연을 베풀기 위해서 유배거를 설치하는 때로 추정된다.

- 조영시기

포석정의 조영시기에 대하여는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밝혀지지 않았으나 화랑세기, 각간선생실기에 6~7세기의 포석사, 충렬사의 기록을 근거로 포석정의 조영시기를 일부의 학자들은 6~7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먼저 『화랑세기』의 기록에 8세 문노 조에, 진평왕이 포석사에 행차하였으며 606년 문노가 세상을 떠나자 포석사에 화상을 모시고 신궁의 선단에서 대제를 행하였다. 12세 보리공 조에, 포사에서 보리공과 만룡은 길례를 올렸다. 보리공은 계사(573)에 태어나 신해(591)에 화랑이 되었다. '18세 풍월주 춘추공 조에, 춘추공은 문희와 포석사에서 길례를 행하였다' 라 하였다. 이 기록에 의하면 포석사, 포사는 6~7세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각간선생실기』에는, 또, 포석정 아래에 충렬사를 세워 박제상, 김찬덕 등을 향제하고, 일등을 중급하여 그들을 포장하였다.

문무왕 때의 일이다. 하루는 당나라 사신이 왔다. 왕이 명하여 포석정에서 잔치를 열게 되었다. 당나라 사신은 성미가 거만하고 오만하여 신라의 여러 신하를 보자 경례를 하지 않았다. 이 때 김유신은 축선사에 있었다. 왕은 김유신을 잔치에 가기를 명하여 김유신이 부하를 거느리고 거기에 가니 당나라 사신은 그를 보자 급히 의자에서 내려와 맞아 절하고 말하기를 "남유진성을 오래 못 보았는데 지금 여기에 계시니 개국공이 아니십니까". 하고는 칭찬하여 맞이하였다.

문무왕 때 (661~681) 포석정 아래에 충렬사를 세워 박제상, 김찬덕, 김해론 등을 향사하였다고 하고 문무왕 때 당나라 사신이 포석정에서 오만하게 굴다가 김유신을 대하자 칭찬하였다는 7세기 후반의 이야기이다.



탐구활동

1 포석정이라 이름 붙여진 이유는?

2 포석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3 포석정은 무엇을 했던 곳인가?

3. 토함산권

1) 불국사(느끼는 자연, 배우는 불국사)

▼ 불국사



- 김대성의 불국사 창건 이야기

모량리의 가난한 여인 경조에게 아이가 있었는데 머리가 크고 이마가 평평한 것이 마치 성(城)과 같아서 이름을 대성이라 하였다. 집이 가난하여 생활할 수가 없어서 부자인 복안의 집에 품팔이를 하였는데 그 집에서 나누어준 약간의 밭으로 옷과 먹을 것의 비용으로 삼았다.

이때 덕망있는 승려 점개가 흥륜사에서 육륜회를 베풀고자 복안의 집에 와서 시주를 권하니 복안이 베 50필을 시주하였다. 점개가 주문으로 축원하기를 “신도께서 보시를 좋아하시니 천신이 항상 보호하고 지키시라. 하나를 보시하면 만 배를 얻으리라. 편안함과 즐거움을 누리고 오래도록 사시라.”했다. 대성이 이 소리를 듣고 급히 뛰어 들어가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제가 문간에서 스님이 외우는 소리를 들으니 한번 보시하면 만 배를 얻는다고 말씀하더이다. 생각해보니 저에겐 전생에 좋은 일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곤궁한데 지금 또 보시하지 않는다면 내세에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고용살이로 얻은 밭을 법회에 시주해서 후일의 과보를 도모함이 어떻겠습니까?”라 하자 그의 어머니가 좋다고 하여 점개에게 밭을 보시하였다.

얼마 안 되어 대성이 죽었다. 이날 밤 나라의 재상 김문량의 집에 하늘의 외침이 들리기를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를 네 집에 맡기겠다”라고 하였다. 집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사람을 모량리에 보내 알아보니 대성이 과연 죽었는데 죽은 그 날이 하늘에서 외치던 날과 같은 때였다. 그 때부터 태기가 있어 아이를 낳았다. 아이가 왼손을 쥐고 펴지 않다가 7일만에야 폈는데 대성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금간자가 있어서 이름을 또 대성

이라 짓고 그의 예전 어머니를 이 집에 모셔와 함께 봉양하였다.

다 자라서는 사냥을 좋아했다. 어느 날 토함산에 올라가 곰 한 마리를 잡아서 산 아래 마을에서 유숙하게 되었다. 꿈에 곰이 귀신으로 변하여 시비를 걸어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나를 죽였느냐? 내가 도리어 너를 잡아 먹으리라"고 했다. 대성이 두려워 떨면서 용서를 빌었다. 귀신이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절을 지어 줄 수 있느냐?"라고 하자 대성이 그러하겠다고 맹세했다. 꿈에서 깨어보니 땀이 흘러 이부자리를 적셨다. 이로부터 사냥을 하지 않고 곰을 잡았던 자리에 곰을 위하여 장수사를 세웠다.

이로 인해 마음에 감동되는 바가 있어 자비로운 발원이 더욱 독실해졌다. 이에 현생의 양친을 위해 불국사를 세우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창건하여 신림과 표훈 두 성사를 청해서 머무르게 했다. 아름답고 큰 불상을 세워 부모가 길러준 노고에 보답했으니 한 몸으로 현생과 전생의 부모에 효도한 것은 옛날에도 또한 듣기 힘든 일이었다. 착한 보시의 영험을 어찌 믿지 않겠는가?

옛 향전에 실린 것은 이상과 같으나 절 안의 기록에 의하면 경덕왕 대에 재상 대성이 천보 10년 신묘(751)에 불국사를 짓기 시작했다. 혜공왕 대를 거쳐 대력 9년 갑인(774) 12월 2일에 대성이 세상을 뜨니 나라에서 이를 완공시켰다. 처음에 유가대덕항마를 청해 이 절에 머무르게 하니 이를 계승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 불국사 역사

불국사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우선 불국사에 관한 기록은 일연스님(1289)이 쓰신 『삼국유사』와 영조시대인 1740년경 동은스님이 불국사를 답사하고 남긴 『불국사고금창기』등이 있다. 2가지 모두 사료로 쓰기에는 부적합하여 참고자료로 쓰는 정도이고, 따라서 연도 표시등이 학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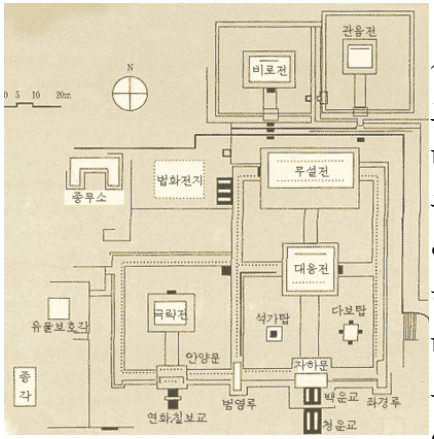
서기 751년 신라 35대 임금인 경덕왕 10년에 김대성님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이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짓기 시작해서 774년 돌아가시기까지 24년동안 지금 전면에 보이는 기본틀을 완공하였고, 최종적인 마무리는 김대성님 서거 후 신라왕인 혜공왕이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준공연도는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혜공왕이 779년에 서거하였음으로 최대로 길게 보아도 779년 이전에 완공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불국사 모습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것을 1750년 극락전 중수, 1765년에 대웅전, 1781년에 자하문 중수한 후 1924년에 일인들에 의해서 석축과 다보탑이 수리된 후 박정희대통령 시대인 1973년에 최종적으로 보수를 한 결과이다.

- 불국사 창건 모델에 대하여

불국사는 말 그대로 부처님의 나라다. 불국사의 최초이름은 화엄불국사이며 화엄불국의 세계를 불교용어로 연화장세계라고 말한다. 연화장세계는 구름과 산, 바다(향수해)가 화려하게 장엄된 세계이다. 이 연화장세계는 아주 방대한 세계임으로 우리 범부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오직 혜안으로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김대성님께서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불국사라고 생각된다. 부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구조물은 수미산이다. 수미산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묘고산 또는 묘향산이 된다. "수미산"

을 중심으로 중생들이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져 살고 있는데 우리는 남쪽-남섬부주에 살고 있다. 수미산 위는 부처님의 하늘나라 즉, 천상세계가 펼쳐져 있고 따라서 불국사는 우리 범부가 사는 세상에서 불국정토 수미산을 올라 부처님의 나라인 비로자나세계 즉, 연화장 세계까지 가는 행로를 따라 구조물들이 구축되어 있다.

- 가람배치



가람이란 쉽게 말해서 사찰을 뜻하는 용어다. 인도에서 생겨난 승려들의 정신 수행처를 samgharama(삼가람마)라고 하는데, 중국인들이 음역하여 '승가람마'라 표현되다가 다시 줄여서 가람이라 부르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건축가들이 집을 설계할 때 배치하는 기준이 있듯이 불국사 같이 큰 사찰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불교가 지닌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조형물과 이에 따른 부속건물이 수반된다. 때문에 이들을 적절한 공간에 배치하고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약을 필요로 했고 이를 제도화 한 것이 가람배치다.

초기 불국사의 가람 구조는 크게 다섯 구역 즉,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 관음전과 지장전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한다. 현재 불국사의 가람배치는 다른 사찰과는 다르게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 세 영역에 저마다 독립적인 전각이 배치되어 세분의 다른 이름을 가진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극락전이 있고 무설전 그리고 비로전과 관음전, 나한전이 배치되어 있다.

- 일주문



현판에 쓰인 한자. 부처불, 나라국, 절사 즉 재상 김대성이 부처님 나라를 경전에 있는 그대로 세운 절이 바로 불국사이다. 그래서 일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바로 부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주택에 문패가 있는 것처럼 사찰에도 문패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판이 있고 그 현판을 받치고 있는 문을 일주문이라고 한다.

불국사를 들어오는 입구는 2곳이다. 남쪽의 일주문, 서쪽에 있는 불이문이다. 현 일주문은 1973년 중창당시 남쪽에 만들었으며 건축양식은 조선시대 양식으로서 한칸 문이다. 일주문은 사찰과 속세와의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서 일반집의 대문에 해당된다. 일주문은 양쪽으로 기둥이 한 개씩 일렬로 서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사찰 대문의 기둥을 하나로 쓰는 이유는 부처와 중생이 한마음이 되자. 즉 一心을 의미하는 뜻에서 기둥이 일렬로 되어 있고 그 위에 'ㅅ자' 형태로 된 맞배지붕을 올려놓은 형태로 되어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일주문에는 문이 달려있지 않다.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일주문에는 절 이름을 새겨놓은 현판이 걸려 있고, 절이 산에 있는 경우에는 산 이름을 절 앞에 붙이고 있다. 예를 들면 가야산, 해인사, 영축산 통도사의 경우이다. 그렇지만 불국사 일주문에는 예외로 불국사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지금의 일주문은 1973년 불국사 복원 공사 시에 세워진 건물로서 신라시대 김대성님께서 불국사를 창건하실 당시의 위치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 천왕문




천왕은 부처님을 수호하는 신들로서 수미산의 중간부분 동, 서, 남, 북에서 수미산을 올라오는 중생들을 계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천왕 네 분을 한 곳에 모셔 놓았기 때문에 사천왕문이라고 부르고 있다. 요즘 시세말로 사천왕은 부처님의 보디가드 정도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들어오면서 사천왕을 자세히 보면 천왕의 얼굴색이 각기 다름을 알 수 있고. 청색, 흰색, 적색, 검정색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음양오행설에 의하여 천왕이 맡고 있는 방위를 색으로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동쪽은 '木' 으로서 '청색', 지국천왕은 비파를 들고 있고, 서쪽은 '金'으로 '흰색', 광목천왕은 용과 여의주를, 남쪽은 '火'로서 '적색', 증장천왕은 칼을 들고, 북쪽은 '水'로서 '검정색', 다문천왕은 탑과 창을 들고 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사찰마다 사천왕의 배치와 사천왕이 들고 있는 기물에 대한 설명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천왕이 발로 밟고 있거나 사타구니에 끼고 있는 사람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생령좌 또는 마구니라고 부르고 있다.

- 청운교. 백운교



국보 제 23호인 청운교, 백운교는 대웅전으로 통하는 계단이다. 위쪽 5.4m인 16계단이 백운교이고 아래쪽의 6.3m인 17계단으로 된 청운교다. 청운교를 푸른 청년의 모습으로 백운교를 흰머리 노인의 모습으로 빗대어 놓아 인생을 상징하기도 한다. 총 계단 수는 33계단이고 33이라는 숫자는 청운교를 거쳐 백운교를 올라 자하문이란 현판이 있는 곳은 불국사 구도상 수

미산 정상에 해당된다. 수미산 정상에는 부처님의 천상세계가 있는데 그곳을 도리천이라고 한다. 도리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33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계단을 33개로 구성한 것이며 수미산 꼭대기, 도리천-제석천왕이 머무는 중앙의 선견성을 중심으로 동, 서, 남, 북 사방에 각각 8개씩의 성이 있어 도리천에는 32개의 성(4방x8개식의 성)에 제석천왕의 선견성을 포함한 33성 하늘이 펼쳐져 있다. 이런 까닭에 도리천의 중앙부에는 언제나 33하늘 울려 퍼지는 범종이 매달려 있게 된다.

청운교를 자세히 보면 안쪽이 동그란 아치형인 것을 볼 수 있다. 약 45도의 경사를 보이는 이 석재는 설계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만들어졌으며 좋은 화강암을 써서 다듬은 수법도 정교하다. 이런 다리를 무지개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홍예다리'라고 하는데 홍예다리는 양끝이 처지고 가운데가 무지개처럼 굽어 있는 모양의 다리를 말한다. 청운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다리 안쪽으로 물이 흘렀기 때문이다. 지금은 연못이 사라지고 없지만 예전엔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청운교와 백운교는 천년의 세월을 넘어 현재까지도 그 모습을 간직한 채 전해져오고 있다. 우리 옛 선조들의 우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문화재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 자하문



청운교 백운교를 올라서면 자하문에 이른다. 자하문은 수미산의 정상에 해당되며 중생을 보살피는 천신 제석천왕이 상주하는 곳이라고 한다. '붉을 紫', '안개 霞'자를 쓰며 붉은 안개가 서려 있는 문이란 뜻이다. 그러면 붉은 색은 어디에서 나올까? 자하문 안쪽으로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 놓은 대웅전이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 몸에서는 자금색 빛이 난다고 한다. 자금색은 일반 중생들의 몸에서 일생동안 한두 번 밖에는 생기지 않는 길조의 빛이라고 하며 자하문이란 이름은 아침 햇살을 받아 구품연지에서 피어오르는 안개와 석가모니 부처님 몸에서 나오는 자금색 빛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란 뜻이다.

자하문이란 이름은 불국사에만 있는 이름으로 타 사찰에는 이 위치에 불이문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자하문은 불국사 창건당시 지어진 후 임진왜란 때 완전히 소실되었으며, 1781년 정조대 왕때 조선시대 건물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1968년 8월에 자하문에 발견된 자하문복창기 현판에 내용이 잘 적혀있다.

- 좌경루



좌경루는 불국사에서 유일하게 현판이 없는 건물이다. 설명을 들어야만 건물 이름을 알 수가 있다. 좌경루는 1973년 복원공사 때 새로 지어진 건물이다. 원래는 불교 경전을 보관하던 서고 같은 역할을 했던 건물이나 지금은 목어와 운판을 걸어 놓고 있다. 건물 복원은 고금창기를 기준으로 3칸으로 하였으나 불교 경전을 넣을 만큼의 크기는 되지 못하고 있다. 좌경루와 범영루가 다른 점은 석주다. 좌경루는 석주 중앙에 연꽃을 새긴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 석주 자료는 발굴조사에 의해 출토된 석주부재에 의해 복원되었다.

- 범영루



먼저 현판을 보면 '뜰 泛'자에 '그림자 影'자를 써서 범영루라고한다. '건물 아래에 있는 구품연지에 비치고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판이다. 이것으로 보아 앞부분에 연못이 있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

범영루는 고금창기에 의하면 원래는 수미범종각으로 불렀다고 하며, 108명이 앉아 예불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였다고 한다. 이 건물은 임진왜란(1593)때 불타버린 것을 여러 차례 중수하고 최종적으로 1973년에 새로 세운 건물이다. 수미범종각으로 불리울 때는 불국사 종을 매다는 건물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버리고 자하문 중창 시 같이 복원되면서 종각으로서의 용도가 다함에 따라 범영루로 현판이 변경되었다.

범영루의 특징은 석주에 있다. 석주의 모양은 항아리 모양을 하고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김대성님이 어떤 생각으로 석주를 저렇게 만들었나 생각해 보면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는 수미산 모양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수미산 위 도리천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다고 보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뭉게구름 모양이라는 견해가 있다.

자하문부터는 하늘나라 영역이다. 그래서 구름 위에 떠있는 누각을 나타내보고자 했을 것이란 생각을 할 수 있다.

- 석축

(1)수구



수구의 아래에는 구품연지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바로 이 수구를 통하여 구품연지에 물이 공급되었다. 토함산의 지하수가 불국사 무설전 뒤 옹벽 아래에서 솟아나오고 그 곳으로부터 대웅전 밑으로 하여 수구까지 지하로 물이 흐르도록 수로가 형성되어 있다.

(2) 그렝이기법의 축대



청운교 백운교의 돌 계단 좌우 석축에는 그렝이 질이라는 특수한 건축 기법이 사용되었다. 이는 자연석 바위와 가공한 마감 석재를 연결하는 기법으로 자연 석재로 쌓은 최상단에 가공한 석재를 올리면서 상단 가공재의 하단면이 아래쪽 자연석의 상단에 물리도록 깎아내고 다듬어 결합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고도의 축조 수법을 고집함으로써 불국사의 축대는 수 천년을 지탱할 수 있는 내구력을 지닐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수미산을 자연스럽게 형상화 할 수 있었다.

(3) 가구식 석축



석축에서 결구한 부분의 기둥머리에 네모 난 돌이 약간 나와 있다. 이 돌이 '동틀돌'로 안으로 깊숙이 박혀 있는데 석굴암의 궁륭천장도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동틀돌은 머리 안쪽으로 홈을 판 후 그 홈에 상하의 돌기둥이 걸리고 또 좌우의 중방처럼 생긴 수장재도 끼워진다. 그 턱에 걸리게 결구되면서 앞으로 밀려나지 않으며 즉 토압 때문에 석재대를 형성한 석재들이 밀려나기 쉬운데 동틀돌을 사용하면 이런 위험을 원천부터 봉쇄할 수 있다. 천 년이 훨씬 넘는 석굴암과 불국사가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선조들이 이런 과학적인 시공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가구식 석축은 8세기 중엽에 조성된 석조건축으로 건축적 조형미는 물론 그 기법이 매우 독특하여 신라 석조건축의 높은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어 2011년 12월 30일에 보물 1745호로 지정되었다.

- 연화교. 칠보교



연화교, 칠보교는 국보 22호로 지정되었다. 이 다리는 1922년 일인들에 의해서 난간설치를 한 것 이외에는 별로 수리한 적이 없는 잘 만들어진 다리이다.

이 다리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일반인들이 출입했던 통로다. 연화교, 칠보교를 넘어서면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극락전이 있다. 극락세계는 우리의 사후 세계이다. 극락세계는 7가지 보물로 만들어져 있고, 연꽃으로 된 꽃비가 내린다고 한다.

그래서 극락으로 가는 통로인 이 다리가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연화교, 칠보교로 불리워진 걸로 알려져 있다. 위 계단이 칠보교로서 극락을 이루고 있는 7가지 보물을 상징한다. 7가지 보물은 금, 은, 유리, 수정, 산호, 마노, 호박의 일곱 가지를 의미하며 아래 계단은 계단에 연꽃이 새겨져 있어 연화교라고 불린다. 지금은 거의 마모되어 약간의 흔적만 보이고 있고, 안양문 안쪽에 가서 선명하게 남아있는 홍예부분의 연꽃을 볼 수 있다.

- 안양문



연화교를 올라 칠보교를 건너면 안양문에 다가선다. 이 건물은 1964년에 새로 지어진 건물로서 고려 건축양식을 채택하였고 강릉 객사문과 도갑사 해탈문을 참고한 것이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6칸문이며 겹처마에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안양문" 다소 생소한 이름이나 한국 정서대로 하면 극락문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편안할 安', '수행할 養'자를 써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소란 의미다. 극락은 수행자의 종점이 아니며, 극락에서는 온갖 시름을 털고 편안하게 수행에 전념해서 곧 부처가 되는 그런 장소란 의미다. 우리 조상들은 극락에 대한 염원이 간절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우리 현실세계에 극락을 만들어 놓았다. 서울 아래에 있는 안양시가 바로 조상님들이 만드신 극락이며 한자를 똑같이 쓴다.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안양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아서 극락에 머무른 혜택을 누리고 있다.

- 당간지주

이곳 마당에 서 있는 돌기둥 두 쌍을 당간지주라고 부른다.
전국 여러 곳에 이런 당간지주가 남아 있는데 경주에만 해도 여러 틀의 당간지주가 중요한 절터에 남아 있다.

그럼 신성한 절터에 왜 이런 돌기둥을 세워 두었을까?
확성기가 없던 시절, 높은 장대를 세워 깃발이나 대중들이 알아보는 그림을 내다 걸면



'오늘 무슨 일이 절에 있다' 는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여럿에게 알리는데 장대는 유효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런 장대를 든든하게 버텨주는 돌기둥을 당간지주라고 한다.

때로는 당간을 불교 종파를 나타내는 기치(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내세우는 태도나 주장)로서 절의 문전에 세워진다. 불국사에는 연화교와 칠보교의 앞뜰에 당간지주 2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는데 당간을 받치는 돌로 만든 지주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 석조



불국사석조는 신라인의 뛰어난 조형의식과 예술수준을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며 보존상태도 양호하여 보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2007년 9월 11에 보물 제1523호로 지정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수조의 형상이 원형인 백제시대의 석조와 달리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형상인 직사각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외면에 모서리를 둥글게 한 것이 특이하다.

특히 내부 바닥면의 화려한 연화문 조각은 통일신라시대 불교미술의 뛰어난 조형의식과 높은 예술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인정된다.

석조에 물을 채우면 연꽃이 피어오르는 듯 모습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석조의 바닥 중앙에는 지름 약 3.5cm의 출수구가 있다.

석조의 규격은 길이 262cm, 폭 131cm, 높이 52cm이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차 좁아져 입면 상으로는 사다리꼴 형상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석조에 비해 내·외면에 조식이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 대웅전



대웅전은 "법화경"이란 불교의 경전에서 석가모니를 큰 영웅인 대웅으로 지칭한 것에서 유래되었으며 그만큼 석가모니불을 본존불로 모시고 있어 대웅전이라고 한다. 석가모니를 주불로 모시는 대웅전은 영조 41년(1765)에 중창된 것으로 기단부 및 초석 등은 신라시대의 것이고 상부 건물은 18세기 중엽의 전형적인 구조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대웅전 내에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목조 석가삼존불이 모셔져 있다. 가람의 중심 건물인 대웅전 안에는 중앙에 수미단을 세우고,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미륵보살과 갈라보살이 협시하였고 다시 그 좌우에는 흙으로 빚은 가섭과

아난의 두 제자상이 보셔져 있다. 석가모니는 인도의 왕자로 태어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수행을 한 뒤 큰 깨우침을 얻었다. 그 후 불교라는 종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불국사 대웅전은 창건당시 기단과 석등 등의 석조물이 보존되어 있으며 창건 당시의 유구 위에 영조 41년(1765)에 중창된 건물로 중창기록과 단청에 대한 기록이 함께 보존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건축물이다.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5칸의 다포계 건물로 기둥을 생략한 내부 공간 구성 및 살미첨자의 초화문양과 봉황 머리조각, 평방에서 돌출된 용머리 조각 등 내, 외부를 매우 화려하게 장식한 우수한 불전으로 그 가치가 크다. 그래서 2011년 12월 20일에 보물 1744호로 지정되었다.

- 불전사물



절에서 볼 수있는 4가지 물건을 불전사물이라고 한다. 스님들이 새벽과 저녁 예불에 치며 예불 전에 이 소리를 들으면 깨달음에 빨리 다다른다고 하며 온갖 잡념이 사라진다고 한다. 그 4가지 물건은 목어, 운판, 법고, 범종이다.

목어는 물고기처럼 잠자지 않고 도를 닦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소리는 물속의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뜻이고 운판은 뭉개 구름 모양의 얇은 청동 또는 철재 평판으로 만든 불구이며 두드리면 맑고 은은한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는 허공을 헤매는 고독한 영혼을 천도하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조류계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 한다는 뜻이다. 법고는 법을 전하는 북이라는 뜻이며 짐승을 비롯한 땅에 사는 중생을 구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사찰에서 사람을 모이게 하고 때를 알리기 위하여 치는 것이 범종이며. 그 소리는 지옥의 중생을 향하여 불음을 전파하여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목어 이야기

어느 한 절에 스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 중 한명이 스님의 가르침을 잘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였다. 그러다 그 제자는 병에 걸려 죽게 되는데 물고기의 과보를 받아 다시 태어났다. 그 제자는 등에 커다란 나무가 솟아난 물고기가 되어 태어난다. 어느 날 스님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어떤 물고기가 뱃전에 자꾸 부딪치며 슬피 우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님이 물고기의 전생을 살펴보니 바로 예전에 제멋대로 말을 잘 듣지 않았던 그 제자였다. 스님은 수륙제를 지내고 물고기 몸을 벗어나게 해 주었다. 그랬더니 꿈에 물고기가 나타나 감사함을 전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하며 등에 있는 나무를 베어 물고기를 만들어 막대로 쳐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스님은 그 나무를 베어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 사찰에 매달았다. 수행자들이 행여 게을러지는 자신을 반성할 수 있게끔 상징

물로 만든 것이다.

이에 연유하여 물고기가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는 것처럼 목어는 수행자가 이를 본받아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뜻을 갖고 있다. 목어의 크기나 모양에는 일정한 규칙이 없다. 사찰에 따라 1미터가 넘게 만들기도 하고 그보다 작게 하기도 하며 색채도 다양하다. 다만 배 부분을 파내어 소리가 울리게끔 하는 것만은 공통적이다.

- 불국사 쌍탑의 모양이 다른 이유

불국사의 두 탑이 서로 다른 이유는 대웅전 영역을 법화경을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법화경에 "나 대보부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나를 상징하는 다보탑과 함께 나타나서 설하고 있는 법화경이 옳음을 입증하겠다"라는 구절이 있다. 따라서 석가모니부처님이 증명하고 있는 형상을 탑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법화경이란 경전에 근거해서 이 대웅전 영역을 조성하다 보니 절 앞마당에는 다른 두 분의 부처님을 상징하는 석가탑과 다보탑이 서게 된 것이고, 이런 둘 사이의 불균형을 보전하기 위해서 앞의 범영루와 좌경루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져 전체적인 조화를 만든 것이다.

- 다보탑



다보탑은 국보 20호이며, 높이는 10.4m, 기단 폭은 4.4m이다. 기단부는 높은 단층 기단으로 사방에 10단의 계단이 있으며 돌계단의 입구에는 돌기둥이 있고 갑석의 네 모퉁이에는 네모진 돌기둥이 세워져 있고 중앙에는 다시 하나의 돌기둥이 받치고 있다.

네 개의 네모진 돌기둥에는 십자형으로 교차하는 반원형의 주두를 얹고 다시 그 위에 정(井)자형으로 조합된 미석을 놓고, 그 위에 옥개가 얹혀 있다.

옥개석은 낙수면의 경사가 얕고 네 귀에서만 예리한 전각을 이루고 있으며 옥개석 윗면에는 다시 각진 괴임돌이 놓여져 있고 그 위에 네모진 난순이 있고 그 속에 팔각 원주형의 탑신이 3층으로 쌓여져 있다. 맨 아래층에는 가운데가 잘록하고 위아래로 발이 달린 8개의 다리를 세우고 그 위에 팔각형의 난순이 있으며 이 난순의 여덟 모서리에는 곧추선 연꽃 한 송이씩이 배치되어 있고 그 속에 장방형과 원형의 가구목으로 연결된 난순이 둘러져 있다. 사각형 기단의 모서리에는 훌륭한 솜씨로 조각된 돌사자를 놓았던 것으로 추측되나 일제강점기에 세 개는 사라지고 현재는 얼굴이 깨어진 한 마리만 서쪽면 중앙에 남아 있다. 돌사자는 불교에서 부처님 나라를 지키는 성스러운 짐승으로 여겨지는 동물이다.

다보탑의 복잡하고 화려한 장식 및 독특한 구조와 표현법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것으로 단단한 화강암을 이용해 목조건축처럼 만든 석공의 솜씨가 놀랍다. 이는 법화

경에 나오는 과거부터 존재했던 여러 부처님의 세계, 즉 진리의 세계를 종합적으로 입체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현세불 즉 석가불을 상징하는 '석가탑'과 달리 매우 화려한 탑이 된 것이다.

석가탑과 다보탑이 이곳에 나란히 서 있는 것은 불교의 경전 가운데 하나인 법화경에 나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석가탑은 석가여래 즉 현세불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탑의 모습으로 항상 진리의 말씀을 설하고 계시는 모습이다. 그래서 탑 이름도 "석가모니상주설법탑"이라 하며 옆의 다보탑은 다보여래 즉 석가 이전의 과거불로 석가모니부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면 옆에서 다보여래가 듣고 "그래 맞다."하고 증명하는 모습이라서 "다보여래상주증명탑"이라 한다.

- 석가탑







〈유물과 다라니경〉

석가탑은 불국사 3층석탑이라고도 불리며 국보 제 21호로서 높이 8.2m이고 기단폭은 4.4m이다. 석가탑의 모습은 2층 기단 위에 3층으로 탑신을 세우고 그 위에 상륜부를 조성한 신라석탑 양식의 완성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단 주위에 조각된 연꽃모양의 돌은 팔방금강좌대라고도 부른다. 이는 성역으로서 탑의 구역을 표시한 것으로 연꽃 한 송이에 한 보살씩 모두 8보살을 뜻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설법하는 것을 보고 다보여래가 석가모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기뻐하며 꽃을 뿌렸던 그 모습을 뜻한다고도 한다.

석가탑의 탑신부는 각 층마다 몸체석과 옥개석(지붕돌)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층 옥개석 위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상륜부가 구성되어 있다. 상륜은 원래 노반과 복발, 앙화만 남아 있었으나 1973년 불국사 복원공사 때 남원 실상사삼층석탑의 상륜부를 본떠서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한 것이다.

1960년대 중반 도굴꾼들에 의해 기울어진 탑을 1966년 10월 해체하였더니 2층 몸돌에서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다. 사리함, 사리병, 각종 사리들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비단에 곱게 싸여져 발견되었다. 이곳에서 나온 유물과 다라니경은 국보 126호로 지정되었다.

석가탑은 무영탑이라고도 하는데 전해지는 설화가 있다.

-아사달과 아사녀 이야기-





옛 백제 지역의 사람인 아사달은 서기 751년 신라 35대 경덕왕 때 불국사 창건공사에 참여하게 되어 젊고 아름다운 아내 아사녀를 고향에 남겨 놓고 신라로 왔다. 아사달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일이 열중하면서 다보탑을 완성하고 난 다음 석가탑 조각에 착수 할 무렵 수년간 아사달의 소식을 기다리던 아사녀는 견디다 못해 신라까지 남편을 찾아왔다. 그러나 여자는 부정하므로 신성한 사찰을 짓는데 함부로 출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불국사의 문지기 때문에 탑이 완성될 대까지 근처 연못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탑의 그림자가 떠오르지 않자 기다리다 지친 아사녀는 못 위에 비친 남편의 환영을 좇아 그 물속에 몸을 던졌다고 한다. 이미 하늘나라로 간 아사녀. 아사달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부처님을 만들고 아내 곁으로 가버렸다는 애절한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그로부터 불국사의 석가탑을 무영탑(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탑)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그 못을 영지(그림자 못)라 일컫게 되었다.

- 무설전



무설전의 용도는 강당이다. 무설전이란 이름은 '설(이론)을 세우지 않는 곳'이라는 뜻이다. 참된 진리는 설(이론)을 세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 정신의 수양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선종 불교의 수행방법의 기본이 된다.

무설전은 부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경

전을 읽으면서 불교의 교리를 익히는 장소로 이용되는 곳이며 불국사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건물로도 유명하다. 그 옛날 부처님도 불법을 말씀한 뒤에도 "나는 불법을 설한 바가 없다."고 항상 말씀하셨다.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기단 위에 9개의 기둥이 다섯줄로 서서 지어진 이 건물은 1593년 임진왜란 때 불탄 뒤 1708년에 중건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한일합방이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없어졌다가 1972년 다시 복원되었다. 신축된 건물은 발굴 조사를 통해 평면만 복원되었고 상부 건물은 조선 초기의 양식으로 지어졌다.

- 김교각 스님 이야기-

무설전 한편에는 김교각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져오고 있다. 서기 697년에 신라 성덕왕의 아들로 태어난 교각스님은 24살 되던 해에 출가하여 당나라로 건너가 각지를 돌아다니며 중국의 구화산이란 곳에서 수행을 하던 중에 어느 남자아이가 길을 잃고 다 죽어가고 있었다. 그때 마침 김교각스님이 그 남자아이를 구해서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자아이의 아버지는 그 지방의 대단한 재력가였다. 또한 구화산의 주인이기도 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구해준 은인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김교각스님을 찾아가 "스님이 구해준 남자아이가 실은 저의 아들입니다. 스님덕분에 가문의 대를 이을 어린 자식의 목숨을 구했으니 어떻게 보답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김교각스님은 자신이 입고 있는 가사(스님들이 입는 옷자락)를 벗으며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자락만한 땅을 시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자 그는 "제 아들의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그깟 가사크기의 땅쯤이야 못 드리겠소?"라고 말을 했다. 그러자 스님은 높은 법력으로 가사를 펴 구화산을 모두 덮어 버렸다. 그래서 구화산에 화성사라는 절을 짓고 지장보살의 화신(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어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게 되었다. 이로부터 구화산은 중국의 대표적인 절이 되었으며 김교각스님은 오늘날까지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믿어지고 있다. 이러한 김교각스님의 행적으로 인해서 이 곳 불국사 무설전 안에는 김교각스님의 형상을 한 지장보살상이 있는데 이것은 스님께서 '1300년 후에 다시 고국인 서라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셔서 1977년 스님의 탄신 1300주년을 기념해 중국의 화성사로부터 김교각스님의 동상을 기증받아 무설전에 봉안하게 된 것이다.

- 관음전



현판이 관음전이라고 쓰여 있다. '볼 觀', '소리 音'이다. '소리를 본다'는 뜻이며 눈으로는 소리를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뜻이다.

관세음보살을 모신 전각이다. 관세음보살은 줄여서 관음보살 이라고도 하는데 불교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보살이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무관세음보살"하고 부르면 어디서든 나타나 도와준다고 한다. 그래서 자비를 상징하고 어머니 같은 부드러운 모습

을 하고 있다. 아미타여래의 사랑을 받들어 세상을 제도하시는 보살이다. 정성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청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거나 그 소리를 들으면 곧 구원의 손길을 뻗쳐 주신다고 한다. 관세음보살의 위력은 크다. 관세음보살을 믿는 사람은 불속에 들어가더라도 그를 태우지 못하고 깊은 물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얕은 곳이 찾아 진다고 한다. 만약 수 많은 중생들이 보배를 구하기 위해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태풍이 불어서 나찰 귀신의 나라에 떨어지게 되었을지라도 그 중에 한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사람들이 구제된다고 한다. 이렇게 큰 위력을 가진 보살로 신앙되었던 관세음보살이다. 관세음보살상 뒤편에는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진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상이 그려져 있다. 관음전은 751년에 창건되었으나 조선 성종 원년(1470)에 중수되고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던 것을 선조 37년(1604)에 중창하여 그 뒤 다시 숙종 21년과 44년 두 차례 중창 그 뒤에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없어진 것을 1973년 복원하면서 새로 조성한 관세음보살 입상을 봉안하고 있다.

- 비로전



비로전은 비로자나부처님이 모셔진 곳이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빛을 상징한다. 비로자나부처님이란 어원은 바이로차나(vairocana)또는 비로차나(virocana)라는 산스크리트 말을 한자음으로 음역하여 비로자나 또는 비로사나라 부르는데 이 뜻은 '빛을 발하여 어둠을 쫓는다'는 뜻이다.

금동비로자나불좌상은 국보 26호로 극락전의 아미타여래좌상과 경주국립박물관에 있는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과 함께 통일신라 3대 금동불의 하나다.

비로자나부처님의 수인법은 '지권인'으로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 것으로 오른손을 부처의 세계를 표시하고 왼손은 인간의 세계를 나타낸다. 이것으로써 인간과 부처는 둘이 아니며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라는 심오한 뜻을 나타낸다. 하지만 여기 불국사 비로전에 있는 비로자나불은 좌우의 손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곧추세운 오른손 검지를 왼손으로 감싸 쥔 형식이 특징이다.

이 불상은 대좌와 광배가 없어지고 불신만 남아있으며 얼굴은 풍만하나 근엄한 인상이 강하며 목에는 삼도를 나타내어 위엄을 보이고 있다. 옷 주름은 우견편단(오른쪽 어깨는 벗고 왼쪽 어깨에 가사를 걸침)형식으로 얇게 밀착되어 몸의 굴국이 드러나도록 표현되었다. 8세기부터 나타났지만 9세기에 크게 유행하던 것이다. 크기는 높이 180cm, 머리 높이 55cm, 너비 136cm이다.

비로전은 751년 창건되고 1593년 임진왜란으로 불타 버린 뒤 현종 원년(1660)에 중수되었으나 그 뒤 황폐화되어 터만 남아있던 것을 1973년 다시 새롭게 지은 건물이다. 건물터는 발굴조사를 통해 평면규모 및 그 내용이 밝혀져 그 근거에 의해 평면이 복구되었으며 지상건물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어 고려시대 건물양식으로 복원되었다. 물론 그 덕에 불상도 극락전 등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녀야 했다.

비로전 앞면과 옆면 각 3칸식의 규모에 팔작지붕형태이며 내부에는 중앙에서 약간 뒤쪽으로 치우쳐 설치된 수미단 위에 비로자나불과 후불탱화를 봉안하였다. 후불탱화는 1973년에 제작된 것으로 높이 325cm, 너비 400cm 크기의 대작이다.

- 사리탑



석가탑과 다보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는 곳이었고, 이 사리탑은 스님들의 사리를 봉안한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불국사 사리탑은 보물 제 61호로서 높이 2.06m에 상대석과 하대석의 연꽃모양과 중대석에 구름무늬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표면장식이 화려하고 세련되어 신라의 양식을 계승한 고려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한 동안 (1905년) 일본인에 의해 불법 반출되었다가 동경에 있는 한 제약회사 사장집 정원에서 발견되어 1933년 다시 찾아온 것이다.

- 나한전



나한은 아라한을 줄여서 부르는 이름으로 부처님의 제자를 뜻한다. 이곳은 부처님의 제자를 모셔놓은 나한전이라는 곳이다.

나한전은 대웅전과 달리 좁은 폭의 불단을 'ㄷ자형'으로 배치하여 부처와 나한을 차례로 봉안하고 깨달음의 정도가 낮은 나한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단을 장식하지도 않고 절집을 장업하게 하지도 않다. 위치 또한 주불전에서 떨어진 자리에 두고, 건물의 외양도 주불전보다 격이 낮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처에게는 16명의 뛰어난 제자들이 있어 이들을 16나한이라 한다. 나한전에는 석가모니를 주존으로 좌우에 아난과 가섭이 봉안되어 있으며 이 두 제자는 석가모니의 수 많은 제자들 중 가장 뛰어났다고 한다. 가섭존자는 석가모니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었다.

-이심 전심-

어느 날 석가모니가 제자들을 모아 놓고 연꽃 한 송이를 들고 미소를 지었는데 모든 제자들이 어리둥절해 했지만 오직 가섭존자만 함께 웃었다고 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전했으니 '이심전심'이란 말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가섭존자와 달리 아난존자는 많은 것을 외울 수 있는 영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남긴 말씀을 모두 기억해

경전으로 정리할 때 큰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불교에서 경전공부를 할 때에는 아난존자를 가장 큰 스승으로 받든다.

그 좌우로 16나한이 자유자재한 형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끝부분에 범천과 제석천(불법은 수호하는 신)을 함께 봉안하는 것이 나한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5백 나한을 모신 곳도 있는데 이것은 부처가 열반한 후 가섭이 부처가 생존했을 때의 설법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을 때 모인 비구가 5백 명인 데서 비롯된 것이다.

- 극락전



극락세계란 '영원히 죽음이 없는 낙원'을 뜻하는 말로서 이곳을 다스리는 아미타여래부처님을 모시는 곳이 바로 극락전이다.

아미타부처님이 주불전이 될 때에는 무량수전이라고 하며 주불전이 아닐 경우 미타전 또는 아미타전이라고 한다.

극락전에 안치되어 있는 아미타부처님은 많은 부처들 중 서쪽에 있는 극락세계를 맡고 있는 부처이며 통일신라시대 만든 불상으로 국보 27호이다.

불당안의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은 비로전의 비로자나불좌상보다 3cm정도 더 크며 (1.66m)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불교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나무아미타불관세음보살이라는 말 정도는 알 것이다. 이 말에서 나무(남무)란 우리말이 아니라 옛날 인도말인 산스크리트어로 '~를 믿고 의지합니다.'라는 뜻이다. 아미타불은 그 좌우에 각각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동반하며, 이 두 보살로 하여금 중생들을 돕게 하시는 분이다.

아미타여래의 모습은 한마디로 떡 벌어진 어깨와 당당한 가슴, 늘씬한 몸매에 볼록한 아랫배 등은 건장한 남성적인 체구를 연상시켜준다. 또한 옷 주름선은 어깨나 팔을 제외하고는 부드럽고 유연한 편이지만 가슴의 옷깃 안쪽에서 밖으로 늘어지게 한 옷 접힘 또는 팔에서 내려오는 지그재그형의 옷자락 그리고 배와 다리의 옷 주름 선들이 축 늘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어깨와 팔, 무릎의 옷 접힘과 무릎사이에 내려온 형식적인 손과 팔, 무릎 그리고 평평하게 처리한 콧잔등 등에서 직선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추상화의 경향이 엿보인다.

따라서 8세기에 제작된 석굴암 본존불의 특징과는 다른 9세기 불상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당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양손은 각각 엄지와 검지를 구부려 아미타구품인 가운데 하품중생인을 맺었지만 좌우손의 위치가 서로 바뀐 점이 특징이다.

최근까지 극락전 안에는 아미타불과 비로자나불의 두 불상이 안치되어 있었는데 비로자나불은 원래 대웅전에 모셔져 있던 것을 일제강점기에 극락전으로 모셨다가 지금은 비로

전으로 옮겼다.

현재 극락전 건물은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린 뒤에 영조 26년에 중창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1925년 강점기에 중수되었지만 중창 때의 모습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듯하다.

- 극락전 멧돼지



극락전 정면 처마 밑에 현판으로 가려져 눈에 확 띄지는 않지만 길이 50cm 가량의 나무로 된 돼지 형상이 있다. 흰 이빨을 보니 멧돼지 같기도 하다. 아마 금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황금돼지라고 한다. 극락전은 임진왜란 때 훼손됐다가 조선후기 재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어떤 이유에서 돼지상이 처마 밑에 숨겨지게 됐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2007년 돼지해에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 불국사에 오시는 분들이 찾아보고 가신다.

탐구활동

1. 불국사와 석굴암이 위치하고 있는 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2. 불국사의 불국이란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봅시다.
3. 불국사는 언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4. 석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 공법과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5. 불국사의 국보와 보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2) 석굴암

▼ 토함산 석굴암





석굴암이 위치한 토함산은 해발 745m로서 경주의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산이다. 구름을 머금었다, 토한다 하여 '토할 토', '머금을 함'을 써서 토함산이라 한다.

토함산의 유래에 대해서는 첫째, 동해에서 불어오는 습기가 많은 바다 바람의 영향으로 산 정상 부근에 운무가 자주 끼고 걷히게 되는데 이 모습이 "산이 마치 안개를 삼키고 토하는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둘째, 토함산 산신령이 된 석탈해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탈해를 토해라고도 한다"는 삼국사기 탈해 이사금조의 기록에 근거 하였다는 이야기 셋째, 토함산지역에서 화산 폭발이 있은 뒤에 불을 뿜어내는 모습에서 토함산이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신라 시대에는 토함산이 신라 도성의 동쪽을 지켜주는 오악 중 동악으로서 경배하고 신성시하던 산이다. 토함산에 위치한 석굴암은 신라천년문화를 대표하는 그 정점에 위치한 문화재로서 예술적, 조형적 가치와 더불어 지리적 입지적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 창건

석굴암[석불사]은 751년 [경덕왕10년] 에 김대성에 의하여 창건되었으며 그의 전생의 부모를 위해 지은 것으로 전하여온다. "삼국유사" 권5 "대성효이세부모"중에서 석굴암의 창건에 관한 기록을 보면 김대성은 현세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세우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세워서 신림과 표훈을 청하여 각각 머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석굴암이 조성될 수 있었던 배경은 경덕왕 [742—765] 대에 이르러 통일초기의 수습과정을 벗어나 80여 년이 경과하면서 정치와 문화의 각 방면에 거쳐 신라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고의 융성기를 이룩하였던 시기였다. 즉, 정치적 안정과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고구려의 높은 축성기술과 백제의 조형기술을 바탕으로 경덕왕은 단순한 지배자가 아니라 진리의 성자로서, 또한 그의 정치이념 등이 조형을 통하여 더욱 구

체화된 것이 석굴암과 불국사라고 할 수 있다.

- 석굴의 구조와 과학



석굴암의 평면은 고대의 우주관인 천원지방[하늘은 네모지고 땅은 둥글다] 형태를 하고 있다.
전실부는 방형[네모나게]으로 되어있으며 좌우 4구씩 팔부중상을 그 안쪽으로 금강역사를 좌우에 배치하였고 비도[통로] 부분에 좌우에 2구식 사천왕상을 배치하였다.

후실인 주실은 전실과 달리 원형을 하고 있는데 본존불을 향하여 전방 우측에서부터 제석과 문수보살을 그리고 좌측에 범천과 보현보살을 배치하였으며 그 뒤쪽으로 좌우에 5구식 10대 제자상이 배치되어 있다. 중간지점 즉 본존불 뒤쪽에 11면 관음보살상을 배치하여 석굴암의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었다. 그리고 주실의 벽면 위쪽에 10개의 감실을 마련하여 보살상과 거사상을 모셨다.

현재 감실에 모셔진 것은 8구로 2구는 일제강점기 때 반출되었다고 한다.

주실의 천정부는 여러 개의 석재를 가공한 판석과 판석 사이를 돌 못을 이용하여 적절히 조립하였으며 중앙에는 거대한 연화 천개석으로 마무리하였다.

천개석은 현재 3조각으로 갈라진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이 흔적은 삼국유사에 기록된 "큰 돌을 만들어 덮개를 만들다가 돌이 갑자기 세 토막으로 갈라졌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이것은 석굴 조성공사의 곤란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그리고 본존불의 두광은 본존불에 부착되어 있지 않고 본존불 뒤쪽으로 11면 관음보살상 위쪽에 있다. 이것은 정면에서 예배자가 불상 상호를 바라보았을 때 마치 본존불 뒷 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참배자가 굴 입구의 밝은 곳에서보다 어두운 주실의 본존불을 보았을 때 착시현상에 의해 실제의 위치보다 앞쪽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임으로 이를 감안하여 뒤로 물려놓았다.

하나 더 석굴내의 결로현상에 대한 문제의 해결 방법이다. 석굴암 본존불 뒷 쪽 지하에 암반수가 흐르고 있었다. 동해의 해변에서 불어오는 습기 많은 바람이나 외부의 더운 바람이 차가운 석굴로 들어오면 보통 천정에 결로현상이 나타나지만 석굴암 석굴의 바닥에는 차가운 암반수가 흐르기 때문에 바닥에 결로현상이 나타나 맺힌 물방울이 흐르는 물에 합류되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있었다.
이것은 자연의 현상을 석굴암에 적용한 당시로서는 대단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 석굴암의 조각상

※ 본존불



석굴암 본존불상은 그 조각의 종교성과 예술성에 있어서 우리 조상이 남긴 세계 종교 예술품 중 가장 탁월한 유산이다. 전실의 중앙에 서서 깊숙한 곳에 안좌한 본존불을 예배할 때 연화로 된 아름다운 두광은 더욱 본존불의 영광을 드러내고 힘찬 수법으로 표현한 소박하고 장중한 모습은 신성한 조화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반개한 눈, 미 그 자체를 나타내는 듯 한 온화한 눈썹, 그리고 미간에 서려있는 자비로움, 방금이라도 설법할 듯한 자애로운 입과 코, 길게 늘어진 귀, 굽타식의 나발과 백호 등 하나하나의 부분이 생명력을 충분히 간직한 깨달음의 모습으로 표현된 얼굴은 인자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감히 범할 수 없는 위엄을 간직하고 있다.

본존불의 손은 항마촉지인상(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며 땅을 짚어 부처의 영광을 증명하게 하는 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도가 이루어져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극치에 달한 그 때에 생기는 불가사의한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몸에 걸쳐진 옷, 어깨에서부터 오른쪽 옆구리로 자연스럽게 늘어진 엷은 옷자락은 역시 기교의 탁월성뿐만 아니라 숭고한 종교성을 드러내고 있다.

본존불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소박성, 순수성, 자연성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이 본존이 경전에 나타나는 어느 부처님을 표현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대체로 이 불상이 석가모니불을 표현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견해가 익숙해져 있었다. 또한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본존불은 그 위치로 보아서나 또는 불국사와의 관련에서 판단할 때 석가모니불이 아니라 서방에 위치하는 극락정토의 본존인 아미타불로 보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동쪽을 향하여 멀리 동해로 그 시선을 돌리고 있는 본존불, 또 그 바로 뒤에 이 현세에서 구현하는 부처, 보살로서의 관음보살이 배치되어있다는 사실로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추정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석가모니불이건 아미타불이건 결국 그 부처님들이 근본적으로 염원하는 본체는 형상과 언어를 넘어선 일심 즉 공정하고 강대하며 편협하지 않고 무상하지 않은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영원한 하나의 마음이다.

※ 십일면관음보살



본존불 뒷 편 중앙에는 십일면관음보살이 조각되어 있다. 십일면관음보살상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11개의 얼굴모습을 갖추고 있는 관세음보살이다. 관음보살은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보살로 얼굴을 여러 개로 형상화 하였는데 이것은 여러 종류의 성품을 가진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 대범천과 제석천



이 두 천왕상은 "법화경"을 비롯한 모든 대승경전에서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신화적 존재인 불재자들이다. 이들 역시 인도 고대 신화 속의 신들이었지만 불교에 흡수되어 불법을 수호하는 신들이다. 대범천은 욕계를 벗어난 색계 제일의 단계에 위치하면서 이 사바세계를 다스리는 천왕이며 제석천은 사왕천 위에 위치하는 33천의 천왕이다.

※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상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양 옆에 모시는데, 보살로 말하자면 각기 지혜와 행원이라는 부처님의 두 가지 커다란 덕성을 상징하는 분이다. 이와 같은 문수보살을 사찰에 모실 때는 손에 칼을 들고 있거나 사자를 타고 있는 형상을 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번뇌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칼이나 용맹과 위엄의 상징인 사자를 통해 지혜의 준엄한 성격을 암시한 것이라 보여진다. 한편 보현보살은 깨달음과 중생구제를 향한 실천행의 의지 즉 행원을 상징하는 보살이다. 문수보살이 사자를 타고 있는데 비해 보현보살은 흰 코끼리를 탄 경우가 많은 것도 행원이라는 것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십대제자



십대제자란 석존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덕이 높은 열 분의 제자를 말한다. 초기경전인 아함경을 위시하여 관정경 등 여러 대승경전과 특히 유마경에는 열 분의 제자를 열거하고 있다. 사리불, 마하목건련, 마하가섭, 수보리, 부루나, 마하가전연, 아나율, 우바리, 라후라, 아난이 있다.

※ 감실의 조각상



굴 안의 윗 단에는 좌우에 다섯 개 씩 열개의 반구형 감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다양한 모습의 조상들이 봉안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석굴은 더 깊고 넓은 인상을 풍기게 되며 벽면의 입체감이 굴의 신비성과 장중성을 더 한층 배가시키고 있다. 이는 천년의 암굴이 아닌 석굴암을 중국이나 인도에 있는 천연의 석굴사원보다도 더 잘 조화된 균제미를 가진 천연의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열구의 감실 중 맨 앞 좌우의 감실은 비어있다. 2구의 보살은 잃어버린 듯하다.

※사천왕상



사천왕은 수미산 중턱의 동서남북의 네 지역을 관장한다는 천왕이다. 동방에는 지국천, 서방에는 광목천, 남방에는 증장천, 북방에는 다문천 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천왕이다.

※금강역사




본존불이 있는 굴의 입구 좌우 양쪽에는 웅건하고 용맹한 모습에 매우 역동적인 두 개의 조각상이 있다. 이들을 금강역사, 또는 인왕상이라고 부르며 언제나 탑, 또는 사찰의 문 양쪽을 지키는 숨은 신장의 역할을 맡는다. 이 역사가 단순히 힘센자가 아니라 신성한 지혜를 고루 갖춘 존재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본존불을 향하여 좌측의 역사는 입을 크게 열어 "아"하고 소리를 내는 모습이고 우측의 역사는 임을 굳게 다문 채 빈틈없는 방어의 자세를 갖춘 모습이다. 밀교에서는 이 역사들에게 많은 신비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아"소리를 내는 듯한 역사를 "아"금강역사, 입을 다물고 있는 역사를 "훔"금강역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는 산스크리트 문자의 첫째 글자이고, "훔"은 그 끝 글자로서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두 글자이다. 둘 다 밖에서 안으로 한 팔을 올리고 한 팔은 내린 채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않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전신에 생동하는 힘, 서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날쌘 동작의 순간을 포착한 듯한 옷자락, 무서운 표정, 침범할 수 없는 표정이면서도 조금도 악의가 없는 얼굴, 그것은 신라 무인의 명목을 방불하게 하는 것 같고 중국이나 일본의 금강역사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 팔부신중



전실 좌우 양 벽에 각각 숫자 4구의 상이 있는데 그것이 팔부신중상이다. 부처님의 권속 또는 불교를 수호하는 신중들의 조상이다. 여기의 팔부신중은 가루라, 건달바, 천, 마후라가, 아수라, 긴나라, 야차, 용 이렇게 여덟 상이다.

- 석굴암의 변천

이렇게 만들어진 석굴암은 경덕왕 10년(751) 김대성의 발원에 의해 석불사로 창건된 이래 신라불교사상과 조형예술의 불후의 걸작으로 자리하여 왔으나 그 후 고려, 조선시대의 기록은 빈곤하여 그 현상을 알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현존하는 기록은 단편적이지만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속하는 자료가 남아있다. "불국사 고금창기"와 정시한의 "산중일기"가 가장 중요한 기록에 속한다. "고금창기"는 1703년(숙종29년)에 석굴암을 중수하고 또 굴 앞에 돌계단을 쌓았으며 1758년(영조34년)에 중수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수한 규모가 어느 정도의 것인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겸제 정선은 1733년 명승

기를 그린 “교남명승첩” 2권 가운데에 경주의 골굴과 석굴을 그려 넣었다. 이 화첩은 전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최근의 복원 공사에서 석실 입구에 목조 전실을 첨가하는데 귀중한 자료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200년에서 300년 전까지만 해도 석굴암이 잘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1907년경 우연한 기회에 석실이 있음이 알려졌다. 그 뒤 일본인들에 의해 적지 않은 파손행위까지 있었으며 나아가 이러한 소규모적인 반출 및 탈취는 일제에 의하여 석굴 자체의 해체, 운반이라는 계획까지 세우게 된다. 그러나 이 나라가 이미 그들의 소유가 되자 그들은 굳이 석굴을 해체하여 반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계획은 좌절되었다. 1912년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가 이곳을 방문한 뒤 총독부는 석굴암 중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시기의 중수는 전후 세 차례에 걸쳐 행해졌는데 제1차는 1913~1915년, 제2차는 1917년, 제3차는 1920~1923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신라인들은 종교를 바탕한 신앙심으로 과학, 수학, 토목, 건축과 예술을 결합하여 위대한 문화유산을 만들었다. 화강석을 다듬어 석굴을 만들면서 11면 관음보살 뒤에서 새 나오는 지하수를 바닥 밑으로 흐르도록 하여 굴 속에 차는 수증기가 낮은 온도에 따라 바닥에 붙게 하였고 돌 틈 사이로는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 자갈과 흙 사이로 스며들게 하였다. 지붕은 기와로 덮어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였다. 자연에 순응한 과학적 방법에 의해 1,200년 넘게 별 탈 없이 내려오던 것을 일본인들이 수리하면서 망쳐놓았다. 일본인들은 토목공사를 하듯이 석굴 바깥에 콘크리트로 붙이고 바닥에 지하수는 밖으로 물길을 돌려버렸다. 그 결과 굴 속에 들어간 수증기가 바닥에 붙을 수도 없고 돌 틈 새로 빠질 수도 없게 되어 수증기는 돌 벽면에 붙어버렸다. 이에 따라 돌 벽에 풍화작용이 급속히 일어난 것이다. 1960년대 대대적인 보수를 하면서 원상을 복원하려는 안도 있었지만 워낙 여물게 붙은 콘크리트를 제거하자면 본래의 돌판이 깨어질 우려가 있어 이미 있는 콘크리트 돔 바깥에 1m정도의 공간을 띄우고 이중의 돔을 설치하였다. 그리고는 공간 바닥에 습기, 온도조절 장치를 설치한 것이다. 60년대 말까지는 굴 속에 들어가 참배도 하고 조각을 감상하기도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이 내뿜는 입김이며, 사람 냄새, 땀 냄새가 뒤섞여 보존에 지장을 주게 되었다. 그 때문에 앞쪽에 커다란 유리문을 설치하여 참배, 관람하도록 조치하였다.

- 수광전



원래 승방으로 쓰이던 집이었다. 이 건물이 창건 당시부터 있어 왔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고 자그마한 팔각지붕 건물이었던 것을 새로 수리를 하여 최근에는 아미타삼존불을 보시고 불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 삼층석탑



통일신라시대의 삼층석탑으로 높이 3.03m, 8각원당형 기단 위에 사각형의 3층 탑신이 놓여 있는 특이한 탑이다. 이 석탑은 원과 사각, 팔각이 이루는 조화미, 상하가 이루는 균형미, 세부수법의 경쾌미를 잘 조화시킨 신라석탑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 때 도괴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해체, 복원 한바 있고 1963년 다시 흙에 파묻혔기 때문에 복원하였다.

- 토함산과 석탈해에 관한 설화

※ 삼국유사의 기록

하루는 토해가 동악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인으로 하여금 마실 물을 찾아 떠오게 하였다. 하인이 물을 떠가지고 오는 도중에 먼저 마시고 드리려고 하였더니 입에 물그릇이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꾸짖으니 하인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이후부터는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간에 감히 먼저 마시지 않겠습니다.”라 하니 비로소 떨어졌다. 이로부터 하인이 두려워 복종하여 감히 속이지 못하였다. 지금 동악 속에 우물 하나가 있는데 세간에서 부르기를 요내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왕위에 있은 지 23년 되는 건초4년에 세상을 뜨니 소천구 가운데 장사 지냈다. 뒤에 신령이 명령하기를 “조심해서 내 뼈를 묻어라.”고 했다. 그의 두개골의 둘레는 3자 2치이고 몸의 뼈 길이는 9자 7치였다. 치아는 엉기어 하나처럼 되었고 뼈마디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 천하에 적수가 없는 장사의 골격이었다. 이것을 부수어 소상을 만들어 대궐 안에 모셔두었더니 탈해의 신령이 또 와서 말하기를 “내 뼈를 동악에 안치하라.”고 하여 동악에 모셨다.

토함산 아래에 있는 불국사와 이곳의 석굴암은 1995년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로써, 국보24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다.

*수인 : 부처님이 손 모양이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

*항마촉지인 : 항마인은 석존이 득도하기 전에 정각산 선정굴에서 내려와 보리수 아래 금강보좌에 앉아 선정에 들었을 때의 상황이다. 석존이 정각이 되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였다. 그 때 마왕파순이 갖가지 방해를 한다. 그 이유는 석존이 만약 득도하게 되면 일체의 중생은 구제되고 마왕의 위력은 없어진다고 생각한 까닭이다. 마왕은 세 미녀를 보내 교태를 보이면서 세속의 쾌락이 출가의 즐거움보다 더하다는 유혹을 하였다.

그러나 이 시도가 실패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악마의 세력을 동원하여 힘으로 쫓아내려 하였다. 이 때 제1의 지신이 석존 앞에 나타나 도와주려 하였으나 석존은 “걱정하거나 겁내지 말라. 나는 인내의 힘으로 악마를 항복시킬 것이다.” 라고 자신을 타일렀다. 마왕은 석존에게 칼을 대면서 “비구야, 나무 아래 앉아서 무엇을 구하는가? 빨리 떠나라. 너는 신성한 보좌에 앉을 가치가 없는 자이다.”라고 했다. 이에 석존은 “천상천하에 이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나 한 사람뿐이다. 지신이여 이를 증명하라.”고 하면서 선정인의 자세에서 홀연히 땅을 가리켰다. 이 때 제2의 지신이 홀연히 튀어나와 이를 증명하였다. 이 때의 손 모양이 항마촉지인이다.



탐구활동

1 석굴암은 신라 어느왕 때 누가 만들었을까?

2 석굴암을 과학적으로 만든 부분은 어떤 곳이 있을까?

3) 괘릉

▼ 괘릉(사적 제 26호)〉



괘릉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자리는 연못이었다고 한다. 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연못을 메우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물이 무덤 안으로 스며들어 관을 바닥에 놓지 못하고 돌기둥을 만들어 관을 무덤 벽에 걸어 놓았기 때문에 걸 괘(掛)자를 써서 괘릉이라 불렀다고 한다.

괘릉의 주인공을 알 수는 없으나 신라 제 38대 원성왕의 능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즉 삼국유사에 원성왕릉이 토함산 서쪽 동곡사(승복사)에 있으며 최치원이 지은 비문이 있다고 하였다. 지금 괘릉에 비석은 남아 있지 않으나 인근에 승복사 터가 있어 괘릉이 원성왕의 능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괘릉은 높이 6m, 지름 23m인 원형봉토분이며 무덤 둘레에 난간석을 두르고 봉분 아래에는 봉토를 보호하기 위한 호석이 설치되어 있다. 호석은 무복을 입고 무기를 잡고 있는 십이지신상을 새겼으며 무덤 앞에는 돌 사자상 4기와 문인석 2기, 무인석 2기와 입구 양옆에 화표석이 세워져 있다.

- 원성왕

신라 제 38대 원성왕(785~798) 김경신은 제 37대 선덕왕이 후사 없이 죽자 왕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당시 선덕왕의 사후에 알천(지금의 북천) 건너에 살던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기로 되어 있었는데 홍수로 강물이 불어 궁궐로 건너오지 못하였다. 이에 사람들은 하늘이 이렇게 비를 내려 그를 건너오지 못하게 함은 그를 왕위에 모시지 못하게 하려는 하늘의 뜻이라 여겨 궁궐 가까이 있던 김경신을 왕에 추대하니 그가 바로 원성왕이었다.

그는 불교에 관심이 많아 승관을 두었고 795년 봉은사를 지었다. 한편 790년에는 김제의 벽골제를 증축하여 농사를 장려하였으며 발해와 외교적 관계를 맺었으며 유교경전에 능통한 사람을 3품으로 나누어 실력에 따라 관리로 등용한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여 개혁을 시도하였다.

- 괘릉의 석조유물





능을 중심으로 좌, 우 한 쌍씩 석조상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인물상 4점, 사자상 4점, 석주 2점 등 총 10점으로 능 입구에 들어서면 신도임을 알리는 화표석이 서 있고 다음에는 서역인상이 있으며 그 다음에는 서로 다른 모습의 사자상이 배치되어 있다.

서역인의 모습을 한 무인상은 터번을 착용하고, 한쪽 팔을 위로하여 주먹을 움켜잡고 있으며 가량의 몽둥이를 짚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키가 2.4m나 되는 이 거대한 석인은 서역인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무사의 복장인 갑옷을 입지 않고 아무런 장식이 없는 부드러운 느낌의 옷을 입고 있다. 뒷모습을 보면 산낭이라는 작은 주머니를 차고 있는데 이것은 호인들이 당나라 장안성에 거주하면서 주머니에 계산하는 주판 같은 것을 넣는 것이다. 형상으로 봤을 때 아라비아 계통의 상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견해도 있다.

무인석 옆에 있는 석인상은 문인상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옷 속에 칼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옷자락 끝에는 칼이 선명하게 조각되어 있고 뒷면에는 문복이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서 관검석인으로 보고 있다.

이 석조물들의 조각 수법은 매우 당당하고 치밀하여 이와 같은 유형의 신라 조각품 가운데는 우수한 작품이며 동 서문 화의 교류적 측면에서 크게 중시되고 있는 자료이다. 괘릉과 같은 유사한 모습은 성덕왕릉, 흥덕왕릉에서도 볼 수 있다.



화표석이란 신이 주관하는 신도가 시작됨을 알려주는 표시이다. 절이나 궁궐에서도 세상과의 구별을 나타내는 구획선을 긋는데, 화표석 역시 그런 상징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경신과 알천 신

38대 원성왕의 이름은 경신이다. 그는 혜공왕 말년에 김지정이 난을 일으켰을 때 김양상과 함께 김지정을 치고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다.

곧 김양상은 왕위에 올라 선덕왕이 되고 무열왕의 후손인 김주원은 재상이 되고 김경신은 김주원 다음가는 지위에 올랐다.

김경신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다. 즉 복두를 벗고 흰 갓을 쓴 채 열두 줄 가야금을 들고 천관사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꿈이었다. 너무 이상해서 점을 잘 치는 사람에게 해몽을 시켜 보았다.

"복두를 벗은 것은 관직에서 떠날 징조요, 가야금을 든 것은 칼을 쓸 조짐이오며, 우물 속으로 들어간 것은 옥에 갇힐 징조입니다. 조심하소서."

이 말을 듣고 김경신은 몹시 근심하여 문을 닫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다.

이때 아찬 벼슬에 있는 여삼(또는 여산이라고도 한다.)이라는 이가 찾아와서 만나기를 청했다. 경신은 병을 빙자하고 만나지 않았다. 여삼은 재차 청하여 한 번 만나기를 원하므로 허락하였다.

자리에 안내된 여삼은 인사가 끝나자마자 물었다.

"보아하니 공의 병은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삼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절하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말 길몽입니다. 다시 없는 좋은 꿈입니다. 공이 높은 자리에 올라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공을 위해 꿈을 풀어 보겠습니다."

이에 경신이 주변에 있던 사람을 모두 물리치고 난 뒤 해몽하기를 청하니 여삼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복두를 벗은 것은 공의 윗자리에 앉을 사람이 없음을 뜻함이며 흰 갓을 쓴 것은 면류관을 쓰게 될 징조입니다. 열두 줄 거문고를 든 것은 12세손이 왕위를 이을 것을 뜻하며 천관사 우물 속에 들어간 것은 장차 궁궐로 들어갈 상서로운 조짐입니다."

경신은 반갑고도 놀라웠다. 그는 내물왕의 12세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 위에 김주원이 있는데 어찌 내가 그 윗자리에 오를 수 있겠는가?"

"거기에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래 알천 신에게 제사 지내고 기도하시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경신은 그날부터 알천 신을 모시는 제사를 올렸다.

얼마 후에 선덕왕이 세상을 떠났는데 왕에게는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

당연히 다음 왕위계승자를 선출하기 위한 화백회의가 소집되었다. 지위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김주원에 앞설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주원으로 말하자면 태종 무열왕의 6세손이고 재상 자리에 있었으니 경쟁할 상대가 있을 턱이 없었다.

회의는 만장일치로 그를 왕에 추대키고 결의했고 사자는 곧 주원의 집으로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갔다.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나 왕으로 선출된 김주원은 감회를 억제할 수 없었다. 보위에 오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집을 나서려고 할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폭우는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다. 온 천지를 물바다로 뒤덮을 것 같았다. 삽시간에 냇물이 불어 알천이 크게 범람했다.

공교롭게도 주원의 집은 알천 밖에 있었으므로 건너 갈 수가 없었다.

한편 김경신은 알천 신을 모신 보람이 나타났음을 알고 재빨리 행동을 일으켜 궁중으로 들어가 먼저 보위를 차지하고 말았다.

일이 이렇게 되자 주원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폭우가 쏟아져서 주원의 왕위계승을 막은 것은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모두 경신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축하하였다.

김경신은 바로 38대 원성왕이며 신라 하대의 왕들은 모두 원성왕의 후예이다.

왕이 여삼을 찾았으나 그는 이때 이미 죽은 뒤였으므로 그의 자손을 불러 벼슬을 주었다고 삼국유사에 전한다.

김주원은 경신에게 패한 한을 품고 지금의 강릉 땅으로 내려가 살았다. 후에 그의 아들 헌창과 또 그의 손자 범문이 연이어 반란을 일으켰으나 끝내 모두 평정당하고 말았다



탐구활동

1 왜 괘릉이라 부르며 누구의 무덤일까?
2 사자가 무덤을 지키는 이유는?
3 봉분둘레 12지중 자신의 띠를 찾아보자.
4 윷놀이의 도, 개, 걸, 윷, 모는 각각 어떤 동물일까?
5 12지의 옷을 관찰해보자.
6 무덤 앞 석인상에 대해 알아보자

4. 동해안권

1)문무대왕릉

▼ 문무대왕릉(文武大王陵 , 사적 158호)




대왕암의 유래는 신라 문무왕이 자신이 죽으면 화장해 동해바다에 수장하도록 명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바다의 용이 되겠다.” 왕의 유언에 따라 왕의 시신을 화장하여 수장한 곳이 바로 지금의 대왕암이다. 그 후 아들 신문왕은 선왕의 이 같은 뜻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대왕암이 바라보이는 곳에 감은사를 지었고 본전 밑에는 용당을 만들어 바다용이 된 대왕이 드나들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왕암은 신라 문무왕의 호국의지가 서려있는 일대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역사의 현장이자 호국의 혼이 담긴 곳이기도 하다. 문무왕은 아버지 무열왕의 뒤를 이어 고구려를 통합하고 당나라 군사를 몰아내니 명실 공히 삼국을 통합한 통일 왕이었다. 또한 죽어서까지 해룡이 되어 나라의 안위를 지키겠다며 바다와 한몸이 되었다.

세계 유일의 수중릉인 대왕암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묵묵히 말해주고 있는 교훈적인 장소이다. 우선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자신의 희생으로 좀 더 나은 나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며 또 일반인으로서는 자신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일깨우고 있다.

문무대왕은 유언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국운이 마침 어지럽고 전쟁하는 시대를 당하여 서쪽을 정벌하고 북쪽을 쳐서 능히 강토를 평정하고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두루 평정하였다. 이리하여 위로는 조종(祖宗)이 돌보아 주심을 위로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아비와 아들의 오랜 원한을 갚아주었고 살아남은 사람과 죽은 사람에게 널리 상을 주고 내외의 관직을 고루 나누어 주었으며 병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어 백성들이 태평세월을 누리게 하였다. 또 조세를 가볍게 하고 부역을 덜어주니 집집이 넉넉해지고 사람마다 풍족해져서 백성은 안정되고 나라 안에 걱정이 없어졌으며 창고에는 곡식이 산처럼 쌓이고 감옥은 텅 비어 풀이 무성해 졌으며 벼슬아치와 백성들에게도 저버림이 없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스스로 어려운 고생을 무릅쓰다가 드디어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리고 정치와 교화를 위하여 걱정하고 애쓰다가 다시 깊은 고질(痼疾)에 걸렸다.

명운(命運)은 가더라도 이름이 남는 것은 고금에 한결같은 법칙이니 문득 죽은들 무슨

유한이 있으랴. 태자는 일찍부터 덕을 쌓아 오래도록 동궁의 자리에 있으니 위로는 여러 재상들에서부터 아래로는 뭇 관료들에 이르기까지 가는 사람을 잘 보내는 의리를 어기지 말고 있는 사람을 잘 섬기는 예절을 잃지 말라. 그리고 나라의 임금은 잠시라도 비워 놓을 수 없으니 태자는 곧 내 관 앞에서 왕위를 잇도록 하라.

옛날에 나라를 다스리던 영주도 마침내 한 무더기 흙무덤이 되어 나무꾼과 목동들은 그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여우와 토끼들은 그 곁에 구멍을 뚫고 사니 한갓 재물만 허비하고 비방을 서책에나 남길 뿐이며 헛되이 사람만을 고되게 하고 죽은 사람의 넋을 구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하면 마음이 상하고 아픔이 그지없으니 이와 같은 것들은 나의 즐겨 하는 바가 아니다. 임종한 후 열흘이 되면 곧 고문(庫門) 바깥뜰에서 서역(西域)의 의식에 따라 화장하라. 상복의 경중은 스스로 정해진 법이 있거니와 상례의 제도는 힘써 검소하고 절약함을 좇을 일이다. 변방의 성읍(城邑)을 지키는 일과 주(州)와 현(縣)에 세를 부과하는 일에서 요긴한 것이 아니면 모두 마땅히 요량하여 없앨 것이며 율령(律令)과 격식(格式)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곧 고치고 원근에 포고하여 이 뜻을 알게 할 것이며 주관하는 이는 이를 시행하라" 고 전하고 있다.

문무왕의 유언만을 살펴봐도 대왕의 나라 사랑과 백성들에 대한 애민 정신을 살펴 볼 수 있다.

문무대왕릉은 수중릉(水中陵)으로 동해변(東海邊)에서 200m떨어진 바다 속에 있다. 봉길리(奉吉里) 앞바다 물속에 솟은 바위가 있어 이 바위를 대왕바위 라고 불러왔다. 바위 위에 올라보면 가운데에 비교적 넓은 공간이 있고 그 동서남북 사방으로 수로를 내어 맑은 바닷물이 파도를 따라 동쪽으로 나 있는 수로로 들어오고 서쪽 수로로 나감으로써 큰 파도가 쳐도 안쪽 공간은 바다 수면이 항상 잔잔하게 유지되게 되어있다. 대왕암 가운데 넓은 공간에는 넓적하고도 큰 돌이 남북으로 길게 놓여 있는데 길이3.6m 너비2.85m 두께0.9m의 거북 모양의 화강암석으로 수면(水面)은 이 돌을 약간 덮을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대왕암에서 중앙의 넓은 바위를 중심으로 사방에 수로(水路)를 설치한 것은 부처의 사리를 안치한 사리탑(舍利塔)의 형식과 비교되기도 한다. 즉 사방에 문이 마련되어있는 인도 탑의 경우나 백제의 미륵사탑 하부에 4방으로 통로를 마련한 것과 같은 불탑의 형식이 이 대왕암에 적용되어 사방에 수로를 마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신라 제30대 문무왕(661-681)은 본명이 김법민(金法敏)이고 무열왕의 맏아들로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고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어 삼국통일을 완수한 신라의 영주이다. "삼국사기"에는 681년 7월에 왕이 돌아가니 시호(諡號)를 문무라 하고 왕의 유언에 따라 고문 밖에서 불식(佛式)으로 화장(火葬)하여 동해구(東海口) 대석상(大石上)에 장사하였다고 전한다. 이는 왕이 죽어서도 동해의 용이 되어 왜구를 막겠다는 유지를 받든 것으로 신라 사람들은 왕이 용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대석을 대왕석이라 하였다고한다.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神文王)은 동해변(東海邊)에 감은사(感恩寺)를 창건하고 금당(金堂) 밑에 동해를 향하여 구멍을 뚫어 동해의 조수(潮水)가 금당 밑까지 들어오게 하였는데 이는 동해의 용이 된 부왕이 조수를 따라 금당까지 들어온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대왕암이 바라다 보이는 인근 해변에 이견대(利見臺)가 있는데 용이 된 문무대왕을 이곳에서 보았다고 한다.

2)감은사지

▼ 감은사지(感恩寺址 , 사적31호)



신라 제31대 신문왕이 부왕인 문무왕의 뜻을 이어 창건하였으며. 감은사(아버지 은혜에 감사한다)지의 부근인 동해바다에는 문무왕의 수중릉인 대왕암이 있다. 문무왕은 해변에 절을 세워 불력으로 왜구를 격퇴시키려 하였으나 절을 완공하기 전에 위독하게 되었다.

문무왕은 승려 지의법사에게 "죽은 후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어 불법을 받들고 나라를 지킬 것"을 유언하고 죽자 이에 따라 화장한 뒤 동해에 안장하였으며 신문왕이 부왕의 뜻을 받들어 절을 완공하고 감은사라 하였다. 그때 금당 아래에 용혈을 파서 용으로 변한 문무왕이 해류를 타고 출입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682년 5월 신문왕은 동해의 호국용이 된 문무왕과 33천의 아들로 태어난 김유신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보물인 만파식적을 얻었다. 당시 해관(海官)의 보고에 의하면 작은 산이 부왕부래(浮往浮來) 하는데 낮에는 둘로 보이고 밤에는 하나로 합쳐진다고 하였다. 이는 다름 아닌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가운데는 동서로 물이 넘나드는 수로로 형성된 대왕암이 낮에는 정확하게 보이는 까닭에 둘로, 밤에는 어두우니 전체인 하나로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 뒤 이 절은 황룡사, 사천왕사 등과 함께 호국의 사찰로서 명맥을 이어 왔으나 언제 폐사가 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절터에는 국보 제112호인 동서삼층석탑 2기가 남아 있다. 제일 윗 부분인 찰주의 높이까지 합하면 국내의 현존하는 탑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이 탑은 고선사지 삼층석탑. 나원리의 오층석탑 등과 함께 신라 통일기의 전형적인 석탑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1959년 동. 서탑 중 서편 삼층석탑에서 보련형(寶輦形, 왕이 타는 수레형태) 사리함이 발견되었는데. 현재 보물 제266호로 지정되어있다. 감은사지는 1959년과 1979년~1980년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유물이 수습되었고 사지의 전모가 확인 되었다. 감은사는 일금당 쌍탑식 가람으로써 남북의 길이보다 동서 회랑의 길이가 길게 구성된 점과 금당(金堂 , 본존불을 모신 곳)을 중심으로 동서의 회랑(回廊, 각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을 연결하는 중회랑인 익랑(翼廊)을 둔 점이 특이하다. 사지의 남쪽에는 정면3칸, 측면2칸의 중문지가 있고, 이 중문 좌우로 후면의 강당지(설법을 하던 곳)에 이르기까지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중문 북쪽으로 금당 앞과 좌우에는 같은 형태의 삼층석탑 2기가 있으며 양 탑의 중앙부 후면에는 정면 5칸, 측면 3칸의 금당지가 있다. 정연하게 쌓아올린 2층 기단의 4면 중앙에는 돌계단이 각각 배치되었고 가공된 갑석과 지대석이 보인다. 금당의 바닥 구조는 "ㅐ자형"의 받침석과 보를 돌다리처럼 만들고 그 위에 장방형(사각형)의

석재유구를 동, 서 방향으로 깔아서 마치 돌 마루를 얹어 놓은 것 같이 되어있다. 그 위에 주초(柱礎, 기둥 주춧돌)를 배열하고 건물을 세웠던 특이한 구조로서 금당의 정면에서부터 일정한 높이의 공간을 형성하여 동해의 용이 된 문무왕을 감은사의 금당에 들어오게 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과도 부합하고 있다. 금당 북쪽의 강당지는 원래 정면8칸, 측면4칸 이었던 것을 후대에 정면5칸, 측면4칸으로 고쳐서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 감은사지삼층석탑 (感恩寺址三層石塔 , 국보112호)



감은사탑은 종래의 평지가랑에서 산지가람으로. 고 신라의 일탑 중심의 가람배치에서 일금당 쌍탑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보이는 최초의 석탑 쌍탑이다. 기운차고 견실하며 장중하면서도 절박함을 잃지 않는 이 위대한 석탑은 동.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삼층탑으로 유문암질 응회암 상. 하 2층 기단위에 3층으로 축조 되었다. 신문왕2년(682)으로 축조 연대가 확실한 통일신라 초기 작품으로 신라3층 전형석탑의 시초이다. 우선 이 석탑의 가장 큰 특징은 기단부와 탑신부등 각 부분이 한 개의 통돌이 아니라 수십 개에 이르는 부분 석재로 조립되었다는 점이다.

하층기단은 지대석과 면석을 같은 돌로 다듬어 12장의 석재로 구성하였으며 갑석 또한 12장이다. 기단 양쪽에 우주(모서리 기둥)가 있고 탱주(버팀기둥)가 3주씩 있다. 상층기단 면석 역시 12장에 갑석은 8장으로 구성되었으며 2주의 탱주가 있다. 탑신부의 1층 옥신(몸돌)은 각 우주와 면석을 따로 세웠으며 2층 몸돌은 각각 한쪽에 우주를 하나씩 조각한 판석 4장으로 3층 몸돌은 유일하게 1석으로 구성(사리장치를 위한 배려로 보인다)하였다. 지붕돌의 구성은 각층 낙수면(탑 지붕 윗면)과 옥개받침(탑 지붕 아랫면) 이 각기 따로 조립되었는데 각각4장 이므로 결국 8석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옥개받침은 각층 5단으로 짜여 졌고 낙수면의 정상에는 2단의 높직한 굄이 있으며 낙수면 끝은 약간 위로 들려져 있다. 3층 지붕돌 위부터 시작되는 탑의 상륜부에는 1장으로 만들어진 노반석이 남아있고 그 이상의 부재는 없었으나 현재 약 3.9m 높이의 쇠로 된 찰주(탑 꼭대기에 피뢰침처럼 꽂혀있는 쇠기둥, 탑 윗부분을 장식하는 연꽃, 수레바퀴 등 장식품이 꽂혀 있어야하나 모두 훼손되고 쇠기둥만 남아있다. 1,300년 전 신문왕 때 만들어 졌는데 지금까지 염분이 있는 바닷바람을 맞고도 녹이 쓸지 않았다. 이 찰주에서 신라의 우수한 철기문화를 엿볼 수 있다.) 가 노반석을 관통하여 탑신부 3층 몸돌에 꽂혀있다. 석탑의 전체 높이는 13m로서 우리나라 삼층석탑중 규모가 가장 크다. 탑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것은 안정감과 상승감이라는 두 가지 요소이다. 감은사터 삼층석탑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3개의 몸돌을 실측해보면 그 폭이 4:3:2의 비례로 상승감에 성공하고 있으며. 높이는 4:3:2가 아닌 4:2:2로 나타낸다. 곧 1층 몸돌이 2,3층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는 착시를 감안한 것으로 만약 정상적인 체감률을

따랐다면 지금과 같은 상승감을 보이지 못하였을 것이다. 통일 신라 초기의 석탑에서 주목되는 점은 각 부의 구성이 백제시대의 석탑과 같이 많은 석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목조건축에 있어서의 구조성을 잃지 않고 있는 증거라고 보여진다. 감은사 동. 서탑은 이러한 목조건축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감은사지서삼층석탑내유물　보물366호

서쪽에 있는 석탑을 1959년 12월31일에 해체하면서 3층 탑신에서 발견된 사리장치이다. 사리를 모시기 위한 청동제사각감과 그 안에 있던 사리기이다. 사리기를 넣었던 사리감은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발견 당시 몹시 부식된 상태였다. 사각형의 깊숙한 상자에 완만한 원뿔 모양의 뚜껑이 있는 형태로 전체 높이가 약 31cm정도 된다. 사리감의 네 옆면에는 각각 사천왕상이 1구씩 새겨져 있고 그 양 옆에는 각각 동그란 고리가 달려있다. 주위는 꽃무늬로 장식하였는데 이는 모두 동판에 따로 새겨 작은 못으로 고정시키고 있다. 가장자리에는 꽃과 잎 무늬로 가득 메운 가는 장식판을 이용해 단을 돌렸는데 뚜껑의 둘레에도 마찬가지로 단을 돌렸다. 네 문을 지키고 있는 사천왕상은 그 자세나 옷의 무늬가 중국 당나라의 조각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 표현 기법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앙아시아의 조각상과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청동으로 만든 사리기는 정사각형의 기단과 사리병을 모셔둔 몸체, 그리고 수정으로 만들어진 보주의 3부분으로 이루어 졌는데 마치 목조 건축물을 연상케 한다. 사리기의 기단과 몸체 부분은 비교적 보존상태가 영호하나 그 윗부분인 보개는 원형을 알수 없을 정도로 부식되었다. 사리기의 기단은 안상을 새기고 신장상을 배치하였으며 기둥을 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맨 위에는 난간을 돌리고 그 안에 4개의 주악상과 4개 동자상을 따로 만들어 배치하였다. 사리병은 고리가 달린 그릇 모양의 외피 속에 넣고 그 위에는 수정으로 만든 보주를 올려놓았다.

- 감은사지동탑사리장엄구 , 보물 1359호



1996년 동쪽에 있는 석탑을 해체, 수리 하면서 발견된 일괄유물 중 사리기 세트이다. 1959년에 발견된 감은사지 서 삼층 석탑내 유물인 청동제 사리기와 구조가 비슷하며 바깥을 감싸고 있는 외함과 안쪽의 사리기, 그리고 사리병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외함의 네 벽면에는 사리를 수호하는 사천왕상이 표현되어 있으며 사천왕상의 주변에는 구름무늬를 새겼고 좌우에는 귀신의 얼굴모양을 새긴 고리가 배치되어있다. 이 사리기 세트는 제작기법이나 유물형태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 공예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불교 조각사와 공예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탐구활동

1 문무왕은 신라왕 중 처음으로 화장을 했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2 감은사라 이름 지은 이유는?

3 탑의 층수는 어떻게 헤아릴까?

4 출토된 사리함에 대하여 알아보자.

5 신문왕이 용으로부터 받은 세상을 구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3)이견대

▼ 이견대(利見臺 , 사적159호)



근래에 삼국통일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문무왕의 수중릉인 대왕암을 바라보는 절벽 위에 누정(樓亭)형식의 건물을 건립하고 이견정이라는 현판을 달았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문왕은 부왕인 문무왕을 위하여 감은사(感恩寺)를 창건하였다는 기사와 함께 문무왕이 왜구를 진압하기 위하여 감은사를 창건하였으나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자 신문왕이 이를 완성 하였는데 금당 아래에 용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놓았으며 그리고 용이 나타난 곳을 본 곳이 이견대라고 하였다는 기사가 전한다. 또 같은 “삼국유사”에 신문왕이 이견대에서 용으로부터 흑옥대(黑玉帶)와 만파식적(萬波息笛)을 받았다고 하였다.

“고려사(高麗史)” 악지(樂誌)에 의하면 어느 왕 시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위에 건물을 지었다고 전한다.

이견대지(利見臺地)에 관하여는 현재 누정건물이 있는 장소라는 설이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다.

1968년 그 곳을 시굴한 바 몇 기의 초석자리 비슷한 적심부가 나타났으나 신라시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이견대지로 확정 짓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 조선시대 문헌에는 이견대지가 이견원 옆에 있다는 기사가 있으므로 현 누정이 있는 자리는 조선시대의 이견원지로 추정하는 견해가 나오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 현재 누정이 있는 위치의 뒤 언덕위에서 신라시대 와편이 출토되는 것을 근거로 이곳이 원래의 이견대지라는 견해도 있다. “이견(利見)”이라는 말은 주역(周易) 건괘(乾卦)에 나오는 “비룡재천 이견대인(飛龍在天 利見大人)”이라는 문구에서 취한 것이다.

- 만파식적

제31대 신문대왕(神文大王)의 이름은 정명(政明)이고 김씨이다. 개요(開耀) 원년은 신사년(681)인데 7월7일에 왕위에 올라 돌아가신 문무대왕을 위해 동해 가에 감은사를 지었다. 다음해인 임오년5월 그믐께였다. 해관인 파진찬 박숙청(朴夙淸)이 아뢰었다.

“동쪽바다 가운데 작은 산이 떠서 감은사 쪽으로 오고 있는데 파도를 따라 이리저리 다닙니다.” 왕이 기이하게 여겨 일관 김춘질(金春質)을 불러 아뢰게 하였다.

“돌아가신 임금님께서 지금 바다용이 되어 이 나라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게다가 김유신공은 33천의 한 아들이라 이제 내려와 대신이 되시고 두 분 성인께서 덕을 같이 하시어 나라를 지킬 보배를 내주려 하십니다. 만약 폐하께서 해변으로 가신다면 반드시 값으로 칠 수 없는 큰 보배를 얻으실 것입니다.”

왕은 기뻐하며 그 달 7일 가마를 타고 이견대로 가서 그 산을 바라보고 신하를 시켜 살펴보도록 하였다. 산의 모양새가 마치 거북의 머리 같은데 그 위의 대나무 한그루가 낮

에는 둘이 되고 밤에는 하나가 되었다. 신하가 와서 아뢰자 왕은 감은사에 가서잤다. 다음날 정오 대나무가 합쳐 하나가되자 천지가 진동하고 바람과 비로 어두워지는데 7일 간이나 갔다. 그달 16일에 이르러서야 바람이 자고 파도가 잠잠해졌다. 왕이 바다를 건너 그 산으로 들어가니 용이 검은 옥대를 받쳐 들고 나오는 것이었다. 왕은 영접하고 함께 앉아 물었다.

"이 산이 대나무와 함께 쪼개지기도 하고 오므라지기도 하니 어쩐 일입니까?"

"비유컨대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가 나지 않고 두 손바닥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나무라는 물건도 오므라진 다음에야 소리가 나지요. 훌륭한 임금이 이 소리를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게 될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왕께서 이 대나무를 가져다가 피리를 만들어 불면 세상이 화평해질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신 왕은 바다 가운데 큰 용이 되어있고 유신은 다시 천신(天神)이 되어서 두 분 성인이 한 마음으로 이런 값으로 칠 수 없는 큰 보물을 내어놓고 날더러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놀라 기뻐하며 다섯 가지 색깔이 칠해진 비단이며 금과 옥으로 제사를 드렸다. 신하를 시켜 대나무를 잘라 바다에서 나오자 산과 용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왕은 감은사에서 자고 17일에 기림사에 이르러 서쪽 시냇가에서 머무르며 점심을 먹었다. 태자 이공이 궁궐을 지키다 이 소식을 듣고 말을 타고 달려와서 경하하였다. 서서히 살펴보더니 왕에게 말하였다.

"이 옥대의 여러 구멍들은 모두 진짜 용입니다."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구멍 하나를 떼내어 물에 담가 보시지요."

이에 왼쪽 두 번째 구멍을 시냇물에 담갔더니 곧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그 땅이 연못을 이루자 이 때문에 용연(龍淵)이라 불렀다.

왕은 행차에서 돌아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월성의 천존고(天尊庫)에 보관하였다.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나고 병이 치료되며 가뭄에는 비가내리고 홍수 때는 맑아지며 바람이 자고 파도가 잔잔해 지는 것이다. 이름을 만파식적이라 불렀다. 효소대왕 때인 천수4년은 계사년(693)인데 부례랑(夫禮郞)이 살아 돌아온 기적 때문에. 다시 이름을 고쳐 만파식적이라 하였다.

5. 암곡　무장사지

▼ 암곡



· 암곡동=골짜기 안에 있는 어두운 마을이라 암곡 또는 암실
· 와동=옛날 이곳에 기와굴이 있었기 때문에 와동 또는 잿골
· 왕산=높이365m의 왕산 밑에 있는 마을로 옛날 왕이 전쟁을 피하여 머문 곳이라 왕산
· 동대봉산=동해를 향해 병풍처럼 띠를 두른듯한 산이라하여 동대봉

해발694m의 산으로 조선시대 수군의 조선용 자재림이 있던 산이였기 때문에 입산금지의 뜻으로 봉산

▼ 미타전이 있었던 무장사지(鋈藏寺址)



신라때 경주에는 사찬이 오늘날 교회처럼 대부분 도심에 있었다.

경주시 곳곳이 절터이고 불탑이어서 일연 스님은 "寺寺星張 塔塔雁行" 곧 "절들은 별처럼 뿌려졌고 탑들은 기러기 날아가는 듯 하다"고 했다.

이 말은 깊은 산속 보다는 산기슭. 산기슭 보다는 도심에 절을 많이 세웠던 것 같다. 금곡사와 무장사는 예외에 속한다. 어지간히 속세를 버리려고 작심한 사람이 아니면 들어가기 힘든 곳에 세운 절이다.

무장사는 경주 보문단지에서 산을 넘어 들어간 암곡동 에서도 한참 더 올라가야 도달할 수 있다.

경주에는 깊은 계곡이 없는 편인데 이 무장산 계곡은 예외로 깊고 경치도 수려하다.

가을날 단풍이 한창일 때 그 계곡을 타고 올라가면 단풍나무와 생강나무의 붉고 노란 단풍에 절로 감탄사가 나온다. 거기에 덧붙여 거울 같은 물이 흘러내린다.

물은 청아한 소리를 만들고 소리는 기암절벽을 만들고 기암절벽은 빛 고운 조약돌을 만들고 조약돌은 모여 소(沼)를 만든다.

그런 계곡을 한 시간 남짓 올라가야 무장사지에 닿는다.

그만큼 가마든 차든 명예와 허욕의 수레는 모두 버리고 명경지수에 마음을 깨끗이 씻은 뒤에 도달해야 하는 절이다.

"삼국유사"에도 "그윽한 골짜기는 마치 산을 깎아 놓은 듯 몹시 가파르고 어둡고 깊어 저절로 텅 비고 순박한 마음이 생겨 마음을 쉬게 하고 도를 즐길만한 신령스러운 곳"이

라고 했다. 무장사에는 시쳇말로 두 가지 “컨셉”이 있다. 그 어느 것이든 그 발원자의 절절한 마음이 감동을 준다. 신라 30대 문무왕은 삼국통일 이라는 대업을 완수했지만 온 나라가 상처투성이이고 백성은 오랜 전쟁에 지쳐있었다. 황룡사에선 백고좌를 열어 전쟁에서 죽은 원혼을 달래기에 바빴을 것이다. 문무왕은 죽음을 앞두고 유서를 남겼는데 “아래로는 부자(父子)의 원한을 갚았으며 전쟁에 존망한 모든 사람들을 추상(追賞)하여 내외의 관작을 골고루 주었고 병기를 녹여 농구를 만들게 하고.....부세(賦稅)를 가볍게 하고 요역(徭役)을 덜게 하여 집집마다 인구가 늘고.....곡식이 창고에 산같이 쌓였다”고 하였다.

자신의 치적을 정당화하려는 취지인데 수사적 표현이겠지만 “병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게 하고”는 오늘날에도 찡한 감동을 준다.

그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병기를 모아 산 속에 묻는 다분히 정치적인 행사를 벌임으로서 전쟁으로 멍든 백성에게 앞으로는 “전쟁” 이라는 낱말마저 지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것이다. 바로 그 병기를 묻은 곳이 무장산 골짜기인데 백 이삼십년이 지난 후 그 지리에 절을 세웠을 때 그런 고사가 있던터라 무장사라고 했을 것이다.

또 다른 “컨셉”은 백 이삼십년 뒤에 일어난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깊고 어두운 산속에 한 비원을 가진 여인이 찾아 들었다. 38대 원성왕의 장손인 혜충은 할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 39대 소성왕이 되는데 그는 겨우 1년 5개월 정도를 왕위를 지키다가 세상을 떠난다.

“소성대왕의 왕비 계화왕후는 대왕이 먼저 죽자 허둥대며 어쩔 줄 몰랐고 매우 슬퍼서 피눈물을 흘리며 상심하였다.

이에 왕의 밝고 아름다운 일을 기리고 명복을 빌기로 마음먹었다,“고 삼국유사에 전한다. 왕비계화는 자신의 화려한 옷과 창고에 쌓아둔 재물을 다 털어서 이름난 장인들을 불러 모아 이 무장사에 아미타불상을 조성한다. 물론 지아비 소성왕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서다.

그 사적비에는 “몰래 깊은 시름에 잠겨, 오매불망 소성왕을 그리워했다”는 기록이 있었다고 한다.

한 여인의 비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소성왕이 죽자 큰 아들이 겨우 13세 나이로 왕위에 오르니 그가 40대 애장왕이다.

안타깝게도 그는 단종처럼 삼촌 김언승의 칼에 맞아 목숨과 왕위를 다 뺏긴다. 왕위를 뺏은 김언승이 곧 41대 헌덕왕으로 지금 북천가에 묻혀있다. 계화부인의 둘째 아들도 애장왕을 호위 하다가 역시 반군에게 죽는다. 그 아래로 막내딸 장화가 있었는데, 그녀는 헌덕왕의 동생인 숙부에게 시집갔으니 그 왕이 곧 42대 흥덕왕이고 지금 안강에 묻혀있다. 장화는 왕비가 되긴 했으나 왕비가 된지 2개월 만에 죽는 기구한 운명을 맞는다. 이것이 계화가 겪었을 참화이고 비운이다. 한 여인의 운명이 이토록 처참할 수가 있을까. 남편, 두 아들, 딸까지 비명에 가거나 요절했다. 그녀가 의지할 것은 아미타불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사적비가 남아있지 않아 비참했던 역사의 속내를 다 들여다 볼수 없지만 그 비를 세운 이수와 귀부가 다행히 남아있다.

이 사적비의 정식 명칭은 “아미타불조상사적비”이다. 귀부는 두 마리 거북이 비신을 받치도록 설계했는데 지금은 머리가 떨어져 나가 완전한 모습은 알 수 없다. 목을 쭉 뺀 것

을 보고 용머리를 새겼을 것이라고 한다.

앞에서 볼 때 거북의 네 발 중 두 발을 가운데로 향하도록 하고 뒤에도 꼬리와 발이 단정하지 않아 진짜 거북 같다는 느낌이 든다.

비신 바로 아래에는 이례적으로 십이지신상을 베풀어 놓았는데 각각의 십이지신은 작고 땅딸막하고 앙증맞다. 이수에는 용트림 조각을 했고 그 가운데 “아미타불” 이라는 글자는 식별된다고 한다. 용트림은 빈 공간에 구름인지 꽃가지인지 모를 문양을 배치했는데 용이 꽃가지 사이에 노는 것 같다. 또 십이지신상과 거북등 사이의 역삼각형 공간에도 구름 같고 보상문 같은 무늬를 베풀어 이 비가 양털로 둘러싸인 것 같다.

▼ 삼층석탑



그 아래에 있는 삼층석탑은 심플한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석탑이다. 지금은 탑보다 높이 솟은 단풍든 나무의 울긋불긋한 그림자를 온통 뒤집어 쓰고 있어 마치 승복을 입은 스님이 화려한 기생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깊고 깊은 산에 있는 탑이라 놀랍고 신기하기만 하다.

2008년 12월 왼쪽 거북 머리 한 점이 인근 계곡에서 발견되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이 산 정상에 핀 억새가 장관을 이루어 수많은 탐방객의 발길이 머무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 역시 경주국립공원에 속해 있어 찾아오시는 탐방객들은 우리의 숲과 생태를 지키고 보존해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에 모든 이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곳이다.

6. 양동마을

▼ 양동마을



━ 세계 유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

양동마을과 하회마을은 한국의 성리학과 양반제도 그리고 조선 풍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마을로 한국내의 다른 마을들은 물론 국외의 비슷한 유산과 비교해도 건물들과 마을 공각구조의 독특함 등에서 탁월한 정체성을 가진 유산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양동마을과 하회마을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의 하나에 속한 점.

가장 격식 높은 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점.

마을과 건축의 완전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 점.

마을의 역사적 친연성이 강한 점 등이 높게 평가 받고 있다.

- 개관

양동마을은 15세기 말 - 16세기 중엽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 두 가문이 500년 넘게 집단으로 살아온 마을이다. 현재 양동마을이 이루어진 것은 양민공 손소(1433-1484)가 양동으로 장가와서 처가 마을에 살면서 부터이다. 아직 유교가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남자가 혼인을 하면 처자가 있는 동네에 가서 사는 풍습이 있었다.

손소에 이어 그의 사위가 된 찬성공 이번(1463-1500)도 양동의 처가로 장가를 와 그의 후손들이 처가 마을에 살면서 양동마을은 손씨와 이씨의 집성촌인 씨족마을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마을은 손소의 둘째 아들인 우재 손중돈과 손중돈의 생질(누이의 아들)인 회재 이언

적(1491-1553)이 태어나면서부터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월성 손씨 양동마을의 입향조(어떤 마을에 맨 처음 들어와 터를 잡은 사람 또는 그 조상)가 된 손소는 아들 다섯을 두었는데 양동마을의 손씨는 그의 둘째아들 우재 손중돈에서 가계가 내려온다. 손소의 딸에게 장가를 든 이번은 아들 둘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회재 이언적이다.

회재는 외가인 서백당에서 태어났다. 이언적은 성리학의 이론적 체계화에 크게 기여한 저술을 남겼으며 그의 학통은 퇴계 이황에게 이어졌다. 이런 점에서 그가 한국유학사에 남긴 업적은 지대하다.

양동마을이 양반씨족마을로 기반을 다진 것은 손소, 손중돈, 이언적 같은 걸출(남보다 훨씬 뛰어남. 또는 그런 사람)한 인물이 배출된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중엽에 이르는 시기이다.

조선 사회에 성리학이 정착하면서 신분제가 재편성 되던 시기에 손·이씨는 물려받은 안강 평야의 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 중앙 정계로 진출했기 때문이다.

먼저 마을로 들어온 손씨는 안골 깊숙한 곳에 터를 잡아 지었는데 이 집이 월성손씨의 대종가가 된 서백당이다. 이씨는 손씨 대종가에서 바로 보이지 않기 위해 안골에서 앞으로 산 능선 하나를 넘은 물봉 언덕 중턱에 터를 잡아 여강 이씨의 대종가가 된 무첨당을 지었다. 그 후 손씨와 이씨는 서로 좋은 곳에 터를 잡아 집을 지었다.

손씨 = 관과정	이씨 = 향단
수운정 정자	심수정 정자
서당 안락정	서당 강학당

세웠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마을 안팎의 좋은 터 곳곳에 솜씨있는 집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2010년 8월말 현재 135가구에 371명 (남188, 여183)이 살고있고 기와집 220동 초가집 180동 모두 486동의 건축물이 있다.

- 양동마을의 지리 환경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에 속한다. 마을은 서쪽으로 위치한 해발 163m의 설창산과 동남쪽으로 있는 해발 109m 성주봉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설창산은 마을의 주산이 되어 마을을 받치고 있고 이산의 줄기가 뻗어내려 만든 물(勿)자 형의 능선들이 마을의 네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다.

성주봉은 마을의 안산이다. 설창산과 성주봉의 능선은 마을을 감싸는 형국을 이룬다. 죽장, 기계 방면에서 흘러오는 안락천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안락천 서쪽으로는 안강 평야가 펼쳐져 있다. 양동천은 마을 안을 흐르는 작은 개울인데 마을을 통과한 후 안락천으로 흘러든다.

설창산 너머에 안계댐이 1970년에 건설되어 수량이 급격하게 줄었다.

안락천은 형산강과 합류해 동해로 흘러든다. 예로부터 형산강은 물이 깊어 포항 쪽에서 경주 방면으로 올라오는 해산물을 나르거나 해상으로 이동하기 위한 배들이 이 강을 오르내렸다고 한다.

성주봉 너머 인동마을 앞 강변에는 나루터의 흔적이 있는데 구전에 따르면 이 나루터를 통해 포항에서 올라온 해산물을 양동으로 들여왔다고 한다.

- 유래

양동마을이 있는 현재의 강동면과 안강읍은 과거 경주부에 속한 안강현의 영역이었으나 조선 중기 형산강을 기준으로 강서와 강동의 두 면으로 나뉘면서 양동은 강동면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통일신라 이래 고려, 조선시대 군현제를 기반으로 했던 지방 행정 구획으로 본다면 안강현에 속했던 마을이다.

이 마을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다만 마을의 안산인 성주봉 정상의 구릉지에 100여기의 석관묘가 있었던 사실과 이웃인 동리와 수몰지구가 되어 버린 안계리에 고분군이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이미 4, 5세기경에 상당한 정치세력을 가진 자들이 양동마을 일대에 분포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지금도 신라시대의 토기 조각과 기와 파편이 가끔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신라시대 이곳에 이미 마을이 형성되었으리라 짐작된다.

- 입지와 풍수

씨족 마을은 관아에서 일정한 거리가 떨어진 곳 주변에 논 농사를 짓기 위한 넓은 들판이 있으면서도 외부로부터 적절히 격리된 산기슭에 자리한다.

씨족 마을의 이상적인 입지는 산줄기와 물길로 아늑하게 둘러싸여 앞으로는 넓은 들을 두고 뒤로는 산줄기에 기댄 곳 즉, 배산임수한 곳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배산임수의 지형 가운데서도 남쪽으로 경사진 남사면을 최고의 주거지로 삼았다.

이러한 지형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계절풍을 뒷산으로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햇볕에 잘 드는 남쪽이 낮게 터져서 동네 전체가 환하고 밝은 터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면이 툭 터져 어느 곳에서나 잘 들여다 보이는 곳은 좋은 주거지로 여기지 않았다.

이와 같은 지형을 선정하는 원칙은 풍수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론화 되었다.

풍수에서는 마을이 기대고 있는 뒷산을 주산으로 삼아 산줄기를 통해 기운이 전해지는 것으로 보았고 앞으로 바라보고 있는 산을 안산이라고 해서 중요시 여겼다.

특히 안산은 일상생활에서 매일 대하는 산으로 그 산의 정기가 바라보는 사람의 심성을 결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안산은 바위가 뾰족한 산이나 뭉툭한 산이 아니라 알맞게 경사진 흙산을 좋은 산으로 여겼다.

대부분 문필봉, 삿갓봉, 또는 마늘봉이라 불리는 산들이 6안산으로 많이 채택되는데 나무가 무성한 부드러운 산으로 그 모양은 완만한 삼각형으로 솟아올랐다.

양동마을의 안산은 성주산으로 그 모양이 붓이나 마늘쪽, 또는 삿갓과 같아 사람의 심성을 부드럽게 해주어 마을에 범죄가 없고 학문에 대한 뜻이 높아 과거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다고 믿는다.

▼ 관가정



- 우재 손중돈 선생고택
- 보물 442호
- 1480년대 건립
- 자연과 맺고 있는 고전적 관계

우재 손중돈은 원래 종가인 서백당에서 태어나 장성한 후 관가정을 창건했다. 따라서 관가정은 서백당이 세워진 1458년보다 한 세대 뒤인 1480년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에 현존하는 살림집 가운데 임진왜란 전에 세워진 집은 10개 내외인데 양동마을에는 서백당과 관가정, 향단, 무첨당 등 임진왜란 전의 집이 4채나 있다. 관가정을 포함한 양동의 이 집들은 그 시대적 희소성만으로도 가치가 대단하다.

우재 손중돈은 차남이었지만 맏형이 장가를 들어 마을을 떠남으로써 손씨 가문의 장손이 되었기 때문에 분가 직후 관가정이 대종가로 역할하기 시작했다. 그 후 4세기가 훨씬 지난 후인 20세기 초에 원래의 서백당으로 대종가가 옮겨오게 되었다. 그때부터 관가정은 손씨 일가의 별장으로 쓰였다가 현재는 빈 채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관람하기에는 편하지만 생활이 떠나 버렸기 때문에 원래의 용도나 당시의 풍취를 느낄 수 없어 아쉽다. 그러나 관가정은 남아 있는 구조체와 빈 공간 이유를 알기 어려운 형태만으로도 대단한 작품이다.

관가정은 양동마을 초입 물봉 가장 높은 곳에 자리잡아 멀리 오뚝한 호명산을 바라보고 있다. 경사지를 넓게 깎아 단을 만들고 건물을 깊숙이 앉힌 까닭에 관가정의 모습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진입로는 갈지(之)자로 나있어서 경사는 그다지 급하지 않다. 서쪽으로 오르는 경사로는 다시 북쪽으로 꺾이게 되는데 꺾이는 지점에 큰 고목이 서 있다. 이 지점에 서면 서쪽으로 펼쳐진 안락천과 안강 평야의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관가정에 이르는 길에 있는 4채의 작은 초가집들은 외거노비들이 기거하던 가랍집(주거처인 행랑채와 외거노비들이 사는 초가)이었다. 길은 외길이고 가랍집들이 3~4중으로 통행을 감시했기 때문에 관가정은 별도의 담장이나 대문간을 둘 필요가 없었다. 지금 있는 담장과 대문은 1980년대 후반 관리를 위해 덧붙인 것이다. 특히 정면 중심축에 세운 대문은 이 집의 개념을 완전히 해치고 있는 장애물이다. 관가정은 살림집인 동시에 경관을 감상하기 위한 정자다. 이 집은 물봉과 앞의 성주봉을 잇는 자연축을 중심축으로 삼아 건축 됐다. 따라서 안마당에서 중문을 열면 앞의 잘생긴 산의 전체 모습이 정확히 중문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 세운 대문채에 가려서 산의 모습이 해체된다.

이 집의 이름은 “농사짓는 풍경을 보는 정자”란 뜻이다. 관가정 사랑채에 오르면 이름에 걸맞은 경관이 펼쳐진다. 안채에서는 중문을 통해 앞산만이 선택된 경관으로 들어오지만 사랑채에서는 앞산의 경관이 한 요소일 뿐, 아래로 전개된 들과 강의 풍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안채나 사랑채의 좌향은 같지만 경관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달리 한 것이다. 자연 뿐 아니라 농사짓는 인간들의 행위까지도 경관의 요소로 삼은 생각도 이채롭다.

▼ 향단



- 보물 412호
- 1540년대 건축
- 표현적인 형태와 터 잡기

옥산 독락당에서 6년 간 은둔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관직에 복귀한 이언적은 경상감사의 정부좌찬성 등의 고위직을 역임하면서 행복한 중년을 보내게 된다. 경상감사라는 자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이상의 지위였다. 경상감사로 재직하면서 그는 고향 가족들에게 대단한 선물을 안겨주었다. 자신의 본거지인 이씨 종가에는 무첨당이라는 아름다운 별당을 지어 주었고 유일한 동생 이언괄을 위해서 향단이라는 대저택을 지어주었다. 독락당 낙향시절의 부끄러움과 심리적 빚을 보상하기 위해서였을까?

앞서 말한 향단은 그 터 잡기, 좌향 정하기, 규모와 건축적 개념의 설정에 이르기까지 관가정과 대립적이다. 물봉 서쪽의 관가정에 대해 산등성이의 동쪽을 차지했으며 관가정의 안대와는 135도를 틀어서 다른 안대를 택했고 규모는 관가정의 두 배를 넘는다. 향단이 서기 이전 적어도 50년 전부터 있었던 손씨 대종가인 관가정에 대응하여 이씨 파종가를 이처럼 돌출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이언적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건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독락당의 조영 예를 통하여 회재는 대단한 안목을 가진 건축가였음을 입증된바 있다. 비록 자신의 후원자였던 외삼촌인 우재 선생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손씨들이 주도하는 고향 마을에 자신과 가문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선택한 건축적 과시였을 것이다. 또 그에게는 향단의 건축을 통해서 손씨 가문의 다른 집들을 양과 질 모두에서 압도할만한 건축적 실력이 있었다.

향단의 외관은 대단하다. 위치도 위치지만 일체의 장애물 없이 건물 외관 전체를 노출시킴으로서 마을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건물이 되었다. 특히 전면 지붕위로 노출된 세 개의 박공면은 사대부의 집으로는 유례없이 표현적인 형태다. 거의 보이지 않는 관가정의 박공면과는 대조적인 의도다. 사랑채 형태도 같은 의도로 파악된다. '一자형' 몸체지만, 지붕을 '工자형'으로 만들어 사랑채 정면의 지붕에 두 개의 박공면이 강하게 노출된다. 의도가 없었다면 필요 없는 형태요소다. 관가정 사랑채가 공간 요소를 도입해 구성됐다면 향단 사랑채는 박공이라는 형태조작을 통해 만들어졌다. 향단은 경사지를 두 개의 단으로 나누어 터를 닦았다. 윗 단에 주요 몸체를 배치하고 아랫단에는 긴 행랑채를 배열했다. 두 건물 사이는 거의 한 층에 가깝게 높이 차이가 난다. 또한 몸

체와 행랑채 사이를 바짝 좁혀 세웠기 때문에 몸체의 입면은 노출되지 않는다. 무표정한 형태의 행랑채 위로 긴 몸체의 지붕면과 그 위 3개의 박공면들이 더욱 부각된다.

어찌 보면 이러한 형태적 표현성을 위해서 대지의 레벨을 정하고 건물의 위치를 잡은 것 같아서 한국건축의 일반적 계획순서와는 반대의 프로세스를 밟지 않았는가. 의심이 될 정도다. 세부적인 구조기법 등에서 이 집의 표현적 의도가 절정에 달한다. 집의 기둥은 행랑채까지 모두 원기둥을 사용했다. 관가정은 사랑 누마루에 사용된 4개의 원기둥을 빼고는 모두 사각기둥을 썼다. 기둥 위에는 섬세하게 조각된 익공을 달았고 대들보 위에는 공공건물에나 어울릴 화려한 복화반과 포대공을 올렸다. 사랑채의 지붕은 부연을 단 겹처마다 모두 민간 살림집에는 금기시 되었던 최고의 장식들이다. 관가정에서 보았던 절제와 규범 대신 과시와 개성이 번뜩이는 형태들이다.

▼ 서백당



양동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서백당은 손소 양민공의 25세 되던 1458년에 건립한 월성 손씨의 종가집이다. 그러나 양민공의 차남이며 성종과 중종 때 대학자였던 우재 손중돈이 관가정으로 이사하면서 400년간 대종가의 격을 상실하였다가 20세기 전반부에 손씨 종손이 다시 이 집으로 옮겨오면서 대종가의 지위를 되찾았다.

이 집의 사랑채에는 '서백당'과 '송첨'이라는 두 개의 당호가 붙어있다. 여기에서 서백당이라는 현판은 원래 관가정 사랑채에 걸려있었던 것으로 이 글에는 참을 인(忍)자를 백 번 써서 종손으로서 인내심을 기르라는 고통의 가르침이 담겨있다. 또 송첨은 손소의 별호라는 설과 소나무 처마란 뜻으로 사랑채 앞 마당에 있는 오래된 향나무의 생긴 모습을 상징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양동마을의 입향조인 손소(1433~1484)가 집터를 고를 때 비옥한 땅에서는 큰 인물이 나지 않는다 하여 이 산의 중턱을 골랐다고 한다. 그는 이 터에 문장봉의 혈맥이 뭉쳐서 삼혈식군자지처(나라의 의식으로 제사를 지낼 3명의 군자가 태어날 터)를 이루었으므로 이 집에서 위대한 인물 셋이 태어나리라는 예언을 하였던 바 과연 그의 말대로 손중돈(1463~1529)과 이언적(1495~1533)이 나왔고 지금은 세 번째로 태어날 인물을 기다리고 있다.

마을 안골 깊숙한 곳의 산등성이에 자리잡은 입지부터 대종가다운 위엄이 있다. 그

러나 마을 아래에서는 담장만 살짝 보일 뿐 건물은 숨어있다. 대문 앞에 있는 큰 고목들 때문이다.

집의 구성은 비탈진 언덕에 잡석으로 석축을 하여 터를 조성한 다음 '一자형' 대문채를 배치하고 그 안에 '□자형' 안채를 세웠다. 사랑채는 안채와 접속되어 있으며 사랑 후원 뒤쪽 높은 곳에는 석단 및 내 후원과 구분되는 일곽의 담장을 쌓고 사당채와 산문을 건립했다.

이 집의 상징적인 건물은 사당이다. 한 가문의 종가는 제례 및 기타행사를 주관한다. 그 중에 조상에 대한 제례행사는 그 가문의 긍지이고 명예며 자존심이기 때문에 종가의 주된 건물을 사당으로 귀착된다. 이 집의 사당은 위치와 통로의 공간적 형태가 매우 뛰어나다. 대문간에서 이 집의 사당은 보이지 않는다. 사당은 뒤쪽에 높은 석축 위에 올려져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당으로 유입되는 공간적 흡입력은 은근하면서 강렬하다. 대문에 들어서면 누구든 오른쪽 마당에 있는 향나무에 무의식적으로 유인되어 사랑마당으로 향하게 되고 그 뒤 정원 위에 있는 사당의 문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당의 전체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씨 가문의 직설적이고 대담한 무첨당의 사당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 집은 사랑 대청에 앉아 동 남쪽을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답다. 나지막한 왼쪽 담장 너머로 한눈에 들어오는 성주산의 줄기와 문필봉이 일품이다. 그것은 안채 대청 마루문을 열었을 때 관조할 수 있는 후원의 아름다운 모습과 더불어 서백당 터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한껏 집 안으로 끌어들였으니 어찌 그런 집을 살아 숨 쉬는 집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서백당의 향나무



이 향나무는 서백당 사랑마당에 있다. 이 나무는 키가 7m정도이며, 옆으로 긴 가지를 우아하게 뻗어 폭은 12m에 이른다. 수령은 5~6백년 되었을 것이다.

▼ 무첨당



이 집은 여주이씨 대종가이다. 동쪽에는 사랑채와 안채가 있고 서쪽에는 별당인 무첨당이 있다. 그 사이 높은 언덕은 사당영역이다.

회재 이언적의 부친인 이번이 양동에 장가들어 이 집을 마련했고 이언적이 경상감사 시절에 별당인 무첨당을 세웠다. 이언적의 본가이며 여주이씨의 대종가로 무첨당은 회재 이언적의 맏손자 이의윤의 호를 딴 것으로 '조상을 욕되지 않게 한다.'는 뜻이다.

종가로서 무첨당의 의도는 매우 강렬하고 직선적이다. 물봉골 중간 즉 마을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사랑채와 별당 사이 가파른 언덕에 직선으로 돌계단을 설치하여 배치한 사당이 이 집의 중심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대종가임을 강하게 표현 하고 있다. 별당과 사당은 살림집과 방향을 달리해 다른 안대를 취하고 있다. 사당 앞에서 보면 이씨들의 서당인 강학당과 이씨 가문의 정자인 심수정이 환하게 보인다. 심수정과 강학당은 자신들의 대종가인 무첨당의 사당채를 안대로 잡았다. 무첨당은 'ㄱ자형' 건물로 누마루가 돌출하여 마을을 내려보고 있다. 모퉁이에 방을 배치하고 모서리 부분을 모두 마루로 처리한 것도 고전적인 수법이다. 적절한 비례를 가진 형태와 날렵한 처마선 섬세하게 조각된 초익공과 화반대공을 갖고 있는 등 최고로 장식된 건물이다. 그러나 살림채는 대조적으로 매우 소박하고 간결하다.

※ 이언적의 생애와 사상

-이언적의 생애

이언적은 성종 22년(1491년)에 경주부 양좌촌에서 아버지 성균생원 번과 어머니 손씨부인 사이의 2남 1녀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자는 복고이고 호가 회재이다. 처음 이름을 적이라 했으나 31세 때인 중종 16년에 임금이 '彦(언)자'를 내려 더 붙이게 했다.

23세 되던 중종 8년(1513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이듬해인 중종 9년에 문과별시에 급제하여 종9품으로 관직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으며 왕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인재라는 평을 받았다.

관직에 봉직하면서 활발한 저술활동도 하여 26세 때 <권학자>를 지었으며 27세 때 <오잠>을 지어 스스로 수신에 힘썼다. 이 무렵에 망재 손숙돈과 망기당 조한보와 주고받은 글을 보고 거기에 개입하여 무극태극설에 관한 논변을 펼쳤다. 즉 <서망제, 망기당, 무극태극설후>와 네 편의 <답망기당서>에서 무극 태극에 대한 논쟁을 전개했다.

그 후 회재의 관직생활은 계속되어 점차로 승진했으나 41세때 김안로의 정계복귀를 극력 반대하다가 그들 일파의 공세를 받아 성균관 사예로 좌천되었다가 결국 파직되어 향리로 내려오고 말았다. 김안로가 집권하던 6년간 회재는 향리인 안강의 자옥산 밑에 독락당이라는 정자를 짓고 소실과 함께 산수를 사랑하며 독서를 즐기는 은둔생

활을 하게 된다.

그 후 김안로가 공포정치를 펴면서 문정왕후를 폐하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유배된 뒤 사사되었다. 중종은 이언적의 충직을 생각하여 다시 그를 중용하니 대사헌과 대사성 그리고 각조의 판서 등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명종 때 양재역 벽서사건으로 강계로 귀양보내지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니 향년 63세였다.

그 위 선조 때 영의정에 추종되고 광해군 2년에 옥산서원에 배향되었다.

7. 남산에서 바둑바위(이야기가 있는 남산 트래킹)

<남산 삼릉에서 바둑바위까지에 대하여>

- 남산

남산! 왜 남산일까?

남쪽에 있는 산이다. 하지만 방향을 얘기할 땐 정확히 기준이 있어야 한다.. 가장 높으신 분이 사는 곳을 기준으로 삼아 남쪽에 있는 산이다.

그럼 그 기준은? 신라시대 때부터 남산이라 불렀기때문에 가장 높은 임금님이 사는곳?

어디?월성, 지금은 반월성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다하여 남산이다.

또다른 이름이 있다. 하늘에서 보면 마치 큰거북이가 임금을 향해 절을하고 있는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금오산이라고 한다. 여기서 '오'자는? 큰거북이(자라)鰲자를 쓴다.

그리고 남산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문화재이다.

세계문화유산이란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유네스코에서 지정하고 있는 문화유산 즉, 자연과 문화가 공존해야 하는 부동산이다. 우리나라에는 모두 9개가 있고. 그중3개가 경주에 있다.

토함산국립공원에 있는 석굴암과 불국사가 1995년 우리나라에서 가장먼저 등재가 되고 2000년 경주역사유적지구(5개지구-대릉원/월성/산성/황룡사/남산)남산이 들어간다.(2010년 경주 양동마을)

산은 자연? 인간? 누가만들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에 들어간 이유는 천년전 신라사람들이 바위며 절벽에 부처님을, 곳곳에 절터를, 양지바른곳에 탑을 자연의 훼손을 최소하여 부처님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염원을 볼수가 있다. 지금껏 찾은 부처님120여분. 절터150여군데, 탑100여기등등 전체문화재가 700여점이 남산에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산전체가 문화유산!! 입장료안내고들어가는 노천박물관!!!

천년신라의 고도 '경주' 많이 들어 본다.

그런데 경주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유는

국립공원 즉, 우리나라에서 대표할만한 자연환경을 나라가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20개 국립공원중에서 지리산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지정이 되었고 경주만 유일한 사적형국립공원으로 역사. 문화. 해설을 함께 들을 수 있다.

- 찔레

5~6월 삼릉은 하얀색, 노란색 꽃들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하얀색의 꽃을 피우는 찔레 나무다. 겉모습만 보면 "이 조그마한 것이 나무야?" 라고 궁금증을 가지게 될 텐데. 소나무처럼 키가 큰 나무를 '교목(喬木)'이라고 하고 이렇게 찔레나무처럼 키가 작은 것을 '관목(灌木)'이라고 부른다.

꽃만 보지 말고 조금 더 다가가서 찔레나무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자. '나를 만지지 마세요.'라고 경고라도 하듯 장미처럼 날카로운 가시들이 있다. 찔레꽃 향기도 한 번씩 맡아 보자. 살짝 오이향이 나는듯하다. 이른 봄철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새로 나

는 줄기를 꺾어 먹기도 했었고. 찔레나무의 빨간 열매는 박새와 같은 새들이 좋아하는 먹이라고 한다.



찔레나무의 씨앗 이동은 열매 색깔이 빨개서 새들이 하늘을 날다가도 잘 알아 볼 수 있다. 새들은 빨간 열매의 맛있는 과육만 먹기 때문에 새똥에는 찔레나무 씨앗이 남아 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을 따라 찔레나무 씨앗이 함께 날아다니며. 새는 날아가면서 배설을 한다.

새 배설물과 함께 어딘가에 떨어진 찔레의 씨앗은 그곳에서 싹을 틔워서 큰 찔레 나무로 자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찔레나무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씨앗을 이동시킨다.

- 소나무

삼릉이다. 세 개의 무덤이 있어 이곳을 삼릉이라고 부른다. 주위를 둘러보면 굽어진 소나무도 보이고 곧게 자란 소나무도 보인다. 이렇게 삼릉 주변에는 소나무들이 많이 있다.

소나무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옛 선비들의 그림이나 글에도 종종 등장하기도 하여 우리나라 문화를 소나무 문화라고도 한다.

우리 옛 선조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잡귀들이 못 들어오게 대문 앞에 볏짚으로 만든 금줄을 달고 거기에 소나무 가지와 잎을 걸어두었으며,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로 만든 관을 사용했을 만큼 우리와 굉장히 친숙한 나무다.

밑에 떨어져 있는 잎을 하나씩 주워보면 뾰족한 바늘잎이 2개가 한 묶음이 된 것은 소나무이다. 다른 이름으로 줄기가 붉다고 적송(赤松), 육지에서 자란다고 육송(陸松)이라 부르기도 한다..

바닷가 근처에도 소나무가 많이 자라는데 자세히보면 여기 소나무는 껍질이 붉은색이지만 바닷가에 자라는 나무들은 껍질이 검은색을 띠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검은 솔나무(黑松)라고 하여 곰솔이라 부르고 바닷가에서 주로 자란다고 하여 해송(海松)이라고도 부른다. 곰솔도 소나무처럼 바늘잎이 2개인데 손으로 만져보면 소나무보다는 좀 더 억세다고 한다.



소나무와 곰솔 이외에도 바늘잎나무 종류가 많은데. 바늘잎 개수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소나무 종류 몇 가지를 더 알아보면 나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바늘잎 5개가 모여 나는 나무가 있다. 바로 고소한 잣이 열리는 잣나무이다. 잎이 5개 달린 소나무라고 하여 오엽송(五葉松)이라고도 한다. 나무 껍질은 회갈색이고 소나무나 곰솔보다 잎이 약간 더 긴데 중남부지역에 많은 소나무에 비해 중부이북지역에 많이 자란다.

그리고 길가나 산기슭에 소나무처럼 생겼는데 줄기에 잎이 듬성듬성 나는 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헐벗은 산을 푸르게 하기 위해 조림용으로 도입해 온 리기다소나무이다. 이 나무는 짧은 바늘잎 3개가 모여 난다.

도시를 빠져나와 한적한 교외의 푸르른 숲에 들어서면 상쾌한 공기가 가득한 듯하고 조금만 걷고 있어도 풋풋한 향을 맡을 수 있을텐데, 이 풋풋한 향의 정체가 바로 '피톤치드'라고 불리는 물질이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주위의 해로운 미생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발산하는 일종의 자기 방어 물질인데 인위적으로는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숲의 정기 (精氣)'라고도 한다. 활엽수보다는 소나무류 같은 침엽수에서 많이 방출되는데 이렇게 피톤치드를 마시는 것을 산림욕이라고 한다.

요즘 산림욕이 건강에 좋다고.하여 해수욕, 일광욕과 함께 건강삼욕 (三 浴)이라 불린다. 산림욕은 다른 말로 녹색 샤워(green shower)라고도 한다.. 산림욕은 보통 오전 6시부터 낮 12시를 전후해서 하시면 가장 효과가 좋고. 특히,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수험생이나 직장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심폐기능 강화, 신경안정 및 혈압강하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소나무 잎은 겨울이 되어도 떨어지지 않고 있어 4계절 내내 잎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소나무는 잎이 난 뒤 2년 후에 떨어진다.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새잎이 돋으면 지난해에 났던 솔잎은 낙엽처럼 누렇게 되어 떨어지지만 새 솔잎이 그 푸르름을 간직한 채 나무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늘 푸르게 보이는 것이다. 헌 잎이 떨어질 때 쯤 새잎이 나오기 때문에 잎이 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소나무 주변에 다른 식물들이 없고 누런 솔잎들만 보이는것은 솔잎은 다른 나뭇잎과는 달리 잘 썩지 않는다. 솔잎 속에 잔뜩 들어 있는 끈적끈적한 송진이 잎을 썩지 않게 해주며 멀리서 다른 식물의 열매가 이사
온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솔잎이 떨어져 쌓이면 햇빛을 받지 못해 죽게 된다.

- 남산의 전설

신라시대에는 경주를 서라벌, 또는 새벌이라고 불렀는데 복되고 성스러운 땅이라는 뜻이다.
이곳 남산은 신라인들의 신앙의 대상지이며 성지로 여겨졌던 신성한 산이었다.
아주 옛날 새벌은 산이 없는 평지였는데, 어느 날 동네처녀가 빨래를 하고 있다가 두 신(神)이 새벌로 찾아 온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산 봐라!!”라고 외쳤다.
“산과 같은 사람 봐라!” 라고 해야 할 것을 너무 놀라 “산!! 봐라” 라고 한 것이다. 발아래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에 놀란 두 신은 발을 멈추었고 산으로 변하게 되어 다시는 발을 옮길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남신(男神)은 바위와 붉은 흙으로 울퉁불퉁한 골짜기를 모아 쭉 뻗은 지금의 남산이 되었고, 여신(女神)은 남산 서쪽에 아담하고 부드러운 망산이 되어 서로를 마주보며 정답게 솟아 있다.

남산은 금오봉과 고위봉 두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데 금오봉은 높이가 468m, 고위봉은 494m로 최고봉이다.

- 역사적 의의

신라인들은 남산의 바위 곳곳에다 수많은 마애불과 탑을 만들고 절을 세웠다. 또한 남산은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BC57)가 남산기슭 나정이라는 우물가에서 태어났으니 나라의 시작을 알린 곳이며 포석정은 신라역사의 마지막을 알린 장소로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곳이다.



<나정 발굴현장>

그러므로 남산은 신라의 시작과 끝을 알린 신성한 산이자 신라인들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드리며 숭배했던 성스러운 산이기도 했으며, 계곡마다 숨겨진 이야기가 있고 문화재가 있어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지루하지 않는 곳이 바로 남산이다.

- 배리의 유래

이곳을 배리삼릉이라 불려지게 된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신라시대에는 불교를 많이 숭상하여 부모의 기일에는 반드시 인근절의 스님을 청해서 불공을 드리는 것이 상례였다. 그래서 기일을 승재라고도한다. 서울에 한 늙은 유렴이라는 재상이 있었는데 부모의 기일이 되었으므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에게 부탁해서 고승을 모시고와 승재를 올리기로했다. 당일이되어 고승이라고하는 한 스님을 모시고 왔는데 어느면으로 보나 고승같지 않아 화가난 그가 “네가 무슨 고승이냐!” 하며 소리치며 꾸짖었다. 그러자 스님은 말없이 일어나 소매를 떨치니 그 속에서 한 마리의 사자가 뛰어 나왔다.

스님은 사자를 타고 하늘 높이 솟아 올라 가는지라 재상은 자기의 경솔했음을 깨닫고 맨발로 쫓아 갔으나 고승은 사라 산으로 들어가 숨어 버렸다. 재상은 자기의 잘못을 빌면서 종일 절을 하였다. 하여 이를 보고 사람들이 후일 拜(절, 배)자를써 배리라 불렀다. 지금은 행정구역지명으로 “배동” 으로 바뀜

- 냉골

입구에 오면 노송들이 우거져있어 좋은 인상을 주는 곳이기도 하다. 이 계곡은 금오산 정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보통 삼릉계라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잦밭골이고 상류는 여름에도 항상 시원한 물이 흐르고 찬바람이 불어 냉골이라고 불러지게 되었다.

남산 4~50개나 되는 골짜기들 중에서도 유적지와 유물이 가장 많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계곡이다.

- 삼릉에 묻힌 왕들

입구에 오면 노송들이 우거져있어 좋은 인상을 주는 곳이기도 하다. 이 계곡은 금오산 정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보통 삼릉계라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잦밭골이고 상류는 여름에도 항상 시원한 물이 흐르고 찬바람이 불어 냉골이라고 불러지게 되었다.

남산 4~50개나 되는 골짜기들 중에서도 유적지와 유물이 가장 많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계곡이다.

- 무덤 양식



천년신라의 고도 "경주"라 그만큼 왕도 많았다.
신라는 56대 (고려34대백제31대고구려28대조선27대..)역대왕의 성씨를 알아보면 신라는 박,석,김,세성만 왕이될수있었다. 박혁거세를 비롯한 박씨10분 ,석탈해를 비롯한 석씨8분, 나머지 김씨는38분이다.

삼릉은 8대아달라왕 53대신덕왕 54대경명왕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무덤이다.

도굴꾼때문에 가운데 53대 신덕왕릉은 두 번이나(1953년과1963년)도굴을 당했다. 내부구조는 굴식돌방무덤으로 기어들어가면 돌로만든방이 있고 그안에 채색한 흔적이 있었다

무덤은 죽은 사람의 집이다. 죽은 사람의 집을 함부러 들어가면 안된다!

현재 위치에서 옆으로 50m정도만 이동하면 신라 제55대 경애왕릉도 이곳에 있다.

- 진달래의 전설

이른 봄 여기 삼릉 주변에는 진달래꽃이 하늘하늘 피어오른다. 봄의 전령사 진달래는 산성토양에서 생존력이 강해 경쟁자 없이 세력을 확장하며 잘 살 수있다. 특히 소나무 숲이 내놓는 방어물질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전 헐벗었던 산성토양인 산에는 키 큰 소나무 숲 아래 키 작은 진달래들이 어우러져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진달래는 중국 촉나라 망제(望帝)인 두우(杜宇)가 위나라와의 싸움에 패한 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지 못 하고 죽자 두견새가 되어 밤새 울어 피를 토한 것이 진달래의 꽃잎에 떨어져 붉은색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데, 진달래로 담근 술을 두견주(杜鵑酒)라고 부르는 것도 이 전설에서 비롯된 것이라한다.

- 진달래와 철쭉

진달래와 철쭉의 구별은

진달래와 철쭉 모두 진달래과의 생김새가 비슷한 식물이기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3~4월경 꽃만 덩그라니 핀다면 진달래고 잎과 꽃이 같이 있다면 철쭉이다. 진달래는 꽃이 질 때쯤 잎이 나고 철쭉은 잎과 꽃이 같이 나기 때문에

철쭉의 꽃보다는 진달래 꽃을 더 빨리 볼 수 있다.
또, 진달래 잎은 마름모 꼴의 끝이 다소 뾰족한 형태지만
철쭉은 둥근 계란형의 잎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꽃이 진 뒤에도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 철쭉
철쭉이란 이름은 꽃이 아름다워 나그네의 걸음을 머뭇거리게 한다는 '척촉(躑燭)'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연분홍색 꽃이 핀다고 해서 '연달래'로 부르기도 한다.

진달래 꽃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참꽃'이라 부르는데 철쭉에는 독성이 있어서 잘못 먹으면 구토를 일으키거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겠다.
산행을 하다 보면 앞만 보고 아래쪽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 때죽나무 이름의 유래
때죽나무
때죽나무란 이름의 유래에는 나무껍질이 때가 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얼마나 오래 안 씻으면 이렇게 될까? 때죽나무는 아마도 엄청난 게으름뱅이인가 보다.
유래에 관한 다른 얘기로는 때죽나무의 열매와 잎에 사포닌류의 마취성분이 강한 물질이 들어있어 이것들을 잘게 빻아 고인 물이나 웅덩이에 뿌리면 물고기들을 떼로 기절시켜 잡았다고 해서 붙여졌다고도 한다.



나무사이로 들어와 올려다보면 하늘의 별처럼 총총히 보이는 꽃들이있다.
때죽나무는 5월 경 흰 종모양의 꽃이 피는데 서양에서는 '종 모양의 흰 눈'이란 뜻의 Snowbell, 혹은 '눈송이 꽃'이란 뜻의 snow-flake flower라고도 부른다.

- 이름의 유래와 종류

옛날에는 요즈음처럼 거리를 알려주는 어떤 표시가 없어서 대략 5리(里)마다 오리나무를 심어 이정표로 삼았다고 해서 오리나무란 이름이 붙여졌는데
사방팔방오리나무 십리절반오리나무 이런 말도 있지만 요즈음은 아쉽게도 오리나무를 쉽게 볼 수가 없다. 대신 사촌쯤 되는 물오리나무나 사방오리는 자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예전에 나무가 없어 헐벗은 산을 푸르게 하기 위해 조림용으로 많이 심었기 때문이란다.
오리나무 종류는 다 자라면 20m까지 크는데 꽃은 잎이 나기 전인 이른 봄에 핀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꽃가루가 쉽게 잘 날리는 수꽃 이삭이 가지 끝에 축 늘어져 달리는데 그 둘레에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붉은색 암꽃이 같이 핀다. 잎은 꽃이 질 무렵에 길쭉한 타원형으로 난다.



- 봄을 알리는 생강나무

보통 도시에서 봄의 전령사로는 개나리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산에서는 봄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는 나무가 생강나무라고한다.

이른 봄 샛노~란 꽃이 피는 생강나무인데.

가지나 어린잎을 따서 손으로 비벼 냄새를 맡으면 생강 냄새가 난다고 하여 생강나무라고 이름 붙여졌다. 3월경 동그란 꽃망울이 벌어지면서 꼭 우산 모양처럼 작은 꽃들을 뭉쳐 달고 나뭇가지에 올망졸망 납작하게 붙어난다.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양념으로 쓰는 생강보다도 생강나무가 먼저 자라고 있었다. 우리 조상들은 생강나무 잎을 말려 생강 대신 향신료로 쓰기도 하였고, 동백나무가 자라지 않는 중북 이북 지방에서는 동백나무 대신 생강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서 머릿기름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생강나무를 산동백 혹은 동박나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는 문학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는데. 강원도 춘천이 배경인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에 나오는 동백꽃도 사실은 생강나무 꽃을 말하는 것이고 정선아리랑에도 '동박'이라고 표현한 생강나무를 볼 수가 있다.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사시 장 철 임 그리워 나는 못 살겠네
아우라지 지 장구 아저씨 배 좀 건네 주게
싸리골 올 동박이 다 떨어진다.

생강나무와 산수유는 이른 봄 비슷한 시기에 꽃을 피우는데 꽃모양도 비슷하고 같은 노

란색이라서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 하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각기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있다. 생강나무는 작은 꽃송이를 달고 있는 꽃자루가 짧아서 꽃이 가지 끝에 바짝 붙어 있는 모습인 반면, 산수유는 꽃자루가 길고 생강나무보다 꽃송이가 작아서 성글어 보인다. 또한 나무줄기의 껍질이 너덜너덜하게 벗겨져 있으면 산수유다.



이것도 어려우면 산에서 보이는 건 생강나무고 마을 가까이나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건 대부분 산수유라고 생각하면 된다.

- 단풍이 드는 이유

그런데 여름 내 푸르른 잎들을 간직하고 있던 잎들은 왜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 단풍이 드는 걸까?



나뭇잎에는 녹색의 엽록소 외에도 빛을 흡수하는 색소인 70여종의 카로티노이드가 있는데. 봄과 여름에는 많은 양의 엽록소에 가려져 초록색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서서히 기온이 내려가고 빛이 적어지면서 공기 또한 건조하게 된다.

그러면 잎에 수분부족 현상이 생기게 되어 나무는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없이 활동을 멈추게 됨으로써 붉은색을 띠는 카로틴과 노란색을 띠는 크산토필 그리고 안토시아닌(붉은색소)과 같은 색소가 엽록소(초록색소)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빨갛고 노란 색소가 눈에 띄게 드러나기 때문에 단풍이 드는 것이다.

-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삼릉계 석조여래좌상은 삼릉골에서 처음 만나는 불상인데 머리와, 손, 대좌가 잘린 모습이다. 원래 계곡에 묻혀 있던 것을 1960년대 답사 온 학생들에 의해 발견되어 현재 위치로 옮겨 놓았다고 하며. 불상이 앞쪽으로 묻혀 있었기 때문에 가사, 옷주름이 매우 선명하게 남아 있어 역사적으로 의의 있는 불상이다. 신라시대부터 매듭을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석굴암의 부처님이 입고 계신 옷을 한 번쯤은 봤을 텐데. 석굴암의 부처님 옷은 살결이 비치는 듯이 돌을 조각하여 얇게 표현을 하였다. 조각기술이 발달 할수록 불상을 표현 할 때 옷이 얇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돌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 되었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곳의 석불좌상의 옷은 양 어깨에 걸쳐져 있는데 이런 옷차림을 통견이라고 한다.

남산에는 불상이 많이 있는데 얼굴부분이 없는 불상이 가끔 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사람에 의해 훼손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적다. 일본사람들은 옛날부터 문화재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져가려고 하지 파괴하려고 하지 않는다. 학자들에 따르면 숭유억불정책에 의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태풍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불상이 계곡으로 굴러 떨어지다가 약한 목 부분이 잘려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기도 한다.

삼릉계 석조여래좌상에는 아랫부분에 홈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광배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그 아래쪽으로는 지상부와 수평이 되도록 다듬은 흔적이 있는데 바위에 박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곳에는 부처님 외모와는 상관없이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이 저마다 소원을 빌며 조그마한 사탕 하나라도 올려놓는데 아마도 그 만큼 부처님 앞에서 소원을 비는 마음을 표현한 것 같다.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 마애불의 특징

앞서 배리마을 이름 유래에 관한 설화에서 스님이 사자를 타고 남산으로 올라가 바위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 신라 때 사람들은 바위를 숭상하고 바위에도 부처님이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그래서 배리이야기 같은 설화도 생겨나고 새겨놓은 불상을 보면 바위에서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것 같은 형상이 많은 것 같다.

남산에는 마애불이 많이 있다. 마애불은 갈 마(摩), 벼랑 애(崖) 자를 써서 절벽바위에 새겨 놓은 불상을 말한다. 이런 마애불의 특징 중 하나는 훼손이 적다는 것인데. 아래쪽에 있는 여래좌상 같은 경우에도 큰 바위를 이용해서 만들었지만 목이나 손처럼 가늘고 약한 부분이 있어 손상이 될 수도 있었지만, 마애불은 바위에 거의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불상 보다는 훼손이 거의 없이 안전하게 보존이 되고 있다.

- 마애관음불

여기 계시는 분은 관세음보살 이다. 그럼 관세음보살은 누구일까? 우리가 흔히 사찰에 가서 기도를 드릴 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한다.


<마애관음보살상>

여기서 '나무'란 말은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고 '아미타불'은 극락세계를 다스리시는 부처님이시고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중생의 고통과 신음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구제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을 말한다. 이러한 관세음 보살님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손과 눈이 부족할 정도다. 그래서 손이 천개 눈이 천개 달린 관세음보살도 있다. 이곳의 관세음보살은 미소를 담은 입술에 붉은 색이 남아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

여기 관세음보살은 바위 앞면을 조금 다듬고 돋을새김을 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머리에 쓴 보관에는 화불이 새겨져 있으며 목걸이 팔찌 등의 장식도 하고 손에는 감로수를 담은 정병도 들고 있다. 저녁 황혼 무렵에 오면 황금빛으로 물든 관세음보살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 이곳에서 기와조각이나 건축물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아마도 지금처럼 자연그대로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 같다.

- 버섯은 어떻게 살까?

버섯은 곰팡이의 일종이다. 그래서 식물처럼 꽃을 피우거나 사람이나 동물처럼 무언가를 먹고 힘을 얻지는 않는다. 그러면 버섯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버섯은 직접 영양소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거나 죽은 동·식물에서 양분을 흡수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눈으로 보는 버섯은 사실 식물로 치면 꽃에 해당되는 것인데 꽃에서 꽃씨가 날리듯이 버섯에서도 포자를 날려서 번식한다.

- 무작정 버섯을 먹으면 위험해요!

송이, 느타리, 표고버섯 등 산이나 들에 다니다 보면 땅 위나 썩어가는 나무 근처에 버섯이 나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간혹 몸에 좋다고 해서 약용으로 버섯을 채취하거나 산행 중 발견한 버섯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조심해야된다.



왜냐하면 식용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독버섯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버섯은 약 1500여종이 있는데 그 중 독버섯은 50여종, 이중에서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버섯은 20여종에 불과하지만 식용하는 버섯은 극히 일부이고 또 독버섯과도 비슷하게 생긴 버섯이 많아 만약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잘못 알고 먹게 되면 복통, 구토, 환각증상을 유발하고 간이나 신장을 손상시켜 병원신세를 지거나 심하게는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한다.
인터넷이나 항간에 알려진 독버섯을 구별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가급적이면 산이나 들판에서 딴 버섯은 안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국립공원 내에서는 버섯을 비롯한 산나물 등의 임산물 채취를 금지하고 있고 야생동물의 먹이나 자연생태계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니 그냥 보는 것 정도로 만족해야한다.

- 나비

아름다운 날개가 인상적인 나비는 전체 곤충의 1/4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수가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우리 조상들은 호롱불을 켜는 등잔대나 옷을 넣는 장롱의 경첩, 손잡이 등에 나비문양을 이용할 정도로 나비를 친숙하게 여겼고 나비라는 이름도 나불~나불~ 날아다니는 모습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영어로 버터플라이(Butterfly)라고 불리게 된 것도 노랑나비를 본 영국인들에 의해 노~란 버터(butter)를 닮은 것이 날아(fly)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 붙여진 것이라고 하는데 발상이 참 재밌다!



- 나비와 나방

나비와 비슷하게 생긴 게 나방인데. 실제로 나비는 전체 나방 수의 1/10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대부분 나방일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낮에 활동하는 것이 나비, 밤에 활동하는 것이 나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박각시 종류나 깜둥이창나방, 뿔나비나방, 애기나방 같이 낮에 활동하는 경우도 있으니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나방은 흔히 독나방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해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나방 중에서도 사람이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로 누에나방이다. 요즘은 여러 기능성 좋은 섬유들이 많지만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명주실로 짠 옷은 촘촘하고 촉감이 부드러워 예로부터 고급 옷감으로 쓰였고 또 심심풀이 간식으로 인기가 높았던 번데기도 누에나방의 번데기란다.

- 다람쥐

다람쥐다! 숲속에 들어와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동물이다. 혹시 도토리를 가지고 땅 속 굴로 들어가 버린 다람쥐를 본 적은 있는지?
낮에만 활동하는 주행성동물이며 도토리나 밤을 즐겨 먹고 잎사귀가 넓은 참나무 숲이나 바위가 많은 돌담 같은 곳에 산다. 눈은 크고 검은색이며 볼에 주머니가 달려있어 잔뜩 먹을 것을 넣어 운반까지 할 수 있는 동물이다.

다람쥐는 가을이 오면 겨울잠 잘 준비를 하는데 땅속 깊이 긴 굴을 파고 보금자리를 만든다. 다람쥐는 땅속 집에 잠을 자는 방은 물론이고 먹이 저장 창고까지 따로 두어 볼주머니를 이용해 입 안 가득히 도토리와 같은 열매를 넣어서 창고 안에 저장해 놓고 두고

두고 먹는다.

꼬리는 다람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 번째는 나무 사이를 이동하거나 나무 위를 올라갈 때 꼬리를 이용해 균형을 잡고, 두 번째는 다른 다람쥐에게 '나 여기 있어'라고 꼬리를 올려 신호를 전달하며 세 번째는 잠을 잘 때 몸 전체를 꼬리로 덮어 체온을 유지한다고 한다.



- 청설모

청설모는 다람쥐의 가족이다. 다람쥐와 청설모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1층 에는 다람쥐가 살고 2층에는 청설모가 나무위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다.

청설모는 잣나무가 생산해내는 잣과 밤나무가 생산해내는 밤을 먹고 사는데 겨울잠을 자지 않고 추운 겨울에도 꿋꿋이 살아간다. 이유인즉 청설모에게는 옷이 두벌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도 여름에는 반팔로 된 얇은 옷을 입다가 겨울이 되면 긴팔과 두터운 외투를 입듯 청설모는 여름에는 회갈색의 옷을 입고 있다가 늦가을로 접어들면서 새까만 색의 털옷을 입는다.

- 청설모와 다람쥐의 대화

청설모 : 난 너무 억울해. 사람들이 날 외래종으로 알고 미워하는데 나도 대한민국 토종이라구. 그리고 내가 친구인 다람쥐 널 잡아먹는다는 소문도 있어.

다람쥐 : 말이 좋아 친구지! 네가 날 잡아 먹진 않지만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있으면 와서

뺏어 먹잖아 키가 20cm정도인 나보다 넌 5cm나 더 커서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청설모 : 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람쥐 너처럼 겨울잠도 안자고 집도 높은 나무 위에 지어 힘과 담력을 키우고 있지.

다람쥐: 청설모 네가 힘을 키울 때 난 예뻐지기 위해 겨울잠도 자고 방 두 개짜리 집을 만들어서 하나는 화장실 하나는 침실로 쓰지. 그래서 너보다 청결하고 예쁘지.

청설모 : 다람쥐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도 중재 해줄 수 있는 하늘날다람쥐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다람쥐 : 자연이 많이 파괴돼서 여길 떠났어. 나중에 좋아지면 다시 돌아오겠지?

청설모 : 그래 예전에 비해 환경이 많이 오염 됐지.
맞아 자연이 예전 같지 않아.
여우와 담비를 피해 놀던 때가 좋았어.
우리 다람쥐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 청설모와 다람쥐의 건망증

다람쥐와 청설모에게는 건망증이 있다.
특히 겨울잠을 자는 다람쥐는 심한 건망증이 있다.
겨울이 되기 전 다람쥐는 어느 때보다도 바쁘다.
이유는 겨울잠을 자기 전 먹을 것을 저장창고에 넣어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람쥐는 바쁘게 먹이를 찾아 입에 넣고 있는 것도 모자라 자고 일어나서 먹으려고 여러 곳에 땅을 파고 도토리를 숨겨 놓는다.. 그리고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람쥐만의 방법으로 흙으로 도토리를 숨기고 또 흔적을 없애기 위해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는다. 하지만 다람쥐는 봄이 되어 도토리를 찾으려 하지만 어디에 숨겨 놓았는지 까맣게 잊어버려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땅속에서 씨앗이 나와 참나무가 되는 것이다.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귀엽다고 만지면 큰일난다.

- 선각육존불

여기는 큰 바위 면에 새겨진 여섯 분의 부처님을 뵙는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부처님의 모습인데 부처님과 보살을 선각으로 새겨 놓았다. 선각이라는 것은 선으로 쪼아 그림이나 무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선으로 조각한 부처님이 여섯분 계신다 해서 선각 육존불이라고 부fms다.

왼쪽 바위에는 서방극락세계를 관장하는 아미타불을 새겨놓았으며 아미타 좌우에는 각각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아미타불을 향해서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는 모습이다. 관세음보살은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중생들에게 한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 보살이며 대세지보살은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비추어주는 극락세계에 있는 보살이다.

오른쪽 바위에는 석가모니불이 새겨져 있다. 석가모니는 불교의 창시자로 인도 고대왕국인 카빌라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다. 하루는 성문 밖에서 고통에 신음하고 늙고 병들어 있는 사람의 생애가 고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과 태자의 자리도 버리고 출가하여 6년의 고행 끝에 보리수 나무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 후에 불교가 전파 되고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은 큰 성인으로 숭상 받는다.

사찰에 가면 대웅전이란 법당이 있다. 큰 영웅이란 뜻인데 큰 영웅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은 곳이다. 대부분 석가모니 좌우에는 각각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새겨 놓았다.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지혜를 대변하는 보살이고, 또한 '반야경'이라는 경전을 모아서 편찬한 보살로도 불리어 진다. 그리고 보현보살은 문수보살과 함께 모든 보살의 으뜸이 되며 불교의 진리와 수행의 덕을 맡으면서 언제나 부처님이 중생들을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삼릉계 선각육존불>

선각 육존불에 새겨져 있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에 각각 서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왼쪽 바위에 새겨진 아미타불과 오른쪽 바위에 새겨진 석가모니불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석가모니불은 앉아있고 좌우의 보살들은 서있는 반면에 왼쪽 바위면의 아미타불은 서있고 좌우의 보살들은 앉아 있다. 아미타불이 서있는 이유는 다른 곳과 달리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위하여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자세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 선각육존불

바위 위에는 훼손을 막기 위해 빗물을 옆으로 돌렸던 배수구가 아직도 남아 있고 지붕의

기둥을 세웠던 흔적도 남아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각 육존불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형태의 지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각 육존불을 보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이 신라의 뛰어난 불교 미술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선으로 조각된 불상은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중요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잊지말자.

- 선각여래좌상
여기 있는 불상도 마찬가지로 선각으로 조각된 불상이다. 여기 보이는 바위는 약10m되는 바위에다 부처님을 또 한분 새겨 놓았다.
불상과 대좌는 바위에 자연적으로 생긴 긴 가로의 균열을 이용하여 나뉘어져 보이도록 조각해 놓았다. 남산에 있는 다른 불상들과 다르게 삼릉계 마애 선각여래좌상은 유일하게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각기법이 정교하지 못한 못난이 불상이지만 신라시대 불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처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입술이 두텁고 얼굴 표정이 투박하고 소박한 느낌을 주어서 다른 불상에서 나타나는 세련되고 단정한 얼굴 모습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불상이다.
또한 이곳의 불상을 잘 살펴보면 연꽃위에 앉아 계시고 손모양은 왼손과 오른손의 가운데 손가락과 첫째 손가락을 마주보게 하고, 왼손은 손바닥이 위로 향하도록 해서 오른 팔목에 오른 손바닥을 밖을 향하도록 하였는데, 이런 불상의 손모양 즉 수인을 설법인(說法印)이라고 부른다.
불상의 옆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닮은 바위가 있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곳 바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경주의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어 잘 볼 수 있다. 이곳은 남산에서 경관이 좋은 곳 중 하나이다.



- 참나무 이름의 유래

다람쥐, 반달가슴곰, 청설모가 제일 좋아하는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 진짜나무라고 해서 흔히 참나무라고 부르는데. 참나무는 사실 6종류가 있는데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이다.

뭔가 복잡한 것 같지만 제각기 이름에는 다 사연이 있다.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 모두들 피신 해 있을 때 먹을거리가 굉장히 귀했다. 임금님께 어떤 음식을 올려야 할지 막막했던 수라간 사람들은 고민하던 차에 도토리묵을 만들어 임금님께 올렸는데 궁으로 돌아와서도 그 맛을 잊지 못해 항상 수라상에 도토리묵이 올랐다고 한다. 그 묵이 바로 상수리나무의 도토리인데.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온 나무라 해서 상수리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또한, 옛날에는 요즘 같이 좋은 신발이 없었기 때문에 볏짚으로 만든 짚신을 많이 신었는데. 특히 봇짐장수들은 먼 거리를 걸어야 했기 때문에 항상 짚신을 하나 더 챙겨서 다녔지만 봇짐장수의 짚신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빨리 바닥이 망가져 어떻게 하면 오래 신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참나무 잎으로 바닥에 덧대어 신으니 오래 신을수 있어. 그때 사용된 참나무가 바로 신갈나무다.

앞서 얘기한 참나무 중에 잎이 가장 크고 넓적하게 생긴 것이 떡갈나무다.

지금과 같은 방부제가 없던 시절에 끼니를 때우기 위해 떡을 가지고 다녔다. 그런데 날이 더운 여름에는 떡이 쉽게 상하는데 이 떡갈나무 잎에다 떡을 싸서 다녔더니 덜 상했다고 한다. 연구결과 떡갈나무 잎에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다고 한다. 떡을 찔 때 바닥에 깔아 사용하기도 했다.

굴참나무는 나무껍질에 코르크층이 발달해서 손으로 눌러보면 다른 참나무 종류와는 달리 약간의 푹신푹신함이 느껴지는데, 골(고랑)이 패는 참나무라고 해서 굴참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다. 유럽에서는 굴참나무의 푹신한 나무껍질을 이용해서 와인병의 코르크마개를 만들기도 하고 굴참나무는 보온과 방수가 뛰어난 특징을 이용해서 지붕을 덮는 용도

로 쓰기도 했다.
또, 갈참나무는 가을에 단풍이 예쁘게 들어 가을의 참나무란 뜻에서 유래되었고 졸참나무는 잎이 참나무 중에서 제일 작아 쫄병 참나무란 뜻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 참나무 6형제



- 도토리
도토리는 엉덩이에 도톨도톨한 깍정이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듯
크기가 고만고만하고 1~2cm로 작아서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생겼는데.
도토리는 매년 열리는 것도 있지만 익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다.
상수리나무나 굴참나무는 매년 열리지 않고 2년마다 열리고.
나머지는 그 해 가을에 익으니 1년에 한 번씩 열린다.

- 보물 666호 석불좌상
삼릉계곡에서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된 불상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 오면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버릴 수가 없었다. 불상이 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안타까운 마음에 보수를 하려는 의도에서 그랬겠지만 불상의 얼굴에 시멘트를 발라 놓아 흉측하기가 말할 수가 없었다.

비록 불상은 훔측해 보였지만 항상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분도 있었다. 지금은 완벽하게 불상의 얼굴을 복원을 해놓은 상태다.
이곳을 보면 문화재를 제대로 지키는 것은 매우 쉽고도 어려운 것 같다.

불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부처님의 옷이 오른쪽으로 어깨를 드러낸 옷 모습인데 우견편단이라고 한다. 석조여래좌상에서 본 옷은 통견이었는데.
반대로 왼쪽 어깨를 드러낸 옷은 좌견편단이라고 한다.



불상의 손 모양을 수인이라고 하는데, 이 불상의 손모양은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에 대어 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해놓았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하여 무릎위에 놓은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가슴이 발달하여 당당하며 자세가 안정감이 있는 불상으로 평가 받는데 이 앉아 있는 대좌에 새겨진 연꽃의 조각도 상당한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신라의 불교문화가 가장 잘 발달한 8세기에 만들어진 불상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곳에는 전각이 지어졌던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자연그대로 노출되어 있던 노천불이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곳의 지형으로 보아 아래 계곡 쪽에 금당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불상 앞쪽에 있는 바위 위에 놓여있던 탑은 자기 자리를 잃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다행히 탑은 국립경주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진열되어 있다. 무엇이든 오래된 것이 아름답고 그 자리 그대로 있을 때가 아름답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우리 후손들은 문화재가 오래도록 아름답게 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문화재 지킴이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 마애석가여래좌상

이 불상은 남산에서 두 번째로 큰 불상인데 앉아 있는 불상 중에는 제일 큰 불상이다. 커다란 바위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조각을 했는데 높이가 약6m되는 불상으로 부처님의 눈은 마치 중생들을 굽어 살피는 것처럼 보인다.

바위 속에서 얼굴을 내밀며 홀연히 나타나시는 모습 같다. 불상의 머리에서 어깨까지는 입체감 있게 새긴 반면에 그 밑으로는 얕게 조각을 한 것을 알 수 가 있다.

신라인들은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바위를 숭배하는 민간신앙이 있었는데, 민간신앙과 불교의 사상이 섞여 신라인들만의 개성 있는 불교 사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한 사상이 이 불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머리 부분만 돋을새김하고, 몸 아래쪽은 선각으로 처리를 했다. 얼굴은 풍만해 보이지만 눈은 초승달 같아 보이며. 코는 탐스럽게 정말 높이 솟아 있다.

전체적인 모습은 조금은 엄숙해 보이지만 한편으로 자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무엇이든 꼭 하나는 이루게 해 주실 것 같다.



- 바둑바위

넓은 바위가 바로 바둑바위다.

그 옛날 신선들이 내려와서 바둑을 두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정말 이곳에 신선들이 있었을 것 같다.

신라의 첫 시조가 태어나신 나정을 비롯해서 신라의 마지막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 포석

정도 한 눈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지금의 경주 전역을 볼 수 있어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 금오산

조선시대 대학자이며 생육신의 한 사람인 매월당 김시습은 그의 나이 21세 되던 해인 1455년 수양대군(세조)의 단종 폐위 소식을 접하고는 통곡한 뒤 읽고 있던 책을 모두 불태운 다음 스스로 머리를 깎고 방랑의 길을 떠났다.

설잠(雪岑).

높고 아른 한 눈 덮힌 산이라는 법명의 수행자가 되었다.

10년여 년 간 전국의 명산대찰을 방랑하던 매월당 김시습이, 29세 되던 해 찾은 곳이 바로 이곳 용장사이다. 7년 동안 용장골에서 은둔 생활을 할 때 쓴 소설이 바로 '금오신화'인데 이곳 산 이름을 따서 책의 제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곳 남산은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신라인들의 염원이 담기고 지금은 경주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곳 남산에는 신라인들의 신앙이 살아 숨 쉬고 꿈틀거리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때로는 쉼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부처님이 계셔서 신라의 찬란했던 역사를 대변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의 역사도 약속해 주는 것 같다.

Ⅲ. 참고자료

<보충자료>

⁂ 문화재와 한식건축

Ⅰ. 문화재의 이해

1.문화재란?

(1) 사전적 정의 : 고고학 ·선사학·역사학·문학·예술·과학·종교·민속·생활양식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所産).

(2) 문화재보호법상의 정의 : 人爲的·自然的으로 形成된 國家的·民族的·世界的遺産으로서 歷史的·藝術的·學術的 ·景觀的價値가 큰 것.

(3) 문화재의 종류

1) 유형문화재 : 건축물,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등 형태가 있는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소산

2) 국보 : 그 분야, 그 시대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것.

3) 보물 : 그와 유사한 가치를 지닌 우리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유물

* 국보1호(숭례문), 보물1호(홍인지문) : 숭례문(남대문)이 홍인지문(동대문)보다 1년 먼저 세운 정문으로 건축기술적 면에서 비중이 높음

* 고려시대 목조건축의 경우 희소성 때문에 모두 국보 지정

4) 무형문화재 : 연극, 무용, 기술 등 형태가 없는 것으로 역사, 예술상가치가 큰 것. (종묘제례악, 처용무, 인간문화재등)

5) 기념물

사적 : 선사시대유적, 고분, 절터, 종묘, 서원, 향교 등

명승지 : 이름난 건물이 있는 정원, 계곡, 폭포, 주요서식지 등

천연기념물 : 동물, 식물, 광물, 천연보호구역 등

민속자료 : 우리나라의 기본적 생활 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6) 세계문화유산

국내 세계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석굴암·불국사	경주역사유적지구(남산지구,대릉원지구,
해인사 장경판전	명활산성지구,황룡사지구,월성지구)
종묘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창덕궁	조선왕릉
수원 화성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7) 기 타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Ⅱ. 불교문화재

1.불교의 이해

(1) 삼국의 불교 전래

1) 고구려(서기 372년)는 “소수림왕 2년 전진(前秦.351~394)의 왕 부견이 고구려에 사신을 보냈다. 아울러 전도승순도(順道)와 불상. 경문을 함께 파견해 불교를 전했다.”『삼국사기』⇒ 북조계대승불교(국가적차원의 전래)

2) 백제(서기 384년) “침류왕원년(384)9월 인도 출신의 마라난타스님이 동진(東晋)에서 들어오자, 왕은 환영해 궁중에 모시고 예경했다” 『삼국사기권24백제본기』⇒남조계소승불교(개인차원의 전래)

3) 신라(서기 527년) “눌지왕 때(417~458) 사문묵호자가 고구려에서 일선군 모례(毛禮)의 집에 와서 불교를 전파했다”『삼국사기』“법흥왕 14년 이차돈의 순교로 공인되었다”『삼국사기』

(2) 불교전래의 의미

1) 전제왕권강화 이데올로기설(設): 전서울대 이철준, 전한림대 이기백

2) “부처님의 권위를 빌려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한 것이 불교수용의 의미”

3) “불교의 전래는 절대적인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고대국가형성의 관념 형태적 표현”이며, “삼국시대불교의 의의는 왕권과의 결합에 있었고, 불교는 왕실을 중심으로 한 중앙귀족층의 독점물이며, 피지배층인 일반민중은 불교에 대해 무관심했거나 관심이 있었다 해도 어디까지나 소극적이고 피동적이었다”

4) 일반 백성의 종교적 역할(設) : 고려대 김정배 “왕권이나 국가라는 정치적 입장보다는 전쟁이나 개인이라는 각도에서 삼국시대를 볼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볼 때 삼국의 불교수용과 발전은 전제왕권 강화를 위한 이데올로기만이 아닌, 일반백성을 위한 종교적 역할도 했다는 것”

5) 불교의 전래는 결과적으로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거쳐 우리나라에 불교문화의 중흥을 가져와 우리문화로 흡수되어 이를 통한 독특한 양식의 사찰, 불상, 석탑, 범종, 각종문화재를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불상과 보살의 차이점

* 불상 : 부처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여래라고도 한다. 이 중에는 실제로 세상에 태어나서 설법을 통해 중생을 제도한 석가모니가 있고 인간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부처들도 있다. 이는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불상에는 석가여래,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약사여래가 있다.

* 보살상 : 보살은 보리살타의 준말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존재이다. 보살상에는 미륵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대세지보살이 있다.

2. 불상과 보살상의 종류

(1) 응신불(應身佛,석가모니, 석가여래):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활하다가 드디어 부처가 되신 분

* 석가여래를 모신 법당으로는 대웅전,응진전,나한전,영산전,팔상전등이 있음.

(2) 법신불(法身佛, 아미타여래, 약사여래 등): 인간의 형태로 태어나지 않은 부처

* 비로자나불 : 부처의 진신(眞身)을 나타내는 존칭. 비로나사, 노사나라고도 함. '화엄경'의 주존불로 진리를 상징. 대광명전, 대적광전에 모심.

* 아미타불 : 서방 극락세계에 살며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부처. 무량수전, 극락전, 아미타전 등에 모심.

* 약사여래 : 이 세상 모든 이들의 온갖 아픔을 고치고 사람들이 오래 살도록 해주며 재난과 근심을 없애어 잘 살 수 있도록 하여 부처님의 진리를 모두 잘 실천하여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부처

* 미륵불 : 석가여래가 미처 제도하지 못한 중생들을 모두 구제하기 위한 미래불로, 미륵불이 봉안된 불전을 용화전이라고 부름.

(3) 보살(菩薩)

* 관세음보살: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구제하여 안락함, 기쁨을 주는 보살. 아미타여래의 좌협시 보살로서 우협시보살인 대세지보살과 함께 아미타삼존으로 조성되기도 함. 원통전(圓通殿), 원통보전(圓通寶殿), 관음전(觀音殿), 관음보전(觀音寶殿)에 모심.

* 대세지보살 : 가난, 고통에 좌절하여 쓰러지는 중생들에게 힘을 북돋워 마침내 정토세계에 당도하게 하는 보살

* 지장보살 : 석가모니 열반 후 56억 7천만년 후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일체의 중생을 구제하도록 의뢰 받은 보살. 머리에 보관 대신에 민머리 또는 두건을 쓴 모습으로 지장전(地藏殿), 명부전(冥府殿)등에 모심.

* 일광보살(日光),월광보살(月光): 약사여래의 양협시보살로서 일광보살은 해를 상징하는 적홍색을, 월광보살은 달을 상징하는 백홍색을 보관이나 손바닥에 나타내어 약사삼존으로 조성

(4) 명왕(明王)

부처의 명령을 받아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과 이교(異敎)의신들을 항복시키기 위하여 분노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상

(5) 천부(天部)

불교의 수미산 위천계에 사는 모든 신. 인도의 토착신이 불교에 흡수된 것임.

1)사천왕 : 수미산중턱에 살며 사방을 지키고 불법을 수호하는 네 명의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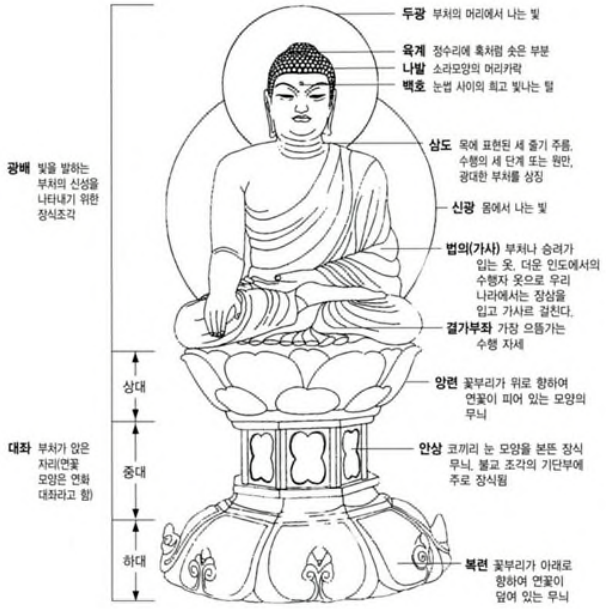
2)인 왕 : 사찰의 문, 입구를 지키는 한 쌍의 신. 금강역사, 집금강신이라고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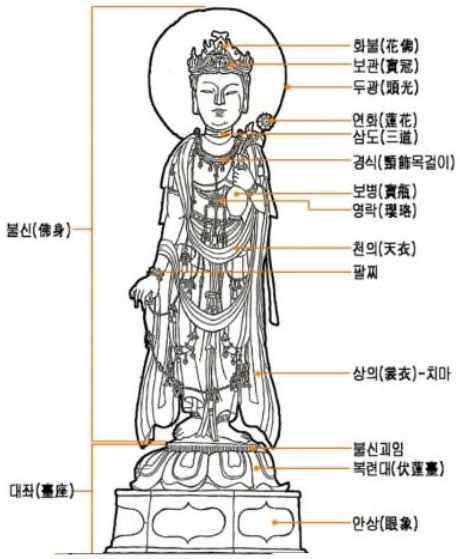
3)범 천 : 만물의근본의 신격화. 불교 이전 바라문교의 가장 존중되던 신

4)제석천 : 인도의 고대 신으로 천둥, 비를 관장하는 신

5)팔부중 : 석존에게 교화된 이교의 신들로 불법을 수호하는 8종류의 신

(6) 나한(羅漢): 불교의 수행을 통해 온갖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은 성자





1)십대제자 : 석가를 따르는 10명의 뛰어난 제자

2)유마거사 : 인도 비야리국의 맏아들로 대승불교의 이치를 터득

※불상의 종류별 특징 및 수인법

주 불	수 인	전 각	협시보살
석가모니불	시무와인 여원인 항마촉지인 설법인	대웅전	(좌)문수보살(우)보현보살 (좌)관세음보살(우)미륵보살
		대웅보전	(좌)아미타불 (우)약사여래
아미타불	구품정인 설법인 미타정인 모관찰지인 내영인	극락보전 극락전 무량수전 아미타전 미타전	관음, 대세지 관음, 지장 또는 8대보살
비로자나불	지권인	대광명전 대광보전 대적광전 비로전 보광전	문수 보현보살
약사여래불	약기인	약사전	일광, 월광보살
미륵불	용화수꽃	용화전 미륵전	신광, 청광

	아미타 구품인 아미타불이 중생의 신앙심이나 성품의 깊이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교화하여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시무외인, 여원인 어떠한 두려움도 없애주고 어떤 소원도 다 들어준다는 뜻으로 모든 부처가 취할 수 있습니다.
	지권인 비로자나불이 짓는 손갖춤으로 위치와 지혜 중생과 부처, 미혹함과 깨달음은 본래 하나라는 뜻입니다.
	선정인 참선할 때 짓는 손갖춤으로 모든 부처가 취할 수 있습니다.
	항마촉지인 석가모니불이 온갖 번뇌를 물리치고, 도를 깨닫는 순간에 짓던 손갖춤입니다.
	전법륜인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다는 뜻으로 석가모니가 불교의 진리를 전도할 때의 손갖춤입니다.

Ⅲ. 한식건축의 이해

1. 지붕

눈비를 막고 태양광선을 차단하기 위해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덮개 또는 구조

(1)맞배지붕 : 지붕면이 양면으로 경사를 이루어 책을 반쯤 펴놓은 '八'자 모양의 지붕으로 용마루와 내림마루만 있고 추녀마루는 없다.

(2)우진각지붕 : 지붕모서리의 추녀마루가 처마 끝에서부터 경사지게 오르면서 용마루에서 합쳐지는 지붕으로 내림마루가 없고 용마루와 추녀마루만 있다.

(3)팔작지붕 : 우진각지붕의 윗부분을 잘라내고 맞배지붕을 얹어 놓은 것 같은 지붕으로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를 모두 갖춘 지붕이다.

(4)모임지붕 : 지붕의 추녀마루가 처마 끝에서부터 경사지게 오르면서 지붕 중앙의 한 점에서 합쳐지는 지붕으로 평면모양에 따라 사모지붕, 육모지붕, 팔모지붕이라 한다. 용마루와 내림마루가 없고 추녀마루만 있다.



〈맞배지붕〉 〈우진각 지붕〉 〈팔작지붕〉

2.공포

포라고도 하며 목조건물에서 지붕처마 끝의 하중을 받치기 위해 기둥머리 같은데 짜 맞추어 댄 나무 부재로 지붕의 하중을 기둥에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1)주심포(柱心包) : 조선이전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공포형식, 지붕은 맞배지붕이 많다.

(2)다포(多包) : 공포가 기둥 위 뿐만 아니라 기둥과 기둥사이에도 놓이는 공포형식, 기둥위에 놓인 공포를 주심포, 기둥사이에 있는 공포를 주간포, 또는 간포라 함.

(3)익공 : 기둥위에 새 날개처럼 뻗어 나온 첨차식(堅遮式)장식으로 된 전통건축

* 양식으로 익공이 하나인 경우를 초익공, 두 개인 경우를 이익공이라 한다.



(4)단청

목조건물의 각 부재에 여러 가지 빛깔로 무늬를 그려서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한 것. 단청에 들어가는 각종 무늬에는 액을 막아 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음.

* 가칠단청 : 무늬나선을 그리지 않고 단색으로 칠한 단청으로 긋기단청, 모로단청, 금단청의 바탕이 된다.

* 금단청 : 도리, 보, 서까래 따위의 전체에 여러 가지 무늬가 들어가는 단청으로 양쪽 끝에는 각종 문양을, 중간에는 비단 무늬나 사람, 꽃, 새 등을 그려 넣는다.

* 긋기단청 : 단색으로 칠한 가칠단청위에 긴 선만을 그려 넣은 단청으로 선의 색에 따라 먹긋기와 색 긋기로 나눈다.

* 모로단청 : 도리, 보, 서까래 따위에서 양쪽 끝 부분에는 여러 가지 무늬를 그려 넣고, 가운데부분에는 선을 그리는 단청으로, 모루단청이라고도 한다.



Ⅳ. 사찰의 유래와 가람 배치, 상징체계

1.사찰의 어원 및 기원

(1)사찰의 정의

'절' 이란? 부처를 조각한 불상을 모시고, 승려들이 거주하면서 수행을 하며, 부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곳을 말한다.

따라서 절은 '부처'와 '부처의 가르침' 과 '수행하는 승려'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불교에서는 이를 佛, 法, 僧 이라 하여 삼보(三寶)라고 하며, 이 삼보가 모두 갖추어진 곳을 절이라 한다.

(2)사찰의 기원

석가모니가 처음 불법을 전하던 기원전 6세기 인도 승려들은 무소유(無所有)를 이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그들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었으며, 독신으로 탁발하며 수행했다.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처럼 떠돌이 생활로 걸식하며, 숲 속의 동굴이나 큰 나무 아래에서 좌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는데, 인도의 기후는 3개월의 열기, 5개월의 우기, 4개월의 냉기로 구분된다.

이러한 기후 특성상 5개월의 우기 기간에는 숲속의 동굴이나 큰 나무 아래 에서 수행하는 방법이 불가능했다. 석가모니는 인도 지역의 이러한 기후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기(雨期)기간에는 한 곳에 머물며 수행하는 규율을 만들게 되었다. 비를 피하여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경제력이 있는 신도들의 시주에 의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왕족이나 부유한 상인들은 부처와 승려가 모여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기증하게 되었고, 이것이 사찰이 발생하게 된 계기이다. 마가다국의 가란타 장자가 대나무 숲이 있는 땅을 바치고, 왕과 신하들이 그 죽림원에 수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집과 강당을

지어 절의 기원이 되었다.

(3) 사찰의 어원

1) 정사(精舍)

인도에서 생겨난 승려들의 수행처를 산스크리트어로 '상가람마samgharama'

상가람마는 죽림정사나 기원정사에서 알 수 있듯 '정신을 수행하는 곳(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번역되었다.

2)가람(伽藍)

'samgharama'를 중국인들이 음역하여 '승가람마(僧伽藍摩)'라 표현하다가, 다시 줄여서 가람이라 부른 것에서 유래

3)사(寺)

불교의 중국 전파 시 관청 이름에서 유래하였고, 한나라 때 외국 사신을 접대하고 머물게 하던 관청을 '홍로시(鴻盧侍)'라 함

인도에서 온 승려들도 이곳에 머물렀고, 이후 중국에서는 승려들이 머무는 곳을 '시'라 하게 되었으며, 나중에 관청과 구별하기 위해 '사'라 하게 되었다. 일정한 법도에 따라 토지를 관리하는 곳이라는 뜻이 합하여 졌음

4)암(庵)

산속의 작은 예배공간을 뜻함, 큰절에 딸린 작은 절, 또는 승려가 임시로 거처하며 도를 닦는 집(암자)을 뜻함

5)총림(叢林)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듯, 승려와 세속의 사람이 한데 모이는 곳을 의미

따라서 총림이라 하면, 강원·율원·선원 등의 구성요소가 모두 갖추어진 큰절을 의미한다.

6)강원(講院) : 경전 교육기관

7)율원(律院) : 계율 교육기관

8)선원(禪院) : 참선수행 전문도량

원래 의미는 규모가 큰 사찰 내나 선방을 가지고 있는 사찰 내에 소속된 전각으로서, 스님들이 참선을 위주로 수행을 하는 건물.

광의의 의미로는 스님들이 참선 수행을 주로 하는 참선 전문도량을 뜻함.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도심 포교당이나, 지방중소규모의 사찰 중 참선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9)선방(禪房)

선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좌선수행을 하는 방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 근래에는 참선수행을 하는 모임을 지칭하기도 한다.

10)절

민간속설에 의하면 절을 많이 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근거가 불확실함

* '모례의 집'에서 어원이 되었다는 설

【'모례의 집'어원설】

신라에 불교가 처음으로 전해질 때, 고구려의 아도 스님이 신라에 포교하려 했으나, 뿌리깊은 신라의 민간신앙 때문에 그 뜻을 펼치기가 힘들었습니다.
신라인들은 처음 접하는 불교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고, 심지어 아도스님을 해하려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례' 라는 사람이 불교를 아주 좋아하여 지금의 선산 도리사 근처 자신의 집에 아도 스님을 숨겨 주게 되었고, 아도스님은 이렇게 모례의 배려 속에 그 집에 머물면서 포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모례의 집이 우리말로 바꾸면 '털례의 집'이 되고, 그것을 줄여서 '털집'으로 부르다가 그 털이 '덜'로 바뀌고, 덜이 다시구개음화 되어 오늘날'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2.가람배치

(1)가람 배치

* 인도에서 불교가 종교로서 안정과 번영을 이룸
* 탑이 대형화 되고, 장식이 화려해지면서 탑을 중심으로 하는 가람이 유행·지속
* 기원전 2세기경부터는 석굴사원이 유행
* 석굴사원의출현은 불교의식과 기도를 하기위한 새로운 건축양식으로서의 내부공간이 필요해졌음을 암시
* 사실적인불상의 출현은 불상을 모실 공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짐을 뜻함 이는 신앙의 대상은 변화가 없으나, 사리와 탑이 형식적인 의식으로 밀려나 게 됨에 따라 가람형성에 커다란 변화가 왔음을 의미

(2)배치형식 분류

* 사찰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은 사리를 모신 탑과 불상을 모신 당우(큰집과 작은집) 이다.
* 가람의 구성에서도 탑과 당의 관계에 따라 1탑 1금당식, 1탑 3금당식, 2탑 1금당식, 무탑식등으로 나뉜다.

(3)한국사찰의 형식분류

건물이 입지하는 형식에 따라 평지형과 산지형으로 구분됨
평지형 사찰은 불교 초기 형태로 도성과 가까운 평지에 두었으며, 왕실의 원당이나 국찰로 많이 지어졌고, 도성안에 위치하여 불교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 하였음
산지형은 불교 정착 후 수행을 목적으로 입지하게 됨(초기에는 석굴을 이용하다가, 점차산지에 터를 두고 사찰을 조영하게 되면서 일반화 되었다.)

* 한국의 사찰은 평지보다는 산에 위치하는 산지형 사찰이 주류(불교사상의 변화, 민족신앙의 영향, 풍수지리의 영향)
* 민족 고유사상

우리 민족 고유의 산악숭배신앙 영향
(산에는 반드시 신령한 산신이 있다고 믿었던 원시신앙에서 시작)

(불교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명산의 이름이나 봉우리의 이름으로 명명됨)
(산을 불교의 성지로 인식하는 사상이 뿌리내리게 됨)

* 불교사상 변화
선종의 도입으로 인한 영향
(참선 수행을 중시하는 선종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귀족 세력들이 반발)
(이 반발을 피해 선종 세력이 지방의 한적한 산 속을 중심으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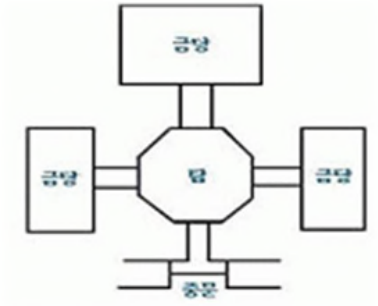
* 풍수지리영향
신라 말 풍수지리(산천비보설)의 유행
(신라말 도선국사가 주장한 산천비보설에 근거하여, 기운이 쇠한 곳을 골라 절을 세우기 시작함)
(고려태조 훈요십조 : 절을 세울 때는 산천의 順逆을 고려하여 세워라)
(이 때부터 절은 풍수지리적 명당에 위치하게 됨)

* 산천비보설(山川裨補設)
(나라안에 있는 산천의 쇠한 기운을 補益하여 국가의 基業을 든든하게 하는 것)
(지형이나 지세는 국가나 개인의 길흉과 관계를 가지며, 땅에도 쇠약함과 왕성함, 순조로움과 어긋남이 있다는 것)

* 시대별 가람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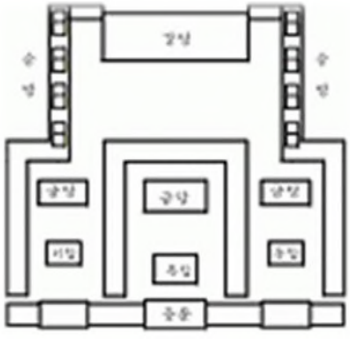
○ 고구려 <사진~ 청암리 사진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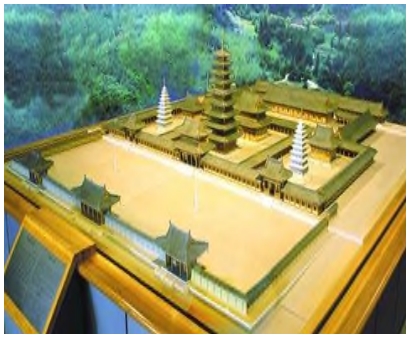
평양의 청암리 - 1탑 3금당식 가람배치



○ 백제 <사진~익산 미륵사지, 복원상상도>

익산 미륵사지의 조감도- 1탑 1금당식 가람배치





○ 신라 <사진~ 황룡사지, 복원도>

황룡사지 - 1탑 1금당 및 1탑 3금당





(4)사찰의 전각구성

1)일주문

사찰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으로 문의 기둥이 한 줄로 늘어서 있다 해서 一柱라는 이름이 유래 되었다. 일주문의 일주는 절대적인 진리를 상징한다.

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으나, 큰 편액을 걸어 사찰의 격을 높이기도 한다.(범어사 일주문은 '조계문'편액 설치)

2)금강문

사찰에 들어가는 두 번째 문으로 금강문이 있는 사찰에서 주로 대문역할을 한다. (없는 사찰의 경우에는 사천왕문이 대문역할) 불법을 훼방하려는 세상의 사악한 무리를 경계하고, 사찰로 들어오는 모든 잡신과 악귀를 물리친다는 것을 의미함, 들어가면서 우편을 나라연금강이라 하는데 힘의 세기가 코끼리의 백만배나 된다 하고, 좌편을 밀적금강 이라 하는데 야차신의 우두머리이다.





3)사천왕문

사찰의 삼문(三門) 가운데 두 번째 문으로 네 방위를 수호하는 지국천(동방, 칼), 증장천(남방, 용과 여의주), 광목천(서방, 비파), 다문천(북방, 탑)을 봉안한다. 사천왕은 사왕천(四王天)의 주인으로 제석천왕을 섬기며, 불법수호를 염원하고,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을 수호한다. 위협적인 인상을 쓰는 이유는, 타고난 성질이 횡포무상하고, 인과의 도리를 모르는 무리들을 힘으로 굴복시켜 교화하는 임무를 띠기 때문이

다.




4)불이문

대웅전 등 중심이 되는 법전 앞에 세우는 문(해탈문)으로 불이(不二)는 진리를 나타내는 말로, 생사(生死)가 둘이 아니며, 유무(有無) 또한 서로 다르지 않고, 현재와 미래가 둘이 아니라는 절대평등의 경지를 나타냄

일체에 두루 평등한 진리가 불이문을 통해 재조명 되므로, 오직 이 문을 통해 불교의 진리가 전개, 따라서 문 안과 밖의 세계가 완전히 별개임을 나타낸다.




5)대웅전

석가모니불을 봉안한 법당으로,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협시로 봉안한 형태가 기본이다. 격을 높여 대웅보전 이라 할 때는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하고, 좌우에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를 모시기도 한다.

* 삼세불은, 석가모니불(현세), 미륵보살(미래), 갈라보살(과거)
* 삼신불은, 비로자나불(법신),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보신), 석가모니불(화신)
* 선종의 삼신불은, 비로자나불(법신), 노사나불(보신), 석가모니불(화신)




6)비로전

비로자나불을 봉안한 당우(화엄전, 비로전, 대적광전)로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노사나

불과 석가모니불을 봉안하고, 비로자나불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봉안하였음, 경우에 따라서는 삼신불 좌, 우에 아미타불(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약사여래(일광과 월광보살)를 봉안하여 약사전과 극락전을 함께 수용한 형태를 나타낸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상들을 한 곳에 모신 격이다.




7)극락전

극락의 주불인 아미타불을 모신 당우로 대웅전 다음으로 많은 사찰의 당우로, 불교도의 이상향인 서방극락정토를 묘사한 법당이다. 우리나라에 극락정토 신앙이 강했던 만큼 대웅전과 버금가는 화려한 법당 내부를 지니고 있다.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 우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모시고 있다.




8)약사전

약사여래를 모신 불당(만월보전, 유리광전, 보광전)으로 약사여래상은 수인 위에 약함을 들고 있어 다른 불상들과 구분이 명확하다.

현세이익과 치병을 위한 신앙으로 고대부터 아주 중요한 신앙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입상의 경우, 시대에 따라 7세기에는 약함을 좌수에, 8세기부터는 우수에 들고 있는 형태로 구분이 된다.




9)관음전

대자대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을 모신 당우(원통전)로 관음보살은 모든 환란을 구제하는 보살일 뿐만 아니라, 그의 서원이 철두철미하게 중생의 안락과 이익에 있고, 불가사의한 인연과 신력으로 중생을 돕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관음전이 많은 편이다. 관세음보살은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으로 중생을 보살핀다고 한다.




10)지장전

구원의 이상을 상징하는 지장보살을 모신 법당으로 시왕전, 명부전이라고도 하며, 조상의 천도를 위한 근본도량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지장신앙과 명부시왕 신앙이 결합되어 불교적으로 전개되다가, 명부 심판관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명부전'의 독립된 이름으로 분화되기도 한다.




11)미륵전

미래불인 미륵불을 모신 법당(용화전, 장륙전)으로 미륵전을 본전으로 하는 사찰은 대개 법상종 계통의 사찰이다.(속리산 법주사의 경우 법상종과 화엄종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음)

미륵보살이 주재하는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희망하는 도솔천상생 신앙과, 말세적인 세상을 구제하러 미륵이 하생하기를 바라는 미륵 하생 신앙의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난다.




12)영산전

석가모니와 팔상탱화를 모신 법당(팔상전)으로 영산은 영산회상의 준말로, 석가모니가 설법했던 영산불국을 상징한다.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갈라보살과 미륵보살을 협시로 모신다. 후불탱화로는 영산회 도를 모시고, 그 주위에는 팔상도를 봉안하는데, 이 때문에 팔상전 이라고도 한다.




13)삼성각

산신각, 칠성각, 독성각을 한 곳에 모아 총칭함.

외부의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전이 아닌 각이라 칭한다.

수호신인 호랑이와 함께 모시고 있는 산신각, 수명장수신인 칠성을 봉안하고 있는 칠성각, 홀로 깨달음을 얻어 성인의 경지에 올랐다고 전하는 나반존자를 모시는 독성각

이 건물들은 우리의 고유 신앙 대상을 불교화하여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4)사찰장식과 그 상징세계

* 다리 : 개울을 건넌다는 것은 피안의 세계에 다다름을 상징

다리는 절에 오는 것을 편하게 한다는 의미와, 부처의 세계에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는 자하문(자하는 도교에서 신선이 거처하는 곳 의미)을 통하여 선계, 부처가 있는 세계로 향한다는 의미

연화교와 칠보교는 극락세계로 진입하여 다시 태어남을 의미





* 연꽃 : 청정한 불국토(佛國土)의 꽃

연꽃은 늪이나 연못에서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미묘한 향기를 지니고 있다. 이런 연꽃의 생태적 속성이 불교의 이상과 부합되어 청정과 고결, 미묘의 상징형으로 쓰이고 있다.

『화엄경 탐현기』에 연꽃은 향, 결, 청, 정의 네 가지 덕을 지니고 있다고 함.





* 용 : 불국정토로 인도하는 사찰의 수호신

법당 전면 기둥과 처마 밑을 비롯 법당 안의 닫집, 천장, 기둥, 벽, 그리고 계단 소맷돌 등에 주로 장식. 법당 어간(전면 중앙 칸)의 양쪽 기둥머리에 조각해놓은 용두의 경우, 용미와 함께 세속에서 극락을 향하는 반야용선을 의미

범종의 용뉴는 불법을 전파하는 의미를, 다리의 용은 부처의 세계를 악한 것으로부터 수호하는 의미를 지닌다.





* 용면 : 사악한 무리를 경계하는 벽사의 화신(사찰을 수호하는 역할)

인도 고대의 신인 시바의성소와 불교사원에서 볼 수 있는 장식용 벽사의 탈인 키르티무카(영광의 얼굴)에서 유래

시바신의 무서운 측면을 나타낸 것으로, 사악한 자를 물리치고, 참배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함. 당초나 연꽃을 물고 있어 일반적인 용두와는 구분이 되고, '낯(얼굴)휘(몇 가지의 색깔 띠로 색채)'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 비천상 : 부처의 소리를 전하는 아름다운 선녀

비천상은 주로 사찰의 범종에서 확인 가능한 것으로, 춤추고 노래하는 인도신화의괴물이다.(건달바와 긴나라가 원형)

건달바는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향(香)만을 구하여 몸을 보호하고, 몸에서 향기를 발산하며, 속악을 연주한다.(긴나라는 법악을 연주하는 천신)

대부분의 비천상은 주악비천상, 성덕대왕신종은 공양비천상




* 卍 : 길상과 만덕의 충만함을 표현

동서남북을 상징하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구의 한 끝에서 다른 끝으로 옮겨가는 태양의 궤적에 따라 공간이 분할된다는 의미(십자의 형태(城)는 소우주를 의미, 석가모니가 출가 전에 사문유관한 행위는 지구상에 창조된 소우주를 편람 했다는 의미)

가로선은 삼세(三世), 세로선은 시방(十方), 일심의 덕이 삼세시방을 관통해 종횡무진한 것을 나타냄

【四門遊觀】

석가모니가 출가 전 동문 밖에서 늙은이를, 남문 밖에서 병든 이를, 서문 밖에서 죽은 자를, 북문 밖에서 승려를 보고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석가의 출가를 재촉하기 위해 제천이 변화한 것이라 해석

토끼와 자라

불국정토로 향하는 불전설화의 주인공들

토끼는 불전설화를 통하여 희생과 헌신의 상징형으로 묘사 (제석천과 원숭이(도토리), 여우(잉어), 토끼)

별주부전을 통해 자라는 인도자의 모습으로 불국정토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원숭이(석가), 악어(변절한 석가의 제자 제바달다), 악어의 아내 (원숭이의 간을 먹 고 싶어 하는 용왕))





* 물고기 : 원천적 자유와 수행의 상징

물고기가 연못에서 헤엄치며 노는 모습은 어떠한 제약이나 정형화된 틀에 구속되지 않은 경지를 나타낸다.(梵의 경지)

물고기를 형상화한 풍경, 목어, 목탁은 물고기가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듯이 수행자도 항상 부지런하게 수행에 정진하라는 뜻

전통적인 자물쇠의 형상은 물고기 모양(자물쇠 자체가 도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 밤낮으로 눈을 뜨고 지킨다는 의미)





* 태극 : 절대 평등과 원융(圓融)의 조화

사찰장식에서 태극은 형식상 이태극과 삼태극의 양식이 혼재

이태극은 음과 양이 개별성과 의존성을 지니면서 상호 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삼태극은 천, 지, 인을 의미하고 홍, 청, 황색으로 표현

성리학에서의 태극은 사멸이 없는 구원의 상으로 이해, 불교에서 불성이란 심오하고 참된 법으로, 불생불멸하는 만물의 실체를 의미하므로 태극과 불성은 모두 우주와 인간의 본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 불단 : 법당 정면에 부처님을 높이 모시기 위해 만든 단(수미단)

부처님의 상을 직접 모시는 자리인 만큼 아름답고 신비로운 장식 문양들로 가득함. 신령계의 환상적 동물들과 현실계의 길상 상징물, 그리고 불교적인 상징형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불단은 불교장식문양의 보고

은해사 백홍암 극락전 불단의 경우, 쌍을 이루고 있는 물고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상의 새나 동물들이다.

* 닫집 : 불전 속에 세워진 또 하나의 궁전

불전 내부에 들어가면 불좌 위에작은 집의 모형이 있는데, 이것을 보통 닫집 이라 부른다. (‘닫’이란 ‘따로’라는 옛 말이니 ‘집안에 따로 지어 놓은 또 하나의 ’집’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닫집은 불국정토의 궁전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징물들을 장식하여 화려함을 연출하는 운궁형, 독립된 집 모양을 하고 있는 보궁형, 포작의 결구를 통해 천장을 파고 들어간 공간의 사면에 설치하는 보개형이 있다.





개심사 대웅전　　쌍계사 대웅전　　봉정사 대웅전

* 탑의 층수 : 우리나라의 불탑은 기수(홀수)로 구성

고대 동양의 우주관이나 음양오행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3은 완전성을 갖춘 수, 천·지·인 삼재를 의미하며, 길상의 수로도 인식(三陽開泰 (삼양은 봄이 시작되는 시점, 개태는 만사형통함을 의미))

5는 천위(天位)의 수로 오행에 응하는 수, 7은 천·지·인과 사시(사철)를 의미하고,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수, 9는 양이 완성됨을 의미한다.





화엄사 4사자 3층석탑　　왕궁리 5층석탑　　남계원 7층석탑

* 기단과 기둥 : 빗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변보다 높이 쌓은 것으로, 궁궐이나 사찰, 관청에서는 건물을 웅장하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기단을 높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건물의 격을 높임) 보통 기둥의 종류에는 원기둥과 각기둥이 있는데, 대개 원기둥의 격이 더 높다고 하여 궁궐이나 사찰의 주요 건물은 원기둥을 사용하였다.(천원지방-원형을 남성에, 방형을 여성에 비유)
원주는 공간을 통합하는, 방주는 공간을 분화하는 성격이 강함

⁂석탑의 시대적 변화

Ⅰ 한국 석탑의 시원(목탑 → 석탑)




▲삼국시대, 백제, 부여정림사지 5층석탑　　▲삼국시대, 백제미륵사지석탑

1. 목탑의 요소 : 상층으로 갈수록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체감비 / 기단 구축 / 우주와 탱주의 표현 / 낙수면의 경사 및 반전 / 옥개받침, 낙수홈
   (1) 고구려 목탑 - 청암리사지, 상오리사지의 팔각목탑지
   (2) 백제 목탑 - 미륵사지, 군수리사지, 금강사지, 제석사지 목탑지
   (3) 신라 목탑 - 황룡사구층목탑, 흥륜사, 천주사, 영묘사 목탑
   신라 석탑의 시원(始原)기,7세기중반

▼분황사석탑　　▼ 의성탑리5층석탑



634년 건립, 안산암을 벽돌 모양



전탑양식 + 목조건축 수법

의성 탑리 오층석탑에서는 분황사 모전석탑에 비해 목조건축의 요소를 여러 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탑 구성에 많은 양의 석재가 사용됨 / 지대석 윗면 우주와 탱주가 놓일 위치에 홈 을 파서 마치 초석과 같은 면은 보이고 있음
우주와 탱주에 엔타스시 수법 / 1층 몸돌에 놓인 별석의 우주에 엔타시스가 뚜렷, 윗면엔 주두(柱頭)가 놓여 있고 / 남쪽 면에는 감실 / 안정된 체감비를 통해 목조건축 재현에 충실
옥개석 위아래면에 표현된 층단형 받침에서는 전탑 수법 보임.

* 목탑을 꿈꾼 석탑 - 석탑에 남긴 흔적



2. 신라 석탑의 전형(典型), 통일직후 ~ 8세기





감은사지3층석탑 13.4m

고선사지3층석탑

692년 효소왕이 부왕인 신문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건립.
706년(성덕왕 5년) 성덕왕이 형인 효소왕과 부왕인 신문왕을 기리기 위해 사리, 불상 등

을 다시 넣었으며, 왕실의 번영과 태평성세를 기원함.



월성나원리오층석탑

3. 8세기 제작 (추정)

감은사지삼층석탑, 고선사지삼층석탑과 비교되는 9m 높이의 짜임새 있는 석탑

3층 옥개석에서사리함 나옴

금동불 입상 1구, 금동삼층탑 1기, 9층탑 3기

*나원백탑(白塔) - 신라 8괴(八怪)의 하나.(남산부석, 문천도사, 계림황엽, 금장낙안, 백률송순, 압지부평, 불국영지, 나원백탑, 선도효색, 금오만하)

4. 신라 석탑의 전형(典型), 8세기중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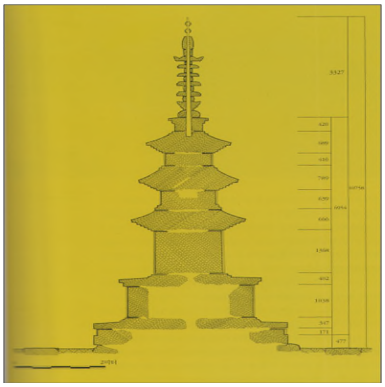
751년 건립(추정)

무구정광대다라니경 - 2층 몸돌

1966년 복원

무영탑(無影塔)

석가여래상주설법탑(석가탑)





석가탑에서 나온 사리장엄구 일괄 및 석가탑 단면도(2층 몸돌에 난사리구)

* 유일무이한 존재로 탄생한, 다보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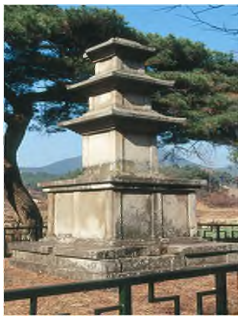


751년 건립(추정)
높이 10.4m(석가탑 동일)
1925년 해체, 보수
유일하고 독특한 형태

5. 9세기, 변화의 시기 - 줄이고 간략하게, 지방으로 크기 줄고, 옥개받침 • 탱주 • 옥신괴임 감소



남사리사지삼층석탑



효현리삼층석탑



남산용장사곡삼층석탑

6. 특이형 석탑, 8세기 이후



불국사다보탑



화엄사사사자석탑



정혜사지십삼층석탑

* 모전석탑 양식 반영한 이형탑





고려시대 석탑



남계원칠층석탑
- 신라탑영향(개성)



무량사오층석탑
- 백제,신라탑영향(부여)



개심사지오층석탑
- 1010년건립(예천)

고려시대, 특수형 석탑



월정사팔각구층석탑
- 고려전기(다층다각)



경천사십층석탑
- 고려후기(대리석)

조선시대 석탑



낙산사칠층석탑

- 고려양식계승한 조선전기석탑



원각사지십층석탑

- 조선시대 대표탑(형태특이,장식풍부,대리석)

이 책은 경주국립공원사무소 해설사 내부 교육용 교재로 제작되었으며, 너무나 다양한 자료집 및 인터넷자료를 활용하였기에 그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활용된 자료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문의가 있을시 경주국립공원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